

기차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KTX

May 2021



앱을 내려받으면
무료로 전자책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

드라마틱, 부산진구 여행
TV 프로그램 <기차로> 춘천 촬영 동행기
이산하 시인이 만난 김아타 작가





2021 S/S Collection

PARKLAND

✈
파크랜드를 만나면
일상은 **여행**이 된다
✈



MAY 2021

KTX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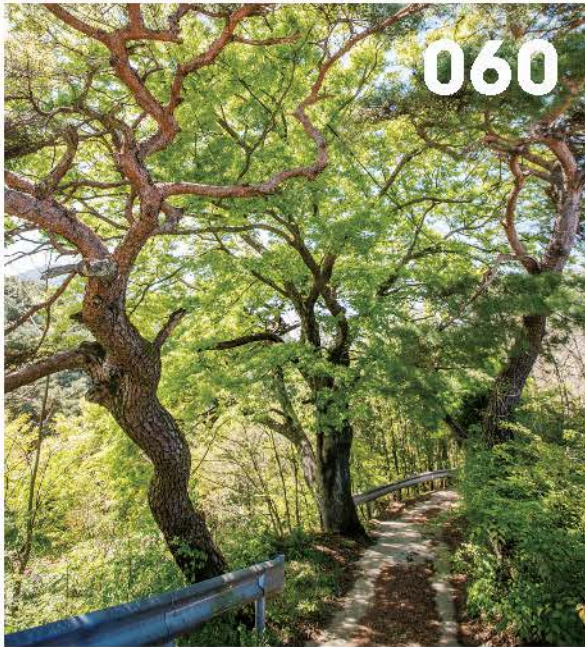
▶ 테마 여행

어제의 선물, 오늘의 낭만을 찾아
부산진구 여행

부산시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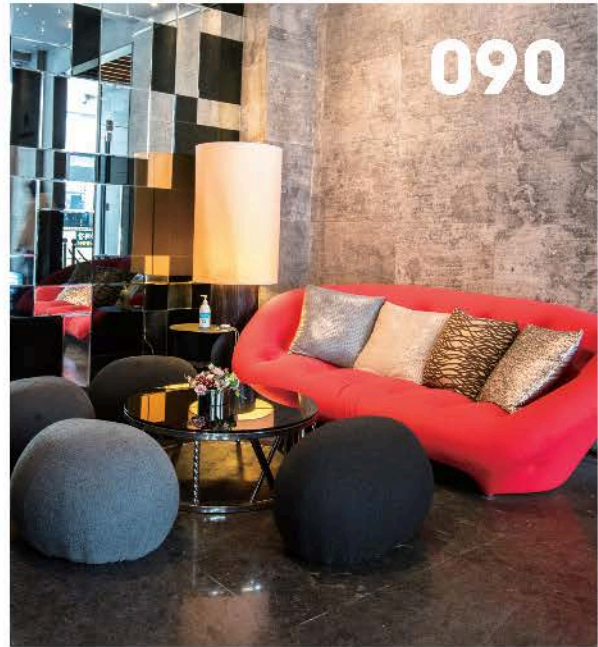


series:
urban gen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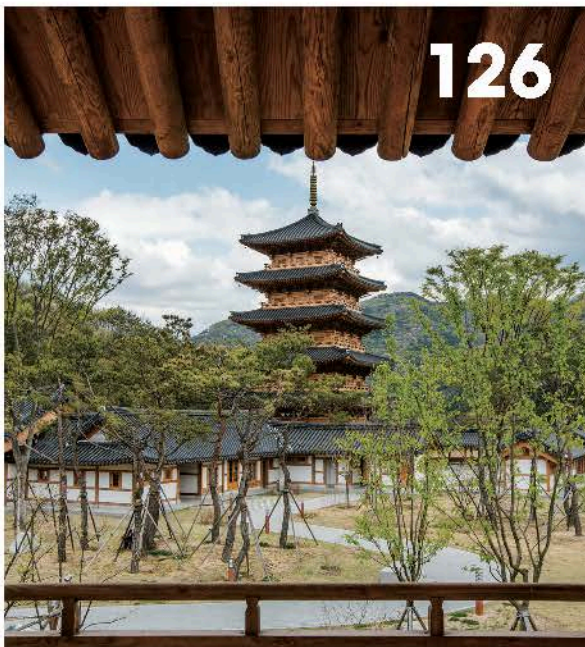
060

사진이 그린 여행 눈부신 연초록 잔치가 한창인 경북 칠곡 한티가는길을 걸었다.



090

여행자의방 특별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부산 호텔을 찾았다.



126

슬로 여행 공기에 설렘이 가득한 계절, 봄이 완연한 경북 김천을 다녀왔다.



146

작가가 만난 작가 이산하 시인이 김아타작가를 만났다. 거장이 거장을 인터뷰했다.



AHILO

홈페이지 www.ahilo.co.kr | 대표 전화 02 2256 7901 | 개설킨의 02 2254 4903



042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전남 순천·구례에서 정성을 다해
가업에 힘쓰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106

이계절 여행

경기도 여주의 영릉과 신륵사를 걸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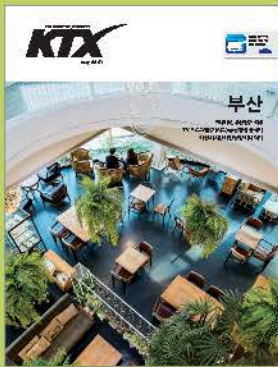


114

이색 여행

TV 프로그램 <기차로> 촬영 현장에
동행해 강원도 춘천을 누볐다.

COVER STORY



오래된 공구 골목의 변신,
부산 전포카페거리에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긴다.
글. 진주영 사진. 신규철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
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 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022

우연한 발견

음원 차트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요즘,
어떤 노래는 차트 역주행에 성공한다.

024

생활의 지혜

식물 키우기를 망설이는 초심자를 위해
반려식물 가이드를 준비했다.

038

트래블 이슈

지난달 서비스를 재개한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을 들고 부산을 여행했다.

048

에디터 자유 여행

4월 1일 광주비엔날레가 막을 올렸다.
예술이 넘실대는 광주를 만끽했다.

096

전국 맛집 탐방

전북 고창에서 자란 청정 자원으로
밥상을 차리는 음식점 15곳을 소개한다.

156

문화 돋보기

최초의 사랑, 최초의 상처, 가족.
영화 10편으로 가족의 변화상을 살폈다.

174

미니 인터뷰

영화감독 진모영이 여섯 나라 노부부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돌아왔다.

KORAIL INFORMATION

- 180 한국철도 소식
- 186 시간표
- 196 편의 시설 및 부가서비스
- 198 열차 이용 안내
- 200 비상시 행동 매뉴얼



Stardust



The New Bugaboo Stardust
Bedtime & Playtime made easy

MAY 2021

2021년 5월호 제18권 제5호 통권(제206호) 2021년 5월 1일 발행

발행인		손병석(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1001-3호
	편집인	이민성 leems@swadcom.co.kr
	편집국장	이영란 anayoung22@swadcom.co.kr
	편집장	김현정 kimhj@swadcom.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0911@swadcom.co.kr
	기자	이내경 lnk@swadcom.co.kr
		진주영 swadjy@swadcom.co.kr
		표다정 pdj123@swadcom.co.kr
	교열	오미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wadcom.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wadcom.co.kr
		윤범식 bumdiki@swadcom.co.kr
		이원경 leew@swadcom.co.kr
	광고 디자이너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사진		LIGHT FACTORY STUDIO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이규열 이창주
	실장	이철 조지영 박정우 장은주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티나
	성우에드컴 사진 디렉터	김희진 khj1@swadcom.co.kr
번역		박경리(영어)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wadcom.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wadcom.co.kr
	대리	이기찬 kclea_40@swadcom.co.kr
온라인 마케팅 재휴 마케팅	부장	이정훈 guide@swadcom.co.kr
		(주)쓰뉴미디어 박은자 kawai_ejp@hotmail.com
제작 지원	상무	박남규 blue@swadcom.co.kr
	이사	이현웅 hulee@swadcom.co.kr
	실장	조종형 chong@swadcom.co.kr
	부장	국선희 heeya9722@swadcom.co.kr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애플리케이션 제작 인쇄		(주)굿초이스 (주)타라티피에스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890-8434 광고 02-890-0907

당신의 직수, 필터 속까지 깨끗합니까?



쓰면 쓸수록 쌓이는 필터 속 찌꺼기
'국내 유일, 필터 역세척'으로
필터 속 찌꺼기까지 살균 세척하는 -셀프
이제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드세요

필터 속까지 살균하는
셀프 SELF CARE

그래서 꽃이 핀다면,

지구가 거대한 꽃다발 같은 나날입니다. 벚차도록 꽃이 피어서, 황홀하도록 예쁘고 향기로워서, 너무 황송합니다 하는 말이 우러납니다. 저를 위해 피진 않았지만, 눈 돌리는 데마다 꽃 천지라 제가 받은 거나 다름없이 느껴지니까요.

꽃이 흐드러진 여주에서 김아타 작가님과 이산하 시인님을 만났습니다. 꼭지 이름 '작가가 만난 작가'를 '거장이 만난 거장'이라 바꿔도 좋을 두 분입니다. 원고를 맡은 이산하 시인님은 1987년 스물일곱 나이에 제주4·3을 소재로 서사시를 발표해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10여 년을 펜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끔만 인간이 된다는 그분 표현대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몸서리쳐졌기 때문이겠죠. 1982년 등단한 분이 올해 초 세 번째 시집 <악의 평범성>을 내셨습니다. 40년간 시집이 세 권. 생각을 버리고 응축한 시어는 진하고 단단합니다. 동굴 같고 무덤 같은 어둠을 더듬어, 눈물과 상처를 손으로 쓸어 만져 시로 만들어 가져온 시인의 모습은 스물일곱이나 오늘이나 여전합니다.

사진작가로 출발한 김아타 작가님은 2010년대에 캔버스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중 '블랙마운틴' 연작이 있어요. 군부대에 어렵게 허락을 받아 최전방 포 사격장에 캔버스를 설치하고,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포를 쏘았습니다. 맨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먼 거리. 포탄은 조준한 지점에 날아가서 캔버스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작가님은 그 처참한 천 조각을 하나하나 수습해 패치워크했어요. 무기가 어떤 것인지 이 작품이 알려 줍니다. 여기서는 캔버스가 찢어졌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옷이, 사람이, 삶이 그렇게 되었겠지요.

예술가란 어둠 속으로 들어가 기어이 바닥을 짚으려는 이, 아프게 팬 웅덩이를 지나치지 않고 응시하려는 이. 5월호를 제작하는 동안 4월 16일이 지나갔고, 5월엔 5월 18일이 있습니다. 표다정 기자는 '에디터 자유 여행' 취재로 광주비엔날레에 다녀왔어요. 5·18민주화운동 당시 유년을 보낸 80명의 기억을 수집하고, 그분들 말을 지금 광주에 사는 아이 목소리로 녹음한 문선희 작가의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벼락 같은 소리였어요, 탕! 탕! 탕!" "엄마가 걱정하시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아빠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1949년 문경 석달마을 학살 생존자로서 진상 규명을 위해 평생 애쓰다 돌아가신 채익진 선생의 지팡이를 전시한 임민욱 작가의 작품도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이 글을 쓰는 현재 버마(미얀마)에서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연대하는 일밖에 못 해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5월의 봄날, 세상에 그토록 많은 꽃이 피어나는 이유는 꽃을 바쳐야 할 곳이 많아서일까요. 그런 의미라면 꽃이 없어도 저는 좋습니다. 예술은 아름답고, 아픔을 기억하는 예술은 더욱 깊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

<KTX매거진> 편집장 김현정

꽃이 없어도 좋아요

"소이가 준비했어요~"



사랑도 우유도 1등급
체세포수까지 1등급

A 100%
 체세포수 1등급 · 세균수 1A



스크래치를 최소화하는
안티스크래치 기능

Point



캐리어 세븐티스 컬렉션

2008년에 론칭한 네덜란드 러기지 전문 브랜드 수잇수잇의 '캐리어 세븐티스 컬렉션'은 1950년대 냉장고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 바질 그린, 코랄 클라우드 등 톤 다운된 파스텔컬러로 그 시절 감성을 제대로 살렸다. 방탄유리 소재로 알려진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 충격에 강하다. 수잇수잇 02-6249-1021, suitsuitmall.co.kr

**Point**

이국적이면서 시원해 보이는
홀치기염색 프린트

리넨 홀치기OP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의류 브랜드 아일로의 원피스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홀치기염색 프린트가 돋보인다.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튜닉 스타일이라 보디라인이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준다. 일상에서는 물론 여행지에서도 빛을 발하는 원피스는 벨트로 허리선을 강조해 연출할 수 있다. **아일로** 02-2256-7901, ahilo.co.kr



룬샷 레이어드 세라마이드 앰플 토너·밤 크림

건강한 피부 관리의 큰 이슈는 보습에서 출발한다. '신개념 피부 보습 테크의 세계, 크레이지 뷰티 레시피' 룬샷은 단 두 제품 사용만으로 놀라운 피부 보습 효과와 촉촉한 빛의 실루엣을 선사한다. 앰플 토너 사용 후 밤 타입 크림을 바르고 다시 앰플 토너로 마무리하는 3단계 사용법으로 룬샷만의 수분 폭탄 진정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주)뷰티를 열다 070-4849-4849, loonshot2020.com



L.ma LED 페이스 마스크

432개의 LED 빛이 피부 속 세포를 활성화해 세포 재생과 항노화 작용을 돕는다. 'L.ma LED 페이스 마스크'의 기능은 피부 톤을 개선하는 토탈 케어와 코 막힘 완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큐어 케어로 나뉜다. 마스크 사용 후 거치대에 올리면 충전과 동시에 UV 살균 시스템이 작동해 자동으로 살균된다. 360그램의 가벼운 무게도 장점. 엘마 1522-6626, lmashop.com



부가부 스타더스트

네덜란드 프리미엄 스트롤러 브랜드 부가부에서 프리미엄 접이식 아기 침대 '부가부 스타더스트'를 선보인다. 특허받은 에어로스페이스 폴딩 테크놀로지로 1초 만에 펼치고 3초 만에 접을 수 있어 편리하다. 위생이 중요한 요즘, 가정뿐 아니라 호텔이나 캠핑장에서 아이 전용 침대, 유아용 놀이 펜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부가부 1577-0680, bugaboo.com



📌 #KTX매거진

🗨 #SNS에서 #찾은

❤ #생생한 #리뷰 #달리는 #KTX안

정리. 표다정



SNS채널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주세요.
'기차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코즈메틱 브랜드 델라비에의
'셀레니티스 오일밤 클렌징 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우수인증설계사

100% 완전판매율

가족같은 마음으로 고객님과의 약속을 지켜겠습니다.

90% 계약유지율

책임감 있게 고객님의 계약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3회차 계약유지율 96.2% (2020년 인종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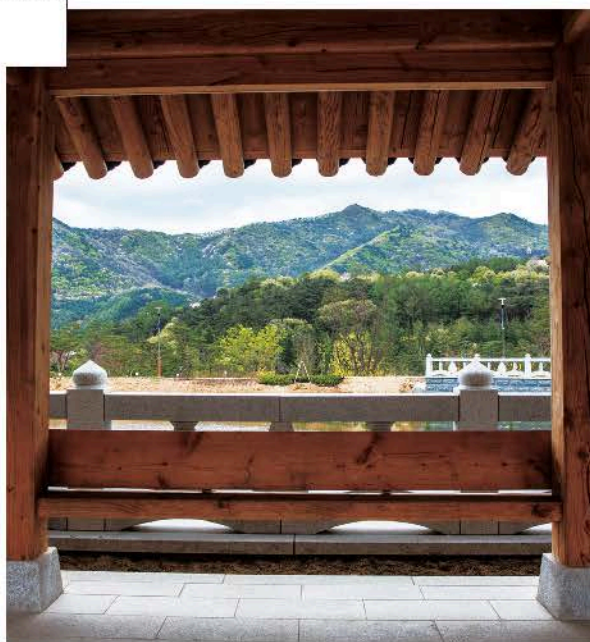
3년 이상 등록

변함없는 모습으로 고객님 곁에 있겠습니다.

*등록기간 13.9년 (2020년 인종자 평균)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생명보험협회가 전문성이 우수한 보험설계사를 중 불완전판매가 없고, 고객 만족도가 높은 보험설계사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트래블 이슈]
홍연수

코나아이 홍보실 차장



[슬로 여행]
제갈은희

김천시청 문화관광해설사



[이색 여행]
홍은정

<기차로> 피디



[테마 여행]
김근수·김성온

부산진구청 주무관

전화기 너머 들리는 목소리가 무척 맑았다. 첫인상이 오래 남는다는데, 차장님의 살가운 목소리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같이 편했다. 그 음성으로 언제나 “네” “좋아요”라고 답하시니 더더욱 좋을 수밖에. 그런 덕분에 ‘트래블 이슈’ 취재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카드를 일찌감치 보내셔서 출장가기 전에 무사히 받았고, 촬영하는 여행지에서 동백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빠르게 알아봐 주셔서 안심하고 부산에 내려갔다. 이번 취재를 하는 동안 낭랑하고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차장님 목소리가 큰 힘이 되었어요 ~ 동백전, 정말 쓸쓸해요! 이대경

갑작스러운 부탁임에도 김천을 안내하기 위해 한걸음에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았다. 몽환대에서 인사를 나누고 연화지를 함께 걸으며 들은 동화 같은 이야기. 김천이 김산군이라 불리던 시절 김산군수 윤택이 저수지에서 날아오른 솔개가 관아에 와서 몽환으로 변하는 꿈을 꾸고는 저수지 이름을 솔개 연(鸞) 자, 바깥 화(嘩) 자를 써 연화지라고 명명했다는 역사, 해설사님이 사는 동네이자 연화지와 김산향교가 자리한 교동의 변천사를 줄줄, 우리 주위에 있던 시민도 경청하게 만드는 해설사님의 클래스. 제 눈에만 대본이 안 보이나요? ㅎㅎ 해설사님 못 뵈고, 설명 못 듣고 갔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표다정

약속 장소인 서울 용산역에 도착했다. 활짝 웃으며 다가오는 피디님. 취재 전 점찍은 ‘이색 여행’ 화보 촬영 장소를 말하고 협조를 구했다. 듣자마자 “그럼요”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기차로> 촬영팀과 동행하며 알게 됐다. TV 예능 프로그램 촬영은 설움이 없었다. 그런 중에 피디님은 내가 말한 장소를 미리 살펴 “저기 올라가 보니 풍경이 좋더라”고 말씀하셨다. 출연진에게 “여기서 <KTX매거진> 화보를 촬영한다”고 얘기했으며, 닭갈비를 먹으면서는 내게 어떻게 피디가 됐는지 들려주셨다(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원고가 넘칠 테니 나만 알고 있기로). 이런 피디님이니까, <기차로> 대박날 것이외다! 김규보

부산시민공원에서 열심히 해설하던 김덕숙 문화관광해설사님이 “아이고, 물을 안 챙겨 왔네”라고 한마디 하셨다. 잠시 후 김근수 주무관님이 양손 가득 물을 들고 나타났다. 세상에, 이렇게 다정할 수가.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나눠 주는 모습에 반했다. 김성온 주무관님 역시 다정한 면모를 한 가득 뽐내셨다. 해설사님 설명에 귀를 쫓고있다가 취재팀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적절하게 덧붙이셨다. 그 덕분에 편하게 취재했다. 두 주무관님이 열정을 다해 준비 중인 부산진구의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 기다려진다. 바쁜 일정 탓에 커피 한잔 못 한 게 아쉽다. 다음엔 전포사잇길에서 만나요. 진주영

2021
5. 14 ~ 16

전통등전시회

5월 14일(금) ~ 30일(일)
청계천, 조계사, 봉은사
*장소에 따라 일정이 상이함

연등법회 및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5월 15일(토)
오후 6:00 ~ 8:00
조계사, 연등회 유튜브 중계

유튜브로 만나는 전통문화마당

5월 16일(일) ~ 19일(수)
연등회 유튜브

연등회

YEON DEUNG H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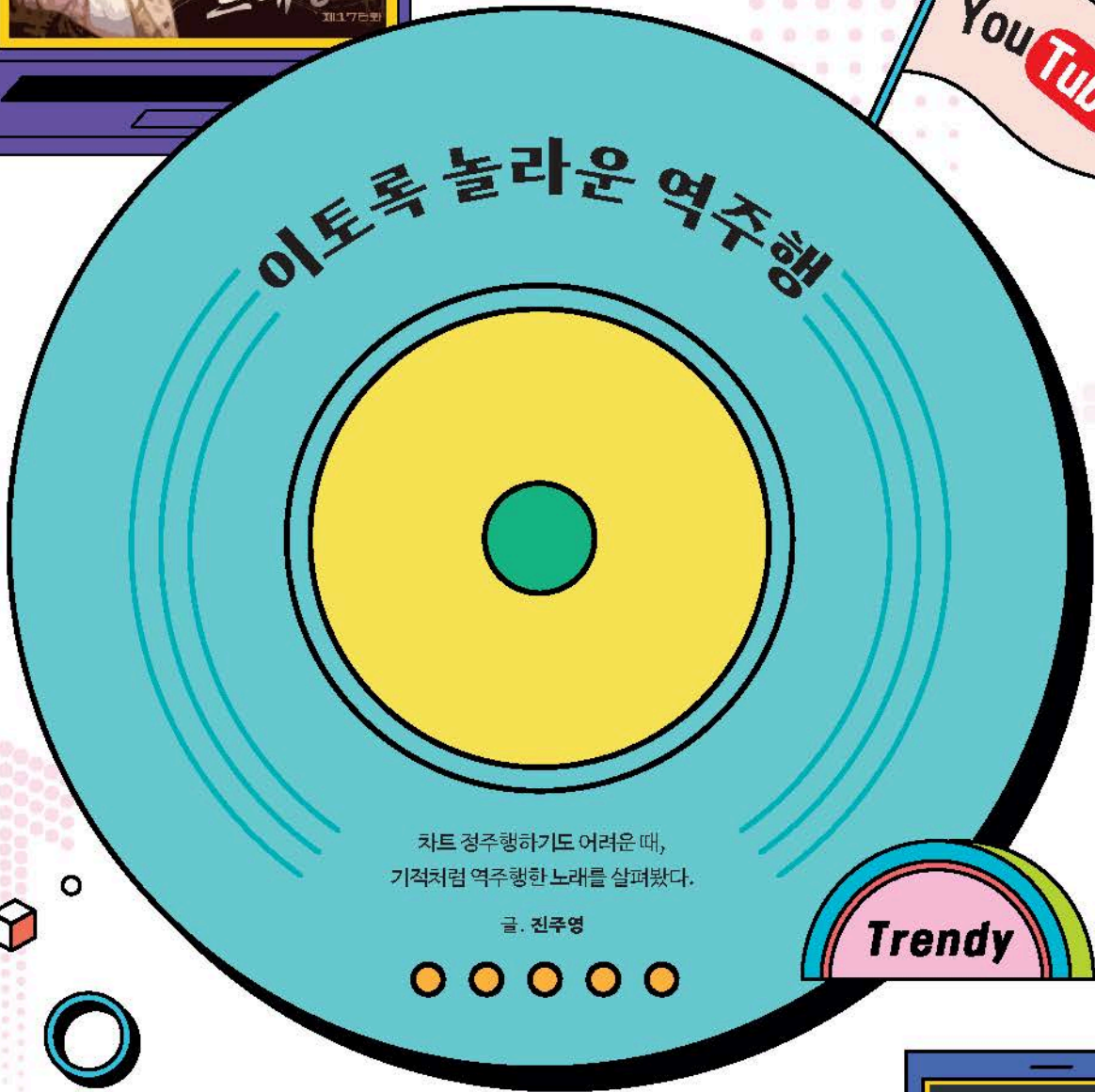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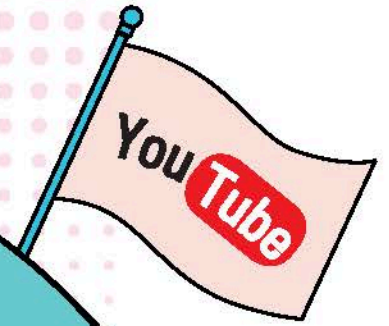
燃燈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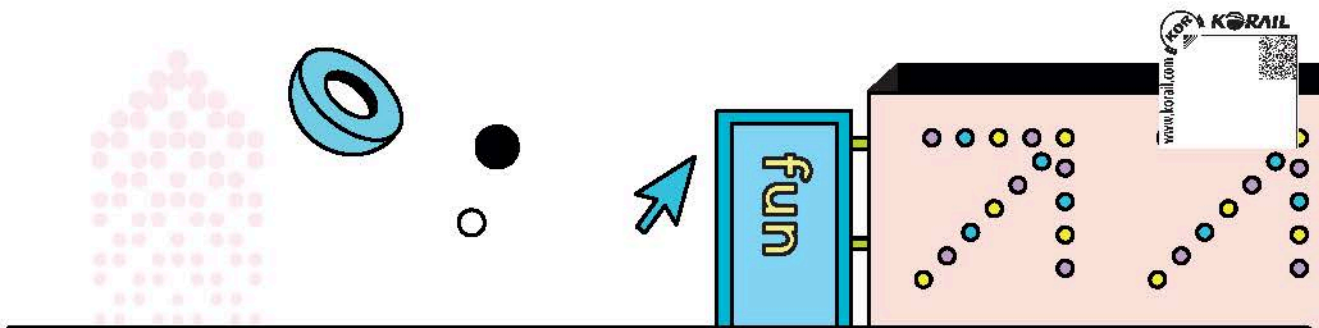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환영합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등회
바로보기







“국군 장병, 예비역, 민방위분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한 그룹 브레이브걸스의 수상 소감이다. 데뷔 5년 만에 첫 1위를 거머쥔 가수가 고마움을 전하는 대상이 부모님, 팬, 소속사 임직원에게 이어 군인이라니,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의아할 수밖에 없다.

2016년 데뷔한 브레이브걸스는 ‘하이힐’ ‘롤린’ ‘운전만 해’ 등 여러 곡을 발표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했다. 이런 그들의 노래가 ‘떼창’으로 울려 퍼지는 곳이 있으니, 바로 군대다. 데뷔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국군TV <위문열차> 무대에 섰다. 그래서일까. 브레이브걸스는 군인이 즐겨 듣는 노래를 일명 ‘밀보드’(밀리터리+빌보드) 차트에서 유독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좋은 걸 군인만 봤다니...” 한탄을 금치 못하는 최근 반응처럼 대중적 인지도는 낮았던 탓에 브레이브걸스는 올해 초 해체를 앞둔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 2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17년 발표한 노래 ‘롤린’이 음원 차트에 진입한 것이다. 유튜브 채널 <비디터>에서 브레이브걸스의 무대와 관련 인터넷 댓글을 모은 영상을 올렸고, 이 콘텐츠가 인기를 모으면서 음원 차트에도 영향을 주었다. 도대체 어떤 영상이었기에? 귀를 사로잡는 청량한 멜로디, 행복하게 노래하고 춤추는 멤버들, “전쟁 때 이거 틀어 주면 전쟁 이감” “철저한 인수인계로 군번 대대로 내려오는 곡” 같은 현장감 넘치는 댓글, 관객석에서 격렬한 응원을 보내는 군인의 모습이 어우러진다. ‘롤린’ 덕택에 군 생활을 버틴 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일주일 만에 60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해체 직전의 그룹이 4년 전 활동한 노래가 1위로 등극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 냈다.

2012년 데뷔한 그룹 EXID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14년 한 유튜브버가 촬영한 EXID 공연 영상이 압소문 나면서 발매한 지 3개월 된 곡 ‘위아래’가 차트를 역주행했다. EXID는 이 영상으로 인기 그룹 대열에 합류했다. 반대로 인지도 높은 가수가 이런 방식의 수혜를 입을 때도 있다. 발매하는 곡마다 주목받아 온 가수 아이유가 그 예다. 지난해 연말, 아이유가 2011년 발매한 드라마 OST ‘내 손을 잡아’가 재조명됐다. 콘서트에서 이 곡을 노래하는 아이유의 잔망스러운 모습이 소셜 미디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자, 아이유 유튜브 공식 계정에 정식 라이브 영상이 올라온다. 그 덕분에 음원 차트 순위도 급격히 상승세를 탔다. 아이유가 열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선보인 첫 자작곡인 데다가 가사에 맞춰 달라지는 제스처와 표정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엔 그룹 2PM이 2015년에 발표한 노래 ‘우리 집’의 포인트 안무를 따라 추는 ‘우리 집 챌린지’ 열풍이 불기도 했다. 과거 무대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많은 이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기 때문이다. 댓글 창엔 “이걸 이제야 보다니 인생 헛살았다” “우리 집이 아니라 음집으로 가자고 해도 따라간다” 같은 살가운 댓글이 끝없이 이어진다.

인기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은 지난 4월 ‘다시 컴백해도 눈감아 줄 명곡’ 콘텐츠를 시작했다. MC 재재와 구독자가 원하는 그때 그 시절 가수와 노래를 2021년 버전으로 소환하는 기획이다. 콘텐츠에 힘입어 추억의 노래가 음원 차트를 점령할 날이 머지않았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TV나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에서 전해 주는 소식 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걸 마음껏 씹고 뜯고 맛본다. 시간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기도 한다. 잘 만든 콘텐츠와 절묘한 타이밍이 노래의 운명을 바꾸는 시대다. ■

Rollin'





어서 와, 반려식물은 처음이지?

식물 키우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질문,
답을 찾아봤다.

글. 진주영



Question 1

제대로 못 키울까 봐 겁이 나요.

식물과 헤어질 적 있다?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있다"라고 답할 것이다. 전문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전문가가 되기까지 초보자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다. 물이 부족해서 혹은 과해서, 햇볕을 못 봐서, 통풍이 안 돼서 등 이유도 다양하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배우는 수밖에 없다. 잎이 왜 누렇게지는지, 언제 어떻게 분갈이를 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는 조금만 품 들이면 금세 찾을 수 있다. 풀 죽었다고 풀 죽지 말고 계속 내공을 쌓아가면 된다.



Question 2

화분에 벌레가 생기면 어쩌죠?

‘흙 속에 벌레가 살진 않을까?’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으레 걱정하는 부분일 터.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흙은 살균한 것이라 안심해도 된다. 다만 반려식물이 병충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발견 즉시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다. 농약 대신 마요네즈 희석액을 만들어 쓰는 방법도 있다. 벌레가 생기기 전 미리 달걀 껍데기, 마늘, 커피 찌꺼기 등을 화분에 올려놓기도 한다. 애초에 병충해에 강한 스킨답서스 같은 식물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다.





Question 3

물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며칠 만에 물을 줘야 하나요?"라는 물음엔 정답이 없다. 사람이나 동물도 저마다 생활 습관이 있듯, 식물도 마찬가지다.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이 다르다. 화초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물 주기 3년'이란 말도 있다.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물 주기는 최소 3년을 해 봐야 겨우 감을 익힌다는 소리다. 그러니 더 이상 '식물이랑 안 맞나 봐' 하면서 포기하지 말 것. 별다른 고민 없이 주기적으로 물만 갈아 주면 되는 수경 재배도 추천한다.



Question 4

반려동물과 함께 키워도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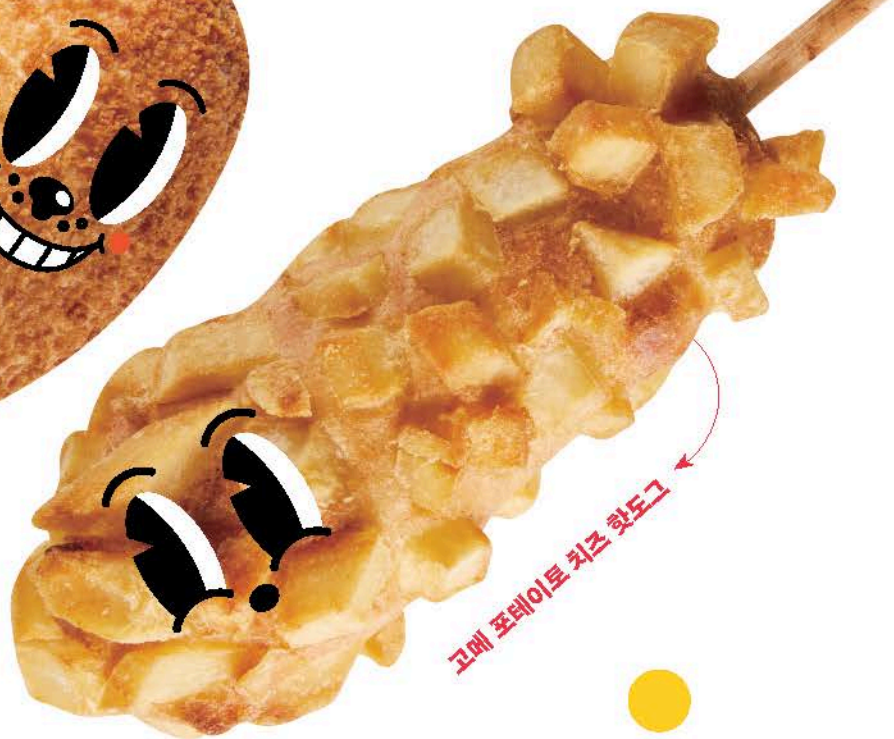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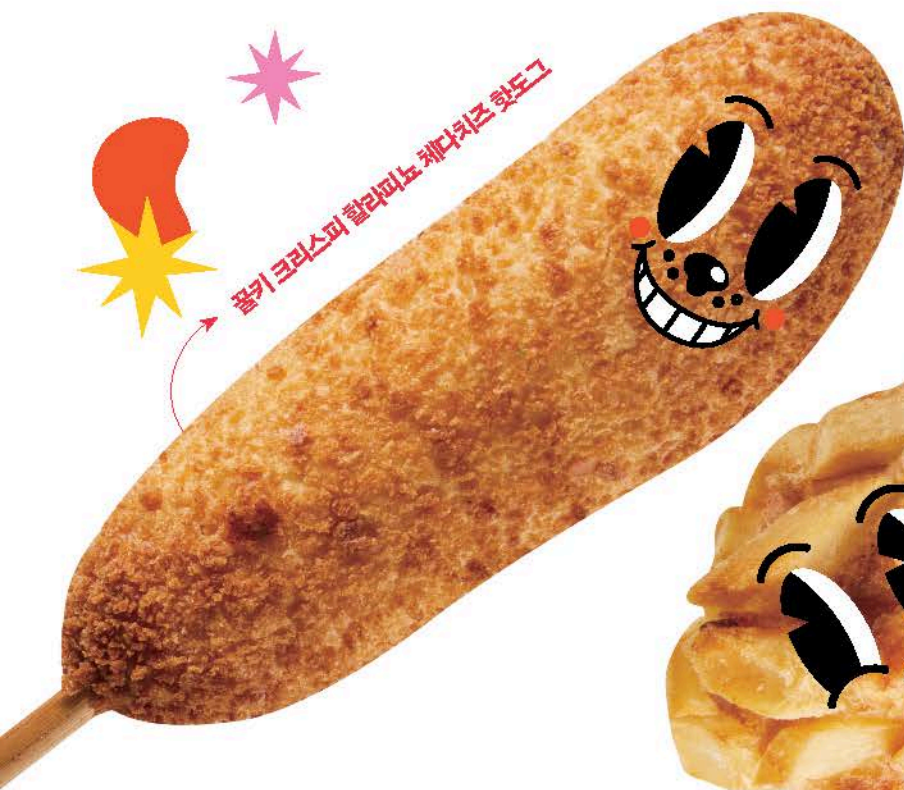
몇 해 전, 기본 전환 차 톨립 한 다발을 샀다가 반려동물이 급성 신부전증을 알게 된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산에서 버섯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위험한 식물이 존재한다. 산세비에리아, 알로에, 담쟁이덩굴, 수선화 등이 그렇다. 흔하게 키우는 친숙한 식물이 동물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지녔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식물이라도 동물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화분 주위를 맴돌며 식물뿐 아니라 흙, 돌멩이까지 맛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Question 5

'곰손'도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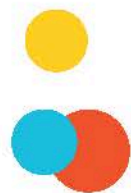
가수 악뮤가 2019년 발표한 노래 '작별 인사'에는 "떠날 때 창틀에 화분이 비었길래 뒤뜰의 꽃을 옮겨 담았어요. 제라늄꽃을"이라는 가사가 나온다. 노랫말 속 제라늄꽃은 지금도 만개했을 것이다.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데다 사시사철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이 외에 베고니아, 아프리카 바이올렛, 덴드론, 체리세이지 등도 연중 꽃을 피워 삭막한 실내를 화사하게 밝힌다. 꽃집 앞에 늘어선 화분이 탐날 땐 주인에게 말을 건네 보자. 키우기 쉬우면서 꽃은 자주, 또 많이 피는 품종을 알려달라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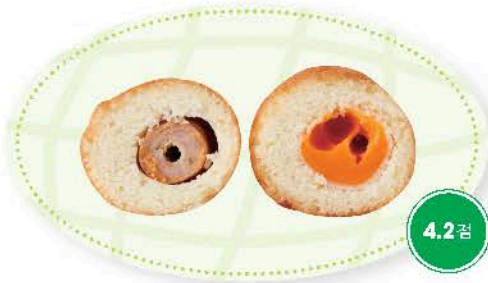


내게 핫한 그대 핫도그

식욕도 꽃처럼 만개하는 5월, 에디터가 재미 발랄한 핫도그를 맛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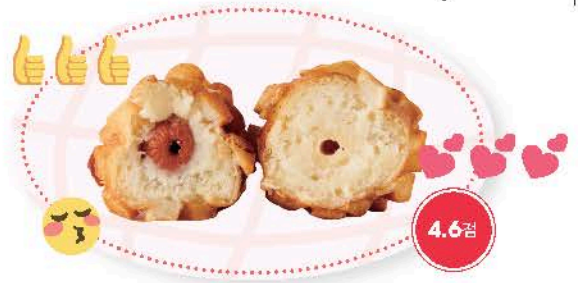
정리. 이내경 사진. 이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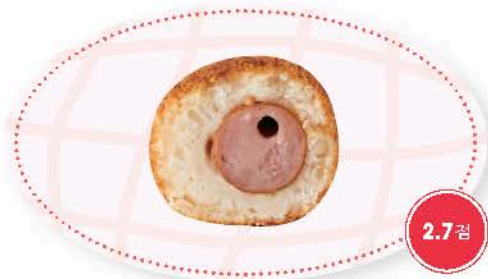
(주)오델 | 풀키 크리스피 할라피노 체다치즈 핫도그

김현정 '한 입 먹으면 소시지가 국을 아닌가요? 절반쯤이 체다치즈 구간인데 언제 소시지가 나오나 기다렸다. 체다치즈랑 핫도그 빵은 안 어울리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 / 김규보 인류의 화성 진출을 시도 중인 우주 탐사 분야와 핫도그업계의 발전 속도는 대등하다는 사실을, 청양고추를 가미한 이 핫도그로 예시해 보겠다. ★★☆☆ / 이내경 이제야 알았네요~ 210만 명이 따르는 유튜브 풀키 님을 이 핫도그를 개발한 당신은 혹시 천재? ★★☆☆ / 진주영 체다치즈로 속을 채운 핫도그는 처음 본다. 할라피노와 청양고추가 들어간 소시지도 색다른 조합이다. 근데 왜 이제야 나타났나요? ★★☆☆ / 표다정 제목을 '정말 맛있는 핫도그'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체다치즈와 할라피노가 들어간 소시지를 곁들인. ★★☆☆



CJ제일제당 | 고메 포테이토 치즈 핫도그

김현정 모차렐라 치즈랑 핫도그 빵은 어울리는구나 깨달았다. 이런 조합을 찾아낸 분이 왜 감자는 덕지덕지 붙여 놔을까. 역시 사람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 ★★☆☆ / 김규보 화성행 우주선에서 음식 하나만 가지고 튕겨 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감자와 소시지가 아무지게 어울린 이 핫도그를 선택하겠다. ★★☆☆ / 이내경 감동받았잖아요. 진짜 감자튀김이 핫도그에 박혀 있어서~ 어떻게 이런 핫도그를 만들 생각을 했죠? 당신도 천재? ★★☆☆ / 진주영 감자를 튀겼다? 맛있음. 치즈가 쪽쪽 들어난다? 맛있음. 소시지가 뜨겁다? 맛있음. 그래서 제 점수는요. ★★☆☆ / 표다정 310 킬로칼로리... 칼로리는 열량 단위가 아니고 맛의 단위라고 했다. 걱정은 먹고 난 후 내가하는 것으로! 미안해~ ★★☆☆



심플리룩X크라제 | 달콤연유 크리스피 핫도그

김현정 연유 맛이 나는 핫도그를 어떻게 먹지?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연유 맛이 안 나서... ★★☆☆ / 김규보 화성에 도착한 인류는 가장 먼저 달콤연유 크리스피 핫도그 제조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끼니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 / 이내경 바쁜 마감이라 핫도그로 끼니를 때울 생각에 꺼냈는데요, 컵라면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작기 있기 없기! 달콤한 것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맛보다야박할 정도로 작은 크기에 맘 상했어요ㅠ ★★☆☆ / 진주영 연유 반죽이 입안을 달콤하게 해주리라 믿었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다. 연유가 어디로 왜 사라졌는지 그 연유가 궁금하다. ★★☆☆ / 표다정 제가 어렸을 땐 핫도그가 300원이었어요(큰 건 500원). 딱 그 가격의 맛. 추억을 소환하는 맛. ★



오뚜기 | 바켓도그

김현정 열량 폭탄... 크기도 무시무시하고 열량은 520킬로칼로리, 나트륨 하루 기준치의 50퍼센트니 이게 머선 일이고? 그 와중에 바게트는 부드러네요. ★★☆☆ / 김규보 화성은 모래 폭풍이 대단한 행성이다. 지구에선 삼겹살로, 화성에선 쥬이 대단한 스모크 소시지와 칠리소스로 식도를 씻으면 된다. ★★☆☆ / 이내경 포장지 비주얼 보고 우아~ 하다가 실물을 보고 살짝, 실망해도 한 입 맛보고 끄덕였죠. 역시 오뚜기! ★★☆☆ / 진주영 없던 함수도 불러일으키는 익숙한 미국의 맛. 자꾸만 생각나서 몇 개 주문했다. 약간 과장하자면 성조기에 그려진 별 개수=내 점수♥ ★★☆☆ / 표다정 "어, 맛있다." 최준처럼 '준머든' 핫도그다. 핫도그 소시지에서 육즙이 팍팍 터지는 것똥기클라스. "그마음 변치 않기로 약속~" ★★☆☆

베이비당근

귀엽고 깜찍한 베이비당근 먹고 싶죠? 당근!

글. 표다정 사진. 이철

시장에서 베이비당근을 넉넉하게 구매했다. 일반 당근보다 단맛이 강해 생으로도 먹는 베이비당근의 절반을 껍질과 잔뿌리를 살려 씻은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두었다. 당근을 오래 보관하려면 생장점이 있는 밑동을 자르자. 이렇게 하면 냉장고에서 썩은 당근을 볼 일 없을 것이다. 나머지 베이비당근 절반으로 라페를 만들었다. 라페는 프랑스식 당근 샐러드. 채 썬 당근을 소금에 10분 정도 절였다가 올리브유, 홀그레인 머스터드, 레몬즙, 후춧가루, 설탕과 버무려 하루 숙성하면 완성이다. 샌드위치에 듬뿍 넣어 즐기거나 스테이크, 생선구이에 곁들여도 좋다. ■

강진



고려청자 화병과
수국의
향기로운 만남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 수국

문경



대한민국
전통 증류주를
대표하는 명주

오미나라 '고운달'

고창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쌀

한결영농조합법인 '고창 친환경 쌀'

여주

여주쌀과 토종 밀로
빚은 고품격
프리미엄 전통주



추연당 전통주



고운달

문경 특산물인 오미자로 만든 와인을 증류하고 숙성시킨 브랜드. 대한민국 전통 증류주를 대표하는 명주로 주목받고 있다. 알코올 농도가 52퍼센트로 높은 편이지만, 오미자의 다양한 향이 오롯이 담겨 있고 목 넘김이 부드럽다. 단독으로 마시면 제맛을 느낄 수 있으며, 한우나 정갈한 한식과 페어링해도 좋다.

문의 054-572-0601, www.omynara.com



청자골 강진 수국&청자 화병 선물 세트

전남 화훼 산업 1번지 강진군에서 생산한 청자골 수국과 강진군 대표 유물 고려청자 화병이 만났다.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색이 선명하고 화려한 '청자골 강진 수국'과 고려청자의 요지 강진 대구도요지에서 도공이 직접 빚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제 '청자 화병'의 조화가 눈길을 끈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강진수국작약)', blog.naver.com/yskim0757



백년향

100퍼센트 여주쌀로 100일간 정성을 다해 빚은 손막걸리다. 여주쌀과 밀 누룩, 지하 200미터 옥 암반층 지하수로 다섯 번 빚고 40일간 저온 발효와 60일간 저온 숙성을 거친다. 첨가물을 넣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 단맛이 적고 새콤하면서 도깁끔한 감칠맛이 일품이다. 생선구이, 전, 나물같은 한식과 잘 어울린다.

문의 070-8850-5312



높을고창 고창 친환경 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쌀밥용 최고 품종인 '수광벼'에서 얻은 쌀이다. 밥맛을 결정하는 아밀로오스와 단백질 함량이 낮아 찰기가 있으며 밥맛도 우수하다. 친환경 인증은 물론 특품 출하 등급, 단백질 함량 6퍼센트 우수 품질 기준, 전용 저온 창고 보관, 도정 일주일 이내 유통 등으로 최상의 신선도를 자랑한다.

문의 063-561-4176, www.noblegoch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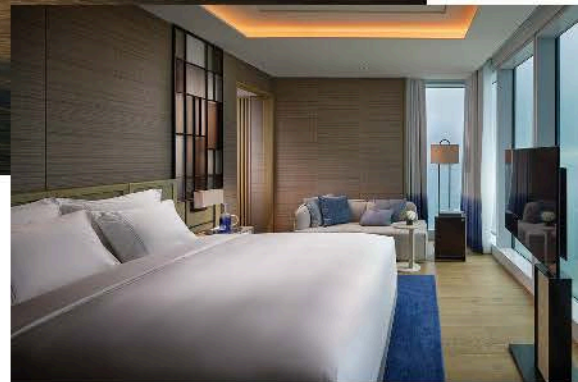


롯데호텔 허니문 패키지 예약하면 달콤함이 '더블'

올해 국내 롯데호텔 투숙 기간만큼 내년 해외 롯데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는 '트래블 포 투모로우' 패키지가 출시됐다.

롯데호텔이 허니문의 행복을 두 배로 만드는 신개념 패키지 '트래블 포 투모로우(Travel for Tomorrow)'를 선보인다. 올해 국내 롯데호텔에서 허니문을 보내면 내년에 사용하는 해외 롯데호텔 숙박권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며 코로나19 종식의 실마리가 보이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글로벌 호텔 그룹으로서 롯데호텔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패키지 하나면 허니문과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을 더 즐겁고 보다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다.

'트래블 포 투모로우'의 국내 허니문 프로그램은 10월 31일까지 시그니엘 서울·부산, 롯데호텔 서울·월드·제주 등 5개 호텔에서 운영한다. 이 가운데 시그니엘 서울은 호텔 크레딧 10만 원을 제공하는 스위트룸 상품이 눈에 띈다. 이를 이상 숙박할 경우 롤스로이스 픽업과 센딩 서비스 특전을 누리는 색다른 '허니문 플렉스'를 경험한다. 해운대의 그림 같은 오션 뷰가 펼쳐지는 시그니엘 부산에서는 와인, 디저트를 포함한 객실 내 웰컴 아메니티와 두 사람만을 위한 레터링 케이크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롯데호텔 서울의 레스토랑 '르살롱' 2인 이용 혜택, 오후 3시 레이트 체크아웃의 여유로움도 놓치기 아깝다. 서울 시내와 김포국제공항 혹은 인천국제공항 사이 픽업과 센딩 서비스도 한 차례 무료로 이용한다. 롯데호텔 월드는 클럽 라운지 2인 이용 혜택과 모엣 상동 임페리얼 샴페인 룸서비스로 허니문의 단꿈을 선사한다. 그런가 하면



롯데호텔 제주는 오래 머무르는 허니문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마련했다. 석식과 스파, 야외 체험 프로그램 등 연박 혜택이 풍성하고 롯데몰 김포공항점 무료 주차권도 준비해 제주 장기 숙박을 고려한다면 최적의 선택이다. 모든 패키지의 가격은 1박 기준 44만 원부터 시작하며 세금과 봉사료는 별도다.

2022년에는 롯데호텔 광·블라디보스토크·하노이·호찌민과 롯데아라리조트 중 한 곳을 골라 보자. 국내 패키지를 이용한 달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을 포함한 총 3개월의 유효기간에 국내 롯데호텔 투숙 일수만큼 숙박할 수 있다. 다섯 군데 호텔 모두 비행 시간이 짧은 인기 여행지에 위치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롯데호텔은 "해외 허니문이 제한된 신혼부부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글로벌 호텔 그룹의 강점을 살려 패키지를 출시했다"라며 "향후 여행 재개 상황에 따라 무료 숙박 특전 대상 해외 호텔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예약 및 문의 롯데호텔 공식 홈페이지 www.lottehotel.com

이게 팬티라고?

걸림없이, 내피부 같은 편안함
땀, 습기로 부터 자유!
입어라, 넣어라 그러면 기록 할 것이다!

 LASHEVAN

남자의 적정온도 33.3℃

고환은 정자와 남자의 일평생을 지배하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33.3도일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며 온도가 1도만 상승해도 그 기능이 둔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쉬반으로 음낭의 열 발산 면적을 넓혀 고환의 온도를 낮추어 활기찬 삶을 영위하세요!"



남성 사타구니 땀, 습진 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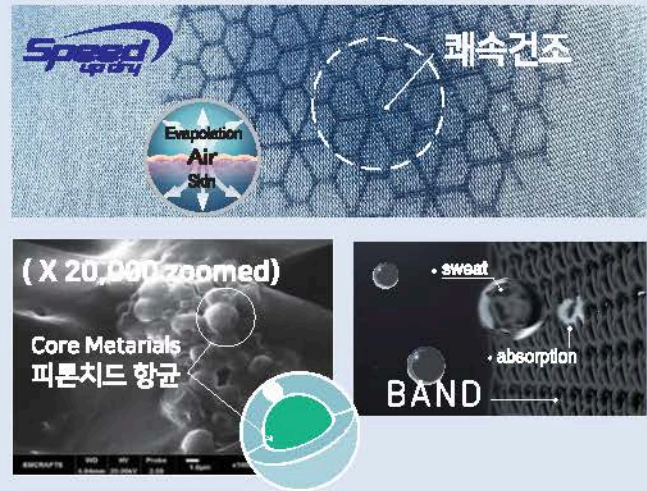
고환의 특성상 음낭은 남성의 몸에서 가장 많은 땀을 흘리는 부분이며, 음낭이 음경, 허벅지와 밀착되면 분비물이 부패되고 악취와 세균이 발생해 피부병을 유발합니다.

남성의 불결은 남성에게 아무 증상이 없거나, 심할 경우 사타구니 습진 정도가 되지만, **여성에게는 부인병(자궁암, 질염, 요도염, 방광염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팬티만 잘 입어도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삼각, 사각 속옷의 경우 음경이 안쪽 허벅지와 별도 공간 없이 한데 모여 있도록 된 구조라 일상생활 중 서로 밀착해 맞부딪치면서 금세 땀이 차지만 특허받은 기능성 팬티 라쉬반은 천연섬유 텐셀(Tencel)의 뛰어난 통기성과 땀 등 분비물 흡수력으로 박테리아가 증식하는 환경을 원천 차단할 뿐 아니라, **나노특허기술 천연항균 다이닐 가공으로 30회 세탁 이후에도 99.9% 항균이 유지되며, 나노캡슐 속에 피톤치드, 천연 와사비 오일을 넣어 하루 종일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발수 가공(스피드업드라이)을 통해 땀을 쾌속건조 시켜주어 쾌적함**을 드립니다. 천연섬유 텐셀은 표면이 울이나 면보다 매끈해 착용감이 비단처럼 부드럽고 쾌적하며, 음낭과 같은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데다 자연으로 생분해 되어 환경오염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천연항균 99.9% 피톤치드, 쾌속건조 특허기술

"라쉬반으로 늘 쾌적하고 청결하게, 사랑하는 여성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의 시작, 분리에서부터

일반 남성 속옷은 활동 시 좌우 쏠림 현상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라쉬반은 자연스러운 분리 구조를 만드는 H라인 실리콘 밴드가 있어 손을 쓰지 않아도 자동분리가 됩니다. 근육 분석을 통해 만든 13조각으로 재단된 원단은 조각마다 과학적인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라쉬반의 핵심 기술입니다.

"라쉬반으로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음낭을 보호해 늘 젊은 건강을 유지하세요!"





이게 **팬티** 라고?



#걸림없이, 내피부 같은 편안함.
#땀, 습기로 부터 자유!
#입어라, 넣어라 그러면 기록 할 것이다!

www.lashevan.com 1544-7888



성훈, 가족도, 친구도 라쉬반해

세계최초 H라인 분리기술로 투름을 구성,
상하좌우는 물론, 앞뒤까지 입체적으로 받쳐 줍니다.

부모는 위대했다 자식 사랑이 낳은 브랜드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것,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 아빠가 고안한 브랜드를 소개한다.

글. 이내경



하어스 아기세탁세제 세트

처음 아이를 품에 안은 날, 행여나 해로운 물질을 옮길까 제대로 만지지 못한 그 순간을 기억하며 개발한 세제다. 콩, 울무, 자몽·녹차 추출물 등 천연 유래 성분을 발효해 만든 아기세탁세제와 합성 계면활성제 대신 식물성 원료를 넣은 섬유유연제는 세탁 후 옷에 유해 물질이 남진 않을지 염려할 필요 없다. 하어스 070-4241-5580

1



실리콘 빠네 흠착식판

아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작하겠다는 결심으로 딸 부친 집 아빠가 브랜드를 론칭했다. 차돌 추출물인 실리콘을 사용해 인체에 무해한 공법으로 자체 생산한다. 촉감이 말랑말랑한 '실리콘 빠네 흠착식판'은 식탁에 딱 붙어 아이가 숟가락질이 서툴러도 그릇을 엮을 일이 적다. KC마크를 받아 더욱 신뢰가 간다. 홈스파파 070-4942-0892

2



자외선 차단&진정 세트

영·유아 피부는 온도, 습도, 외부 자극에 민감한 데다 피부 온도가 성인보다 높아 환절기나 무더운 여름에는 더욱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농부 아빠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모링가에서 추출한 성분을 함유한 페르미어파파의 선크림과 세럼은 피부 면역력을 강화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아이 살결을 보드랍고 건강하게 가꾼다. 페르미어파파 070-7807-7800



발효 곡물당으로 만든 과일잼

극심한 아토피피부염에 시달리는 딸 대신 아프고 싶던 아빠는 아이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고자 전남 고흥으로 귀촌해 농부가 된다. 그리고 그때 마음으로 개발한 천연 곡물당을 국내산 재료에 섞어 잼을 만든다. 딸기잼, 블루베리잼, 무화과잼 등 5종을 미국, 네덜란드 등에 수출한다. 아빠의 사랑이 세계를 감동시킨다. 아빠랑 070-7764-0864

코니아기띠 씬머

아기를 편안하게 하면서도 보호자의 스타일도 고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제작했다. 기능도 뛰어나, 목 디스크로 고생하던 대표가 아기 안을 때 부담 없도록 디자인했다. 새로 출시한 '코니아기띠 씬머'는 클스판 에어 메시 원단을 사용해 여름에도 쾌적하다. 슬링 아기띠 브랜드 중 최초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브랜드. (주)코니바이엘린 070-8615-5900



리크레웅-오일파스텔

두 엄마가 아들딸이 살아갈 세상이 아름답길 바라는 마음에서 생활 속 버려지는 것의 쓸모를 다시 찾았다. '리크레웅-오일파스텔'은 헌 크레파스를 모아 새로운 쓰임을 붙여넣은 상품. 파란 리크레웅 하나가 보랏빛, 푸른빛 등 다채로운 파란 빛깔로 종이를 물들인다. 여러 색이 혼합되어 나오는 컨페티 스타일로, 아이가 그리는 세상을 풍성하게 한다. 썸킷 010-4865-8164



똑똑한 소비 현명한 여행

완연한 봄날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을 들고
부산을 알뜰하게 여행했다.

글·사진. 이내경





해운대블루라인파크

📍 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116
☎ 051-701-5548



이번 여행 메이트는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이다. 미리 신청해 발급받은 동백전을 스마트폰 앱 '부산 동백전'에 등록하고 금액을 충전해 두면 사용하기 편리하다. 무엇보다 큰 혜택은 사용 금액의 6~10퍼센트가 돌아오는 캐시백. 부산 바다걸을 달리는 해변열차 '해운대블루라인파크'의 미포정거장이 첫 번째 목적지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동백전으로 자유이용권을 구매한다. 자유이용권은 미포정거장에서 송정정거장을 잇는 약 4.8킬로미터 구간의 모든 정류장에서 탈 기회를 부여한다. 정거장 사이사이의 달맞이터널, 다릿돌전망대 등에 정차해 둘러보기 좋다.

HAEUNDAE BLUELINE PARK



뮤제드블루 갤러리&카페

청사포정거장의 볼거리다. 갤러리 전시실 세 개 중 미켈란젤로 룸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거장 미켈란젤로가 남긴 '메디치 마돈나'를 18세기 말에 석고 캐스팅한 작품을, 피카소 룸에서는 거장의 마지막 뮤즈인 프랑수아 질로를 그린 '쉬곤 스타일로 머리를 묶은 여인의 초상' 등 진귀한 원작을 만난다. 입장료가 있지만 자유이용권 소지자는 '프패'.



달맞이터널

터널 외벽에 알록달록 무지갯빛을 입혀 포토 존으로 만들어 놓았다. 미포정거장과 청사포정거장을 오가는 스카이캡슐이 다가오는 순간에 사진 한 장 찰칵. 4인승 스카이캡슐은 함께한 이와의 단란한 시간을 선물한다. 달맞이고개 앞바다는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경계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일본 쓰시마섬이 뚜렷하게 보인다.



송정정거장

기차역 앞이 바다다. 송정해변을 따라 특색 있는 카페와 맛집이 뽕뽕하다. 동백전을 쓸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 백화점, 대형 마트, 유흥주점, 부산에 본사 주소를 두지 않은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신용카드 가맹점, IC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상점 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로 이곳에서 플렉스~





깡깡이예술마을

📍 부산시 영도구 대평북로 36
☎ 051-418-3336



한국 근대 조선소의 역사를 처음으로 써 내려간 영도 대평동에 예술이 깃들었다. 수리조선소 여덟 곳과 260여 개에 달하는 공업사, 선박 부품업체가 밀집한 거리 곳곳에 이 마을 주민을,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아파트 외벽을 가득 메운 초상화의 주인공은 과거 녹슨 배의 표면을 벗기기 위해 깡깡깡 고된 망치질을 하던 깡깡이 아지매. 작품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가슴을 찡하게 한다. 깡깡 망치질 소리에서 유래해 '깡깡이예술마을'이란 별칭을 얻은 이곳은 현재도 활발한 산업 현장이라 주말에 진행되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둘러보길 추천한다.

KANGKANGEE ARTS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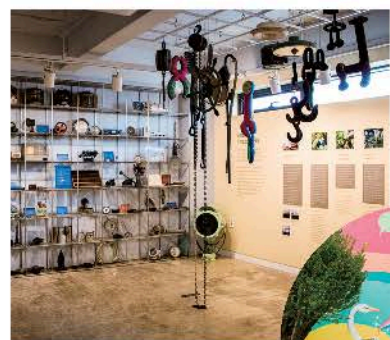


깡깡이 마을공작소

선박 부품을 조립하는 수리조선소가 자리한 마을의 특성을 살려 체험 키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색다른 체험에 다시 동백전을 꺼내 든다. 시계 키트에 도전했다. 선박, 조타기, 닻 같은 모양의 부품을 볼트와 너트로 원하는 대로 조이며 조립하고 색도 칠해 본다. 내 손으로 처음 만든 시계가 푹푹딱딱 움직인다. 체험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

깡깡이 안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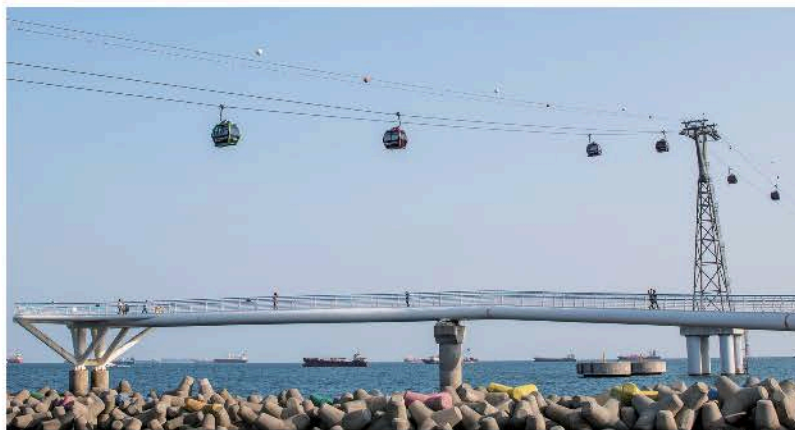
정기 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장소다. 깡깡이유람선을 타고 출발해 자갈치시장, 대평동 수리조선소 일대 등을 둘러보는 해상 투어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마을을 탐방하는 마을 투어를 운영한다. 당일 현장에서 접수한 후 동백전으로 결제하니 비용의 10퍼센트가 바로 내 캐시에 적립됐다. 모으는 재미가 기대 이상이다.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대평동의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공간이다. 2층 마을박물관에는 깡깡이 아지매가 배를 수리하던 망치 등 연장과 물품을 진열하고, 마을 발자취를 이해하기 쉽게 사진과 글로 정리해 100여 년간 쌓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1층은 주민이 관리하는 마을다방. 음료 판매는 물론, 강연 등 행사를 진행하는 다목적 공간이다.





송도해상케이블카

📍 부산시 서구 송도해변로 171
☎ 051-247-9900

마지막 여행지 '송도해상케이블카'로 향한다. 갯감이에술마을에서 택시를 타고 남항대교를 건너가니 금세다. 택시에서도 동백전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돈을 쓸 때마다 캐시가 쌓여 돈이 모이는 소리가 들린다. 바다 위 케이블카가 줄지어 상공을 가른다. 송도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과 서쪽 암남공원을 연결하는 1.62킬로미터 구간을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크루즈와 일반 에어크루즈가 오간다. 크리스탈크루즈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 부산 푸른 바다가 발아래에서 찰랑댄다. 황홀한 경험이다.

BUSAN AIR CRUISE

어린 왕자 테마파크

생텍쥐페리의 동화에서 영감을 받아 어린 왕자를 주인공으로 공원을 조성했다. 소행성 B-612를 떠난 유아기의 어린 왕자가 비행사, 여우와 친구를 만나며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어린 시절 그는 마냥 천진난만하다. 타임캡슐을 저장하는 박스를 나선형으로 쌓은 작품 '모멘트 캡슐' 위에 앉아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듯하다.



다이노 어드벤처

광장으로 나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난다. 그동안 모은 캐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핫도그는 사랑이니까 주문, 떡볶이는 핫도그랑 잘 어울리니까 또 주문. 어느새 양손 가득이다. 공짜로 먹어서 더 행복하다. 산책로가 잘 조성된 암남공원으로 가는 길, 숲에서 티라노사우루스, 트라케라톱스 등 공룡이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

동백전 사용 TIP

동백전은 소상공인, 시민, 전통시장이 함께[동(同)] 소비의 선순환을 이루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100[백]가지 행복을 준다는 의미로 만든 화폐[전(錢)]다. 사용자가 누리는 혜택도 쓸 줄이다. 부산시를 상징하는 동백이 모두를 웃게 하고,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STEP 1 등록하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부산 동백전' 앱을 다운로드한 후 카드를 발급받는다. 수령한 카드를 앱에 등록하고 계좌를 연결해 충전한다. 소득 공제를 신청하면 연말 정산 시 받는 혜택도 늘어난다.

STEP 2 사용하기

부산 지역 내 신용카드, IC 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대부분 상점에서 동백전을 받는다. 카드 대신 동백전을 건네 편리한 데다 해당 월에 지급하는 캐시백 요율에 따라 결제 즉시 캐시가 누적되니 쓰는 즐거움이 배가된다. 단,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유흥 주점, 부산에 본사 주소지를 두지 않은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STEP 3 캐시 활용하기

'부산 동백전' 앱을 켜고 '내 캐시'에서 '내 캐시 자동 사용'을 활성화한다. 결제할 때 적립된 캐시가 우선 지출된다. 하루 여행하는 동안 쌓은 캐시는 무려 1만 3000원. 서울에 올라오기 전 기념품 숍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가 흘러나오는 부산 등대 굿즈 하나를 구매했다. 알찬 여행, 훌륭한 소비다.

문의 www.dong100.or.kr



집념, 사명감, 열정으로 이어 나갈 100년

매 순간 진심을 다해 가업에 매진하는 전남 순천·구례의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소개한다.

글. 진주영 사진. 신규철



죽호바람

전통 부채에 담긴 3대의 바람



과거 부채 장인들은 겨울이면 부챗살 재료인 지리산 대나무를 구하러 구례에 머물곤 했다. 1대 김복렬 선생은 이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내어 주다가 부챗살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들 김창균 선생이 이어받은 가업은 1980년대 한 해에 50만 개의 부챗살을 유통할 정도로 번창했다. 하나, 1990년대 초반 플라스틱 부채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2002년, 손자 김주용 대표가 암담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힘을 보탰다.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청년은 부챗살뿐 아니라 전통 부채를 생산하기로 마음 먹었다. 부지런히 독학해 기술을 익혔다. 그 결과, 대나무 재배부터 부채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보기 드문 공방으로 성장했다.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한 함죽선을 비롯해 치마 모양을 본뜬 브랜드 '치마바람' 등 다양한 수제 부채를 아우른다. 80년간 3대의 독심으로 만든 부채가 오늘날 여행자의 맘을 식힌다.

📍 구례군 광의면 하대2길 24

☎ 010-4615-3269

💡 치마바람 부채 1만 2000원



인근 추천 여행지 구례 섬진강 대나무 숲길

섬진강을 앞에 두고서 약 500미터 길이의 대나무 숲길을 거닌다. 하늘 높이 뻗은 수백 그루의 대나무가 아늑한 아지트를 만들었다. 시원한 바람을 머금은 대나무가 부챗살로 변해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감동이 밀려온다. 나무 사이로 드러나는 강변 풍경도 훌륭하다. 숲길 끄트머리에 차나무를 심어 향기를 더했다.





온정떡집

타고난 손맛을 자랑하는 떡 명장의 집



국밥으로 유명한 순천 웃장에 갔다면 '온정떡집'에 들러야 한다. 59년간 한자리를 지킨 이곳은 오랜 전통만큼 환상적인 떡 맛을 자랑한다. 어머니 정신옥 씨는 김용섭 대표가 두 살이던 1962년부터 이곳에서 전통 방식으로 떡을 빚었다. 수십 년 동안 어머니를 보필한 김 대표는 어머니처럼 자신의 손맛 역시 남다르다고 자부한다. 그도 그럴 것이, 2014년 경기도 전국 떡 명장·양주 주인 선발대회에서 떡 명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떡 명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타고난 손맛에 평생 떡 하나만 바라본 성실함의 결실이다. 이른 새벽, 온정떡집에 불이 켜지면 그의 손에서 20여 종의 떡이 탄생한다. 순천, 강진, 해남 등 전라도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해 안심하고 먹는다. 썩이 제철인 봄엔 절편이, 무더운 여름엔 촉촉한 증편이 여행자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흑미영양떡과 단호박찰떡도 인기다.

📍 순천시 북문길 11

☎ 061-752-7354

▲ 절편(소) 2000원 흑미영양떡(대) 5000원



인근 추천 여행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 구경하고서 떡 사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온정떡집 대표가 인종한 주변 여행지다. 92만 제곱미터(약 28만 평) 규모의 너른 부지에 57개 테마의 다양한 정원이 펼쳐진다. 한국, 영국, 스페인 등 세계의 정원을 한곳에서 감상하는 호사를 누린다. 갯지렁이 다니는 길, 흑두루미 미로 정원 등 흥미로운 정원도 눈길을 끈다.





풍미통닭

30년간 한결같은 마늘통닭



압력 튀김기에 수제 튀김옷 입힌 통닭을 노릇노릇하게 튀겨 낸다. 여기에 국산 생마늘을 살짝 다져 버무리면 알싸한 맛의 마늘통닭이 완성된다. 손으로 죽죽 찢은 통닭 한 점을 마늘 기름장에 찍은 후 주먹밥과 김치를 더해 맛본다. 1984년 개업한 '풍미통닭'의 시그니처 메뉴인 마늘통닭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다. 1990년대 초반, 창업자 강영애 씨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한 뒤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 2016년 아들 박세근 대표는 어머니가 30년 넘게 일군 터전을 물려받아 새롭게 단장했다. 아담한 매장 규모를 조금이나마 넓히고 포장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는 한편, 어머니로부터 맛의 비결을 전수해 단골에게 인정받았다. 2대째 변치 않는 맛에 현자인 이 사람을 등백 보내니 여행자의 방문도 차츰 늘어 간다. 박 대표의 목표처럼 순천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않았다.

📍 순천시 성남뒷길 3

☎ 061-744-7041

🍗 마늘통닭 1만 9000원 시골통닭 1만 7000원



경덕농수산

세게로 뻗어 나가는 2대의 힘



순천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전시장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난다. 고종배, 이양례 부부는 1979년부터 전국 시장을 돌며 생계를 이었다. 1998년 이곳에 터를 잡고, 남편인 고종배 씨가 산지를 돌아다니며 엄선한 제품을 소분 포장해 부담 없는 가격에 선보여 왔다. 여수 멸치, 울릉도 오징어, 완도 미역 등 상품의 품질을 알아본 이가 계속 찾아온다. 2000년대 중반, 아들 고경덕 대표가 합류한 이후엔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섰다. 2018년 미국 수출을 시작했고, 지난해엔 약 1650제곱미터(500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다. '바다로운'이라는 자체 브랜드 론칭했다. 순천을 넘어 전국은 물론, 세계 곳곳의 소비자 곁으로 다가가는 중이다. 일흔이 가까운 나이에도 산지를 오가는 부모님이 '경덕농수산'을 지키고, 아들은 더 넓은 세계를 개척해 나간다. 서로를 향한 끈끈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순천시 역전장1길 53

☎ 061-743-1794

🍷 반건조 오징어(10미) 4만 9000원 남해안 국물멸치 1만 6000원



백년가게·백년소공인과 함께하는 순천·구례 여행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성과 지속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공식 인증하고 있습니다. 백년가게는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과 소·중기업, 백년소공인은 숙련 기술 기반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입니다.

국민추천제 안내

국민추천제는 국민 누구나 우수한 소상공인 성공 모델을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후보로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추천 대상 백년가게업력 20년 이상, 백년소공인업력 15년 이상
추천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접속 후 '정책 국민추천' 선택



*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추천 링크로 이동합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직접 추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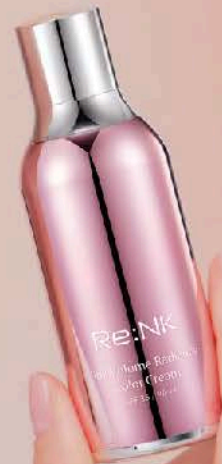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 궁금하다면?



NAVER

백년가게

포털 사이트에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검색해 보세요.



속부터 차오르는 핑크빛 볼륨 광채

리엔케이 핑크 볼륨 래디언스 컬러 크림

Re:NK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코로나19로 두 차례 연기한 광주비엔날레가 4월 1일, 드디어 막을 올렸다.
전 세계인을 위한 문화 예술 플랫폼이 자리한 광주에 다녀왔다.

글·사진, 표다정



제13회 광주비엔날레 13th GWANGJU BIENNALE 2021.04.01.-0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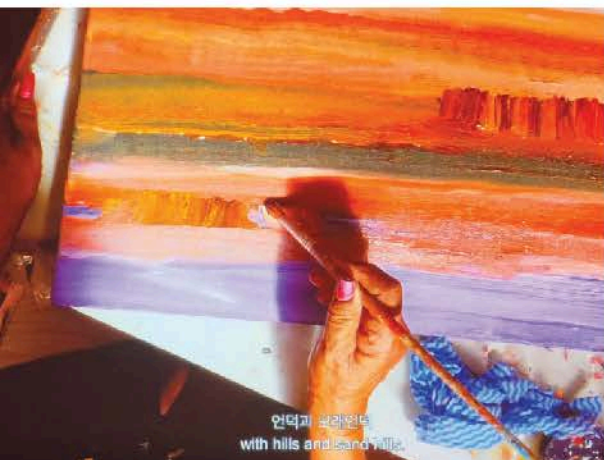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Minds Rising, Spirits Tuning

광주송정역에 내려 광주비엔날레전시관으로 향하는 길. 거리에 설치한 비엔날레 배너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지난해 9월 개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일정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두 차례 연기한 끝에 따스한 봄날 희망을 안고 막을 올렸다. 오래 기다린 만큼 전시 기간 39일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올해 슬로건은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공동 예술감독 데프네 아야스와 나타샤진발라의 기획 아래 세계 43개국 69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극장,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 광주 곳곳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전시 기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전시장을 포함한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를 오가는 비엔날레 시티투어버스로 운행한다. 메인 공간인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은 '함께 떠오르기' '산, 들, 강과의 동류의식' '욕망 어린 신체, 분과적 경계 너머' '돌연변이에 관해' '행동하는 모계 문화'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함께 떠오르기'가 펼쳐지는 갤러리1은 광주비엔날레 역사상 최초로 대중에게 무료 개방했다. 일단 입장해 감상하다가 작품을 더 보고 싶으면 티켓을 끊는 방식은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전시장 안에서 티켓을 끊다니, 색다른 경험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한국인 이민자, 흑인, 트랜스젠더, 이성애자가 뒤섞인 196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을 촬영한 바지날 데이비스의 사진과 선조의 땅에서 내쫓긴 원주민의 지속적인 투쟁을 기록한 안젤라 멜리토폴로스의 다큐멘터리 영상, 테오 에쉐투가 기획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소장품이 된 두 무용수의 몸짓 등을 통해 사회 이슈를 다각도로 드러낸다.

노르웨이의 댄스 연구가 시셀 톨라스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 설치한 작품도 놓쳐선 안 된다. 제주도민 양신하가 70년간 쓴 일기를 읽고 향을 제조해 화강암에 입혔는데, 37편의 일기와 화강암을 서로 매칭했다. 책장에서 일기를 읽은 후, 그 날짜가 적힌 화강암을 찾아 향을 맡는 경험이 독특하다. 1962년 10월 1일은 양신하가 입대 후 2년 만에 집에 가던 날. 발일을 제쳐 둘 만큼 들뜬 어머니와 아들의 기억에서 달콤한 향이 난다. 2018년 선보인 프로젝트 광주비엔날레커미션(GB커미션)을 올해도 진행한다. 9명의 작가가 광주의 지난날을 되짚고 민주·인권·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설치미술 작품을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공간 곳곳에 전시했다. 메이투데이(Maytoday)에서는 광주 출신이거나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가 회화·사진·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1980년 5월 18일을 기억한다.

긴 기다림 끝에 39일간의 여정에 오른 광주비엔날레가 예술 향연을 펼친다. 그 광경을 기록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이 아닐까. 작품으로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몸소 깨달으며 1980년 5월 18일을 잊지 않는 것. 광주비엔날레는 5월 9일까지 계속된다. ■



- | | | |
|---|---|---|
| ① | ② | ③ |
| ⑤ | ⑥ | ⑦ |

- ① 파트리샤 도밍게스 '어머니 드론'
- ② 펠케 헤레그라벤 '그녀의 가슴속에 있는 세 스무 마리'
- ③ 바지날 데이비스 '클럽 서커'
- ④ 안젤라 멜리토폴로스 '모계 B, 파트 2: 지구를 드러내다'
- ⑤ 과즈데 일킨 '뿌리가 말하는 사이 깊어지는 균열'
- ⑥ 테오 에쉐투 '고스트댄스'
- ⑦ 피플스 아카이브 오브 루팔 인디아-피에이말라이
'맷돌노래 프로젝트'

“동시대 선두에 있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행복을 광주에서 누렸다.”



문선희

‘물고, 묻지 못한 이야기-목소리’

구 국군광주병원 2층으로 올라가는 보행로가 데이지로 가득하다. 광주 출신 문선희 작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유년 시절을 보낸 80명의 기억을 수집하고, 그 기억을 현재 광주에 사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녹음했다. “신기해서 몰래 구경했어요.” “벼락 같은 소리였어요, 탕! 탕! 탕!” “엄마가 걱정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네 아빠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천진함과 슬픔이 공존하는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데이지의 꽃말은 희망과 평화.



마이크 벨슨

‘거울의 울림(장소의 맹점, 다른 이를 위한 표식)’

2018년 광주비엔날레에 참석한 영국 설치작가 마이크 벨슨의 작품을 다시 마주한다. 작가는 구 국군광주병원의 거울을 떼어 병원 건너 교회 공중에 설치했다. 이 행위는 이전 거처를 벗어나듯, 과거에서 탈출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함을 의미한다. “미용 봉사자님 수고하십니다. 입원 환자 두발을 정리할 때 이 정도 길이로 잘라 주십시오. 간호부장 올림”이라는 문구에서 상처 앞에서도 군대 규정이 먼저인 과거를 엿본다.



시오타 치하루

‘신의 언어’

구 국군광주병원 내 성당이 검은 실과 성경의 낱장으로 뒤덮였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묶고 검은 실로 복잡하게 엮어 설치 작업을 해 온 시오타 치하루 작가의 작품이다. 신성한 공간에서 병이 낫기를, 생명을 부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주한 작가는 성경을 소재로 택했다. 작품은 공간에 남겨진 신성함과 격동의 1980년대를 살아 온 사람들의 존재를 투영하는 역할을 한다. 성당 느낌을 살리기 위해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덧붙였다.



임민욱

‘채의진과 천 개의 지팡이’

고 채의진 선생은 1949년 경북 문경 석달마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 생존자로 총에 맞은 천형과 사촌 동생 밑에 깔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나무를 깎아 지팡이를 만들어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운동에 앞장선 그가 생을 마감한 뒤 작업장 천장에 놓인 그의 지팡이는 잊히는 듯했다. 이를 임민욱 작가가 병원으로 가져와 빛이 잘 드는 창가 아래 전시했다. 수술대에 놓인 지팡이에서 구 광주국군병원을 거쳐간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혈당에도 밸런스가 필요해!

식후 혈당 상승, 걱정되신다구요?

하이생 혈당밸런스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리식이섬유에

꼼꼼하게 선별한 6가지 부원료를 담아

발효 공정을 거쳐 만들었습니다.



하루 1포,



간편하게 **혈당의 밸런스**를 유지해보세요!





REFLECTIONS IN MOTION

전시

현대모터스튜디오가 서울, 경기도 고양과 하남, 중국 베이징,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어 부산 수영구의 복합 문화 공간 F1963에 여섯 번째 공간을 오픈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수단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으로'라는 비전 아래 스튜디오가 위치한 도시의 특성에 맞춘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준비한 전시는 '크리에이티브 월'과 '디자인 전시'로 나뉜다. 크리에이티브 월은 현대자동차가 생각하는 자동차 비전을 공유하는 전시로, 영국 아트 그룹 UE(Universal Everything)의 작품 네 점을 선보인다. 그중 '위 아 올 유니크(We are all unique)'는 형형색색 도형이 하나의 무리를 만드는 영상이다. 서로 다른 개인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고, 그런 다양성을 기반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을 시각화했다. '프로페시(Prophecy)'는 미래 전기차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콘셉트 카드. 지속 가능한 기술을 추구하는 현대자동차의 철학을 반영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장소**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문의** 1899-6611



<리플렉션즈 인 모션>



부산진구에서 찾은 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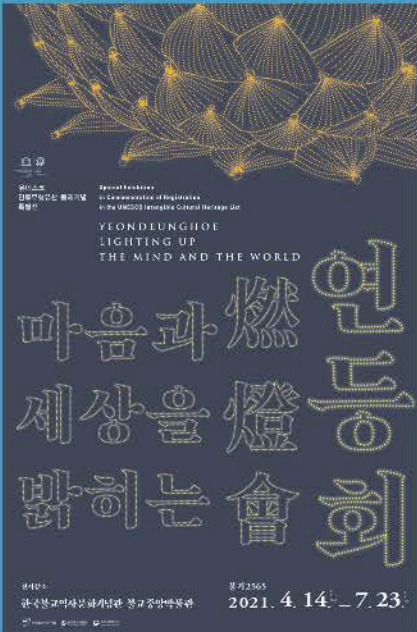
“사고 치야 청춘이다!” 드라마 <쌈, 마이웨이> 촬영지 ‘호천마을’에서 내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밝힌다. 드라마틱한 마을 풍경과 함께라면 언제나 해피 엔딩.



호천마을

도심 속 멋과 예술,
역사 흔적을 찾아 떠나는
부산진구 힐링 여행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04.14~07.23

전시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총 3부로 구성해 연등회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한다. 1전시실에서는 연등 행렬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데 전시관 내에 진열한 실제 연등 덕분에 행렬 속에 있는 느낌을 준다. 2전시실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 온 연등회의 역사와 문화를 문헌과 회화로 이해하고, 3전시실에서는 최근 연등회 사진을 관람한다. 올해 연등회는 연등 행렬 대신 봉축점등식,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등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소 서울 불교중앙박물관

문의 02-2011-1960, 1747



제15회 드라이브스루 금사참외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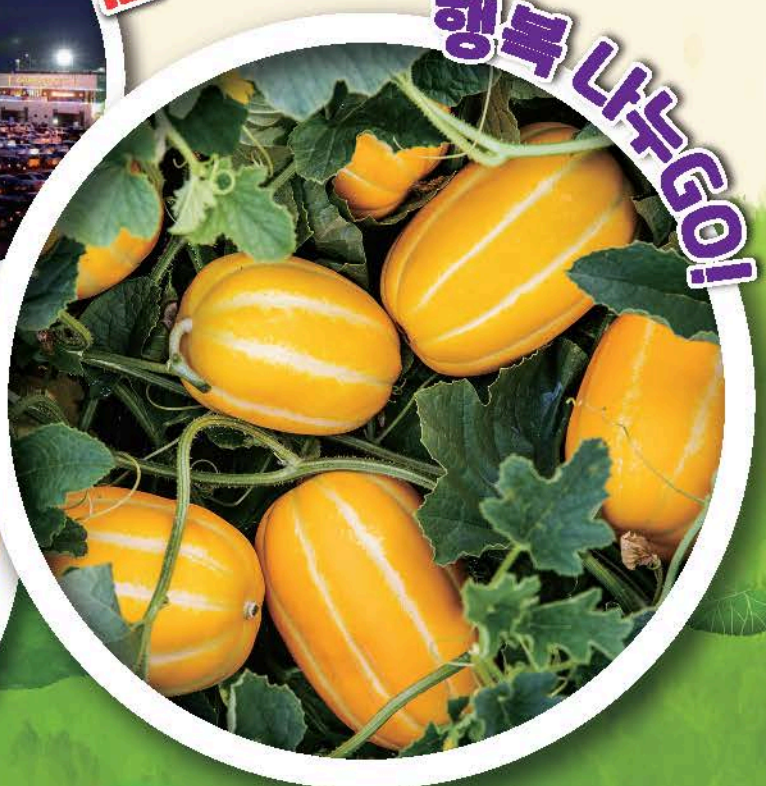
일자 : 2021. 5. 28.(금) ~ 5. 30.(일)(3일간)

장소 : 금사게이트볼장(근린공원 맞은편)

금빛사랑 채우GO!



행복 나누GO!





서울연극제

현대 우리 이야기를 담아온 서울연극제가 돌아왔다. 올해는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편견과 비판의 이야기를 담은 여덟편을 준비했다. 최치언 연출가의 <다시 여름>은 성장기 고등학교 핸드볼 선수의 고통과 외로움을 다룬다. 실제 핸드볼 선수가 출연해 더욱 생생하다. **장소** 서울 대학교 예술극장 외 문의 02-765-7500

04.30~05.30



전시
국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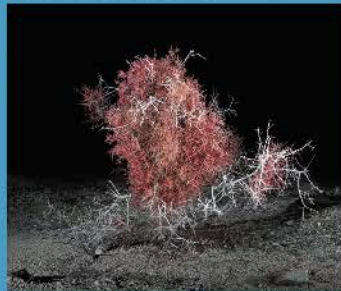
<사물의 뒷모습>

조각가 안규철의 개인전이다. 전시 제목은 인생의 중반기를 지난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는 뒷모습과 관심 없던 구두솔 같은 사물의 이면을 들여다본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진 찰나를 포착한 '사소한 사건'을 비롯해 작품 40여 점을 모았다. **장소** 국제갤러리 부산 문의 051-758-2239

05.13~07.04



전시



마이클 랜드그렌 Michael Lundgren

<GEOMANCY>

세계의 사막을 탐험하며 발견한 자연과 인간의 흔적을 통해 자연과 인류의 관계를 탐구하는 사진가 마이클 랜드그렌의 작품을 한국에서 감상한다. 최근작 '저먼시(Geomancy)' 시리즈 39점을 공개한다. 'geomancy'는 흙점이라는 뜻. 작가의 독창적 시선으로 사막의 모습을 마주한다. **장소** 서울 한미미술관 문의 02-418-1315

04.17~06.26



축제



춘천마임축제

춘천을 대표하는 문화 축제가 돌아왔다. 마임으로 지구의 몸을 관찰하는 '주제 공연', 공지천에서 펼쳐지는 '워킹 스루: 걷다 보는 마임'을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백양리역 주변을 거닐며 몸의 소리를 채집하는 휴식형 프로그램 '사운드 프로젝트'도 놓치지 말 것. **장소** 춘천시 일대 문의 033-242-0585

05.23~29



전시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EBS 만화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가 클래식 음악과 만난다. 배우와 바이올리니스트 등으로 구성된 도레미 탐험대장이 관객과 사파리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다. 재미있는 놀이로 음악 이론을 배우는 시간. 로비에는 클래식 악기를 직접 만져 보고 연주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장소** 아트센터인천 문의 032-453-7700

05.05

로컬여행센터

부산 Big3

봄 기차 여행

〈KTX매거진〉과 여행사 마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획 특가상품으로 상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정 특별가
399,000원~
(2021. 05. 01~06. 30)

Big 1 KTX 서울-부산

2인 왕복 티켓

서울 외 지역에서 출발 가능합니다(전화 문의).

Big 3 부산 대표 즐길 거리



씨라이프 부산아쿠아리움 할인 입장

그레이너스 상어, 가오리와 같은 신비한 바다 생물과 펭귄 먹이주기 쇼, 총 길이 80미터 해저터널로 풍부한 해저 세계 체험을 제공한다.



해운대 요트 투어(선택)

1시간가량 고급 요트 위에서 경험하는 부산 바다의 햇살, 석양과 야경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Big 2 부산 대표 호텔 택1



웨스틴 조선 부산

해운대와 동백공원 입구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편안한 헤븐리 베드와 해변 도시 전망 객실이 특징이다.



롯데호텔 부산

부산의 화려한 시티뷰와 최신 리뉴얼 서비스로 명성을 유지하는 5성급 호텔이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의 '꿀잠꿀맛 패키지'를 판매한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1981년 개관한 해운대 랜드마크 호텔로 고급 레스토랑 조식 뷔페 등 수준 높은 다이닝과 휴식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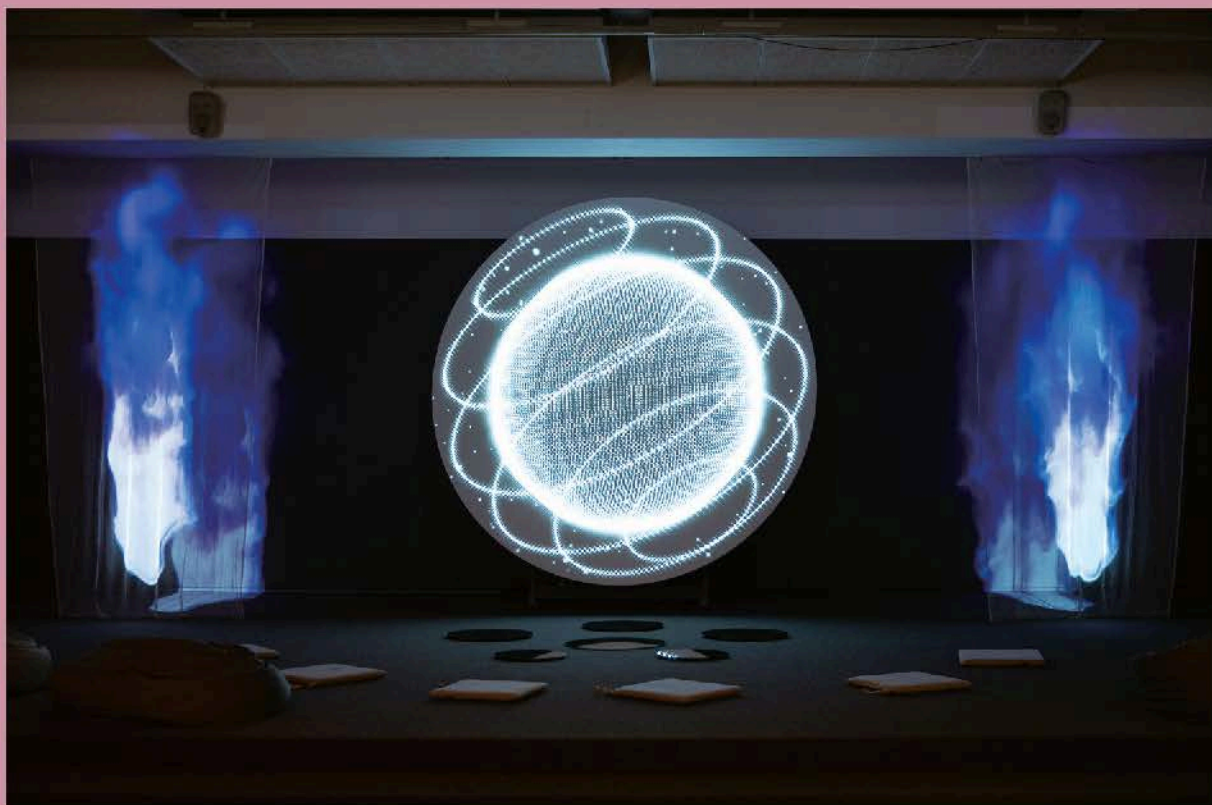
- 포함사항: 서울-부산 KTX 2인 왕복 티켓(총 4매), 호텔 1박, 렌터카 할인 쿠폰, 부산아쿠아리움 할인 입장, 요트 투어(선택)
- 불포함사항: 여행자보험, 식비, 개인 경비

여행 시 유의 사항

- ※ 개인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 ※ 출발일, 기차 시간, 일정 변경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마실 특가약관'이 적용됩니다.
- ※ 일차 운행 조정, 일차 잔여 좌석 사정으로 일차편(시간·탑승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로컬여행센터 바로가기





‘달의 정원’, 미디어 아트(프로젝션 매핑, 사운드, 오디오 비주얼, 설치), 가변 크기, 2021

‘달의 정원’

비디오로즈(강현우·허철주)

글. 김규보



‘사주보차’,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복합 재료, 200×200×250cm, 2021

문명은 발전과 번영의 혜택을 앞세워 파괴를 합리화했다. 자연이 오염되고 생태계는 무너졌어도 영속을 꿈꾸는 인류는 인간 외의 생명을 성취 수단으로 삼았다. 문명이 쌓아 올린 욕망이 그리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달의 정원’은 사제가 달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초환 의식’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다. 피사체에 영상을 투영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법으로 달의 여러 모습을 표현했다. 지구에 살던 옛사람이 발전과 번영을 염원하며 기도한 대상 중 하나인 달이 다른 아닌 지구와 중력으로 연결되듯, 모든 생명 또한 연결됐음을 보여 준다. 그렇게 변화하는 달을 지켜보며 우리는 생명을 배제한 영속의 꿈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처럼 일민미술관에서 열리는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전은 우주론적 세계관과 기도, 샤머니즘을 내세워 ‘운명’의 의미를 고찰한다. 여기서 나아가 기도와 샤머니즘이 건네는 ‘상담’을 통해 내면을 알아가는 여정도 선사한다. 여섯 점의 관객 참여 작품이 놓인 2전시실 ‘상담’ 중 송지형의 ‘사주보차’에서는 작가의 사주 풀이를 들으면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4

* 서울 일민미술관,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전, 7월 11일까지. 문의 02-2020-2050

travel

068

어제의수고가 선물한오늘의 낭만, 부산진구

114

TV 프로그램 <기차로> 춘천 동행 취재기

126

봄의 중심에서, 경북 김천



마음으로 걷는 순렛길

조선 시대 천주교 박해를 피해 모인
신자들이 용기와 술을 구워 오가던
경북 칠곡 한티가는길과 한티순교성지에는
지금 눈부신 연초록빛 잔치가 한창이다.

글. 이영린 사진. 신규철 취재 협조. 칠곡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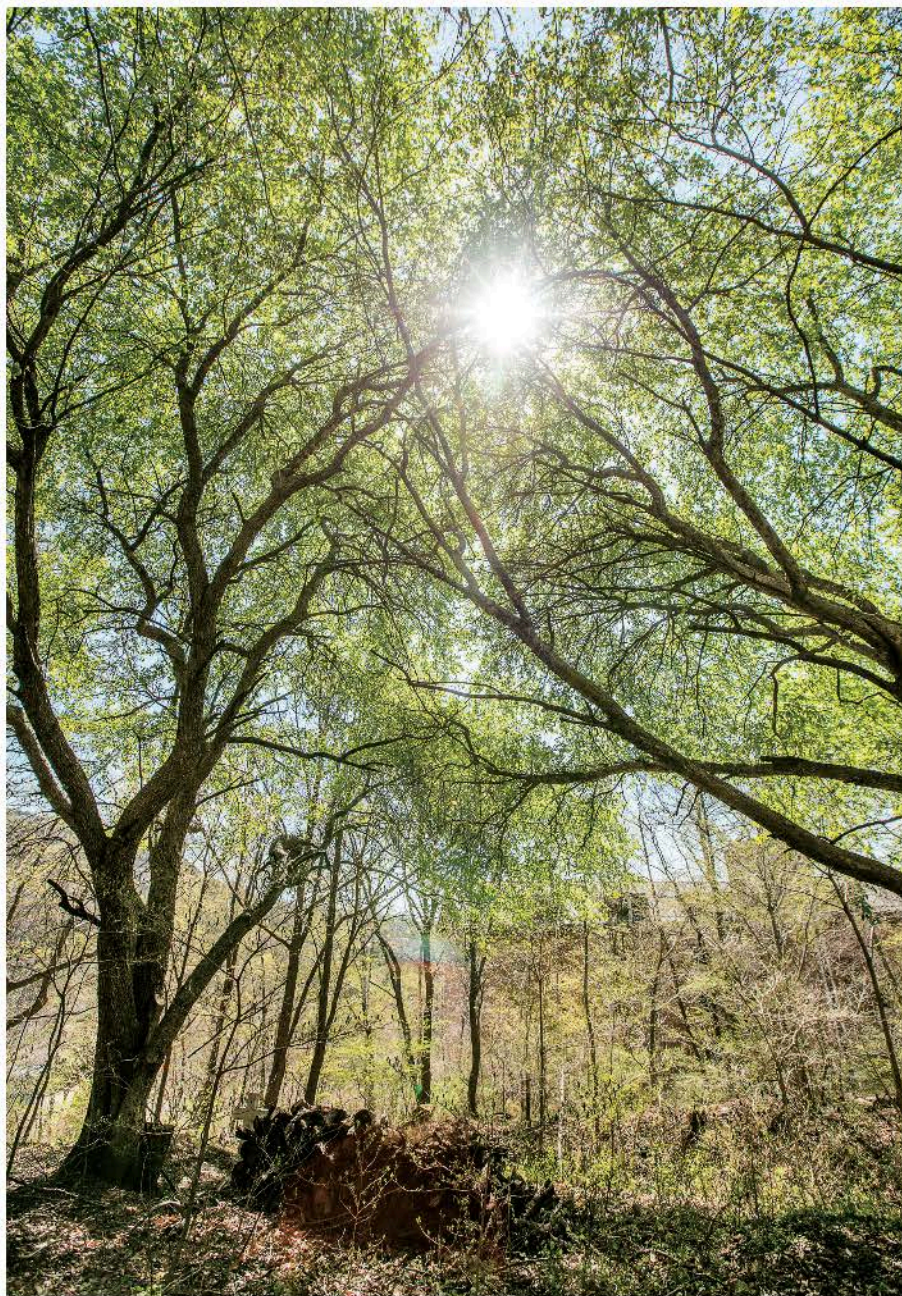


칠곡
한티가는길



한티가는길을 걷다 보면 발걸음을 옮기는 보폭만큼 생각의 속도가 느려진다. 몸은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바람결에 스치는 들꽃의 향기와 연녹색 풍경이 마음의 행로를 여러 번 가로막는다. 걷는 동안 알 수 없는 슬픔과 환희가 교차한다. 청량한 새 소리, 우거진 나무 그늘과 함께 200여 년간 변함없이 있어 줘서 더없이 고마운 순렛길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칠곡 한타가는길
5구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어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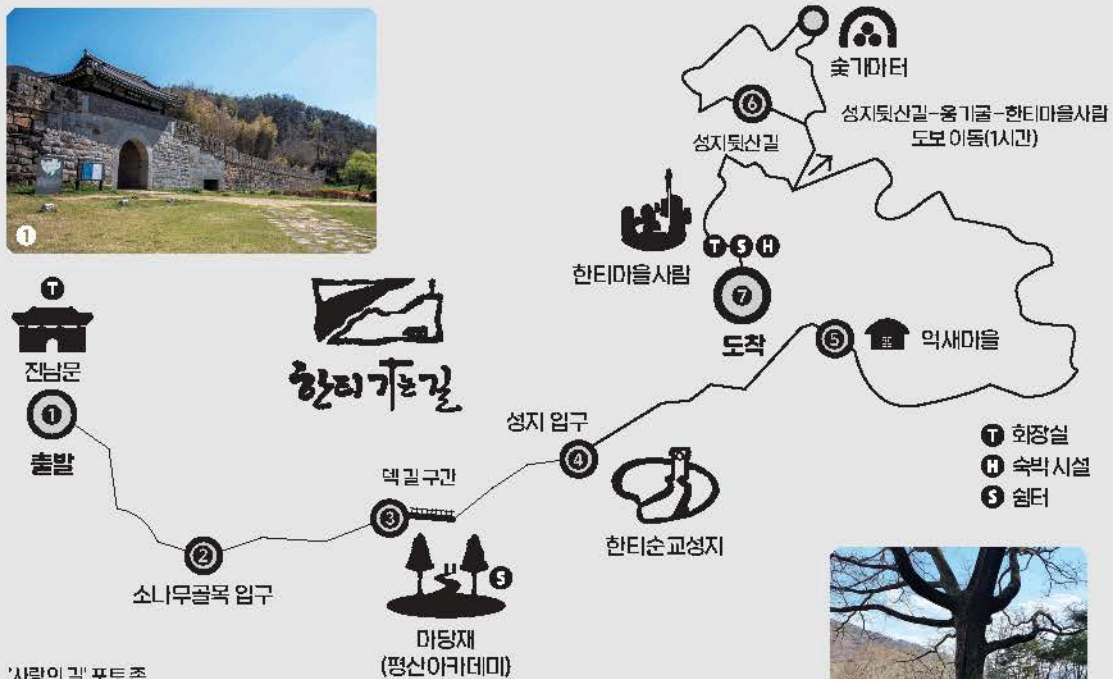
가산산성 진남문을 출발해 '사랑의 길'을 따라 고개 너머 산보통이를 돌면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나지막한 십자가 표비가 길동무를 자처한다. 침묵으로 지금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고, 자연이 건네는 평화와 안식을 넉넉히 나눠 주기에 더욱 귀한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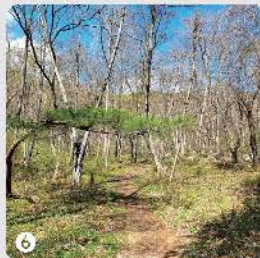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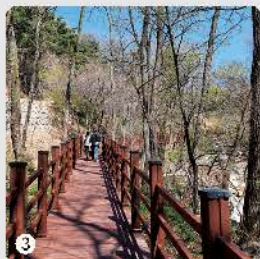
한티가는길 5구간, 사랑의 길

한티가는길은 칠곡군 가실성당에서 한티순교성지까지 총 45.6킬로미터를 걷는 천주교 순례길이다. '그대 어디로가는가'라는 슬로건처럼, 여행자는 이 길을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비우고 뉘우친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리라 다짐한다. 한티가는길 마지막 5구간 사랑의 길은 1868년 순교한 천주교 신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인적이 드문 산길과 숲, 덕 길로 조성했다. 한티순교성지, 역사마을 초가에서는 치유의 시간과 산촌 문화 체험을 선물한다. 5월 21일에는 2박 3일간 다섯 구간을 함께 걷는 중주형 순례를 진행한다.

문의 (사)한티가는길위원회 054-975-5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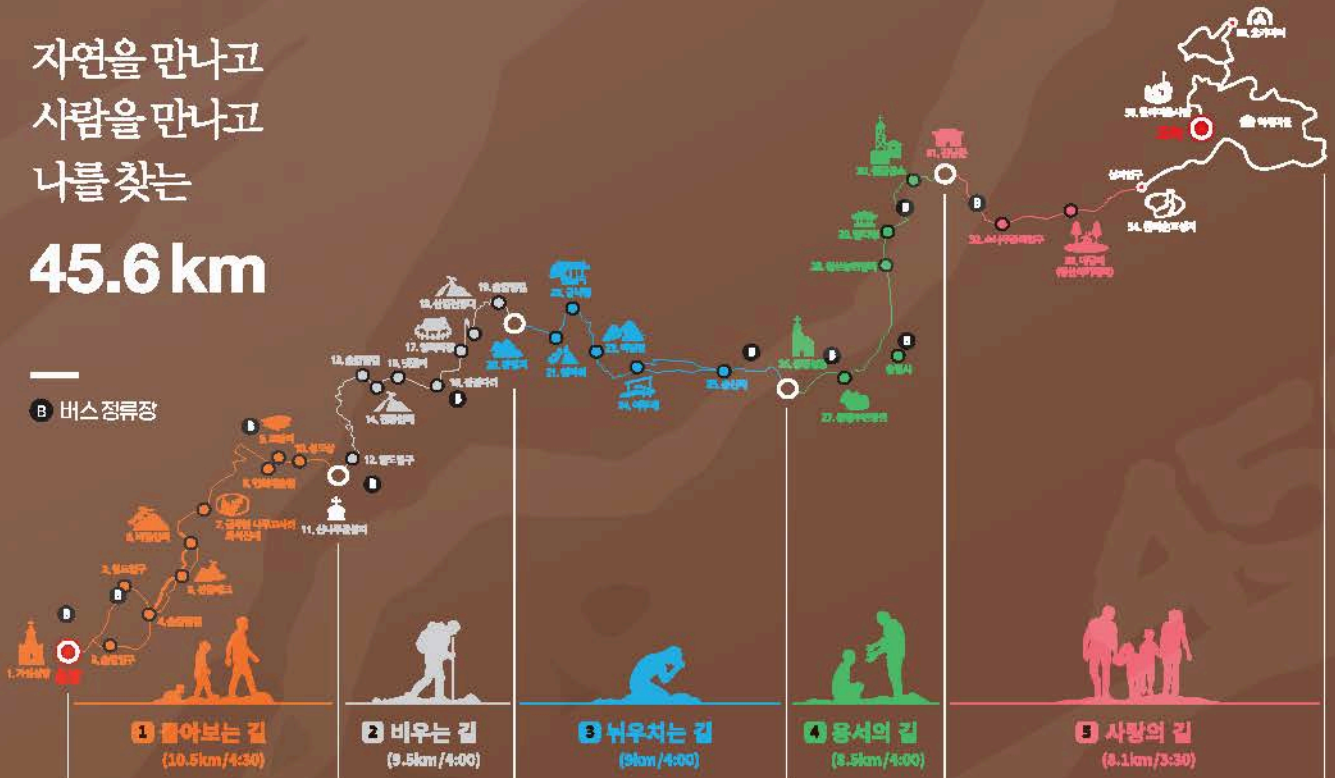
'사랑의 길' 포토 존



가실에서 - 한티까지 한티가는길

자연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나를 찾는

45.6 km



칠곡 한티가는길 프로그램 안내

구분	한티가는길 순례	왜관수도원과 함께하는 한티가는길	한티가는길 청춘 투어
내용	연중 무휴 순례 안내 제공 종주형, 테마형, 정기형, 음악순례 등 다양한 종류의 숙박 순례 프로그램 (당일, 1박 2일, 2박 3일)	왜관수도원에서 숙박과 수도 생활을 체험하면서 한티가는길을 걷는 프로그램 (1박 2일, 2박 3일)	청춘들이 모여 함께 길을 걷고, 여행하고,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으로 구성된 투어 프로그램
주관	한티순교성지 (www.hanti.or.kr)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www.osb.kr)	매일신문 (인스타그램 : 한티가는길(@han_..._ti))
문의	054-975-5151	054-970-2000	053-251-0568

어제의 선물, 오늘의 낭만 부산진구

Huld

STAY

부산전구의 어제와 오늘이 깃든 공원, 마을,
거리를 걸으며 그 안에 숨은 낭만을 찾았다.

글. 진주영 사진. 신규철



2014년 개장한 부산시민공원은 과거 미군 기지였던 곳이다. 당시 사용관 하사관 숙소, 망루, 나무 전봇대 등이 남아 있다. 문의 051-850-6000

부산진구를 떠올리면 황령산 정상에 올랐던 일이 생각난다. 부산 토박이인 친구와 동행한 곳에서 손에 닿을 듯 가까운 도심 풍경과 마주했다. 땀을 스치던 바람과 눈부신 햇살, 상쾌한 공기가 가슴에 남았다. 몇 해 전, 친구로부터 부산진구 한복판에 부산시민공원이 오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dots(닷)자리 하나 들고 가서 기분 전환하고 왔다는 말에 ‘도심에 좋은 공원이 생겼구나’ 했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 공원을 자유롭게 오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 땅에 스민 애환이 어느 정도인지들.

모두에게 열린 땅, 부산시민공원

2014년 개장한 부산시민공원은 47만 4000제곱미터(14만 3000평) 규모로 한 바퀴 돌아보는 데 1시간 이상 걸린다. 어딜 가든 산이 반기는 도시에서 보기 드문 평지이니 먹을 것이 부족한 옛날엔 더욱 귀한 토지

A few years ago, I heard from a friend living in Busan that Busan Citizens Park had opened in Busanjin-gu District. I simply thought, *A good spot in the heart of the city!* Back then, I did not know how long it took for it to transform into a public space, and how deep its wounds of history were.

Busan Citizens Park, Open to All

Busan Citizens Park, which opened in 2014, covers an area of 474,000 square meters, and takes at least an hour to explore. Given the scarcity of flat land in the mountainous city, it was all the more valuable in the days when people had to endure food shortages. A stream cutting through the land made it ideal for

청량한 기운이 감도는 부산시민공원에 입장하자 봄별을 듬뿍 받은 수목이 정답게 인사를 건넨다.

였을 것이다. 부전천, 전포천 등 하천이 가로질러 농사짓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이토록 비옥한 땅에 그늘이 드리운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다. 일제는 이곳에 경마장을 세웠고, 상황에 따라 임시군속훈련소나 전쟁 물자 야적장으로 활용했다.

광복 이후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1945년 주한 미군 기지사령부, 1948년 유엔 산하 기구가 머물렀고 1950년부터 2006년까지는 주한 미군 부대인 캠프 하야리아가 주둔했다. 혼란한 역사의 발자국이 고스란히 남은 땅은 2014년 부산시민공원이란 이름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은 담장과 철조망에 둘러싸여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 이제는 멀리서도 청량한 기운이 느껴지는 공원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봄별에 반짝이는 수목이 다정히 인사를 건넨다. 그 덕에 다소 긴장한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린다.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원을 구석구석 둘러본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수다 떠는 이들,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 명랑하게 뛰노는 아이들까지 모두에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른다. 그러다 문득, 다리가 아파올 때면 캠프 하야리아의 유류 탱크를 쪼개 만든 벤치에 앉아 보자. 여느 공원과는 다른 이곳만의 풍경이 눈에 펼쳐진다. 부대에서 사용한 나무 전봇대 40여 개를 한데 모아 전시한 '기억의 기둥', 과거 미군 부대 기지였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망루, 1901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 연대기를 기록한 '역사의 길' 등이 이곳의 옛 모습을 조곤조곤 일러 준다.

학교, 병원, 스포츠 시설, 영화관, 식당 등을 두루 갖췄던 캠프 하야리아는 하나의 마을이었다. 부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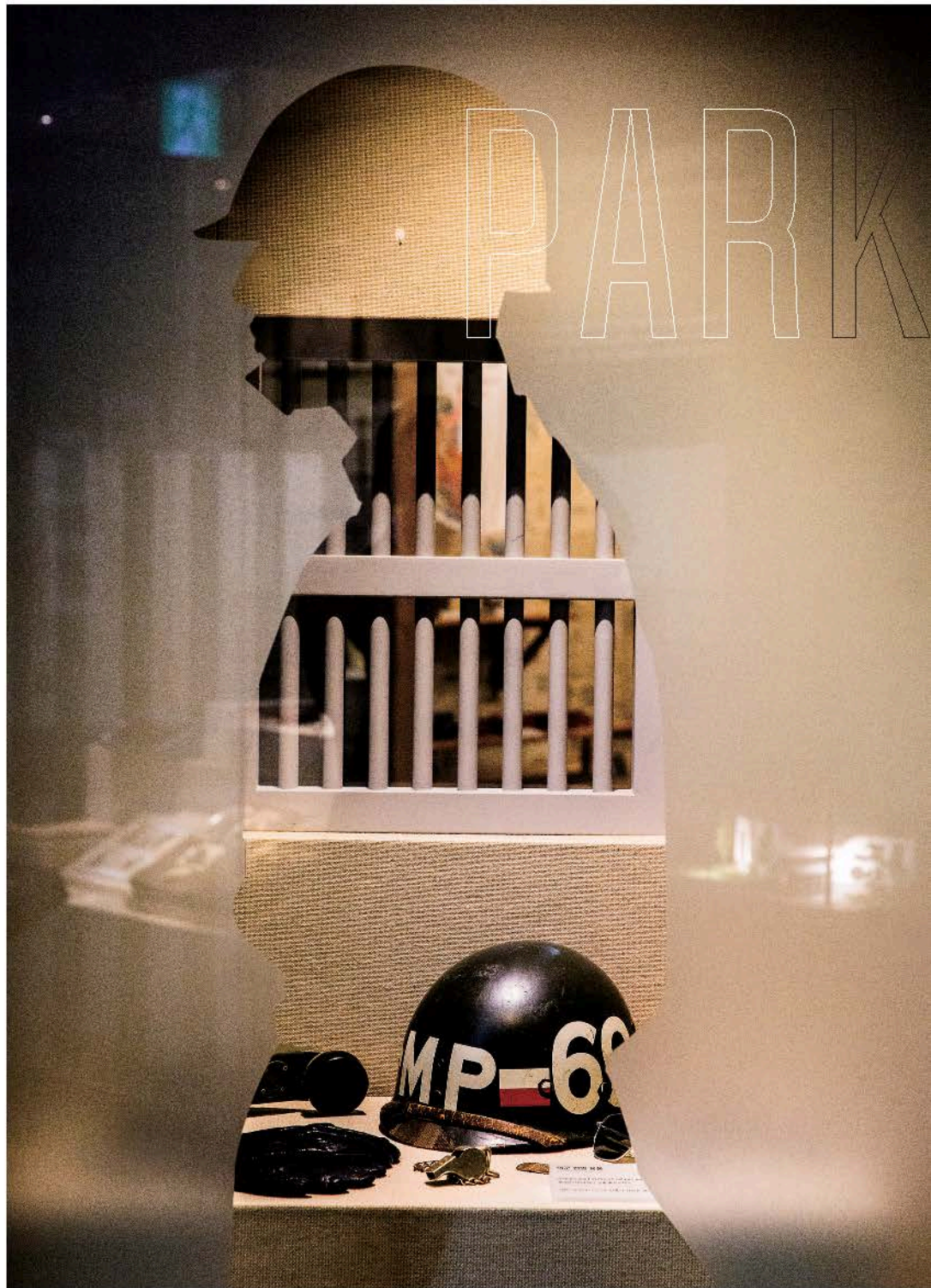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까지
2시간 40여분이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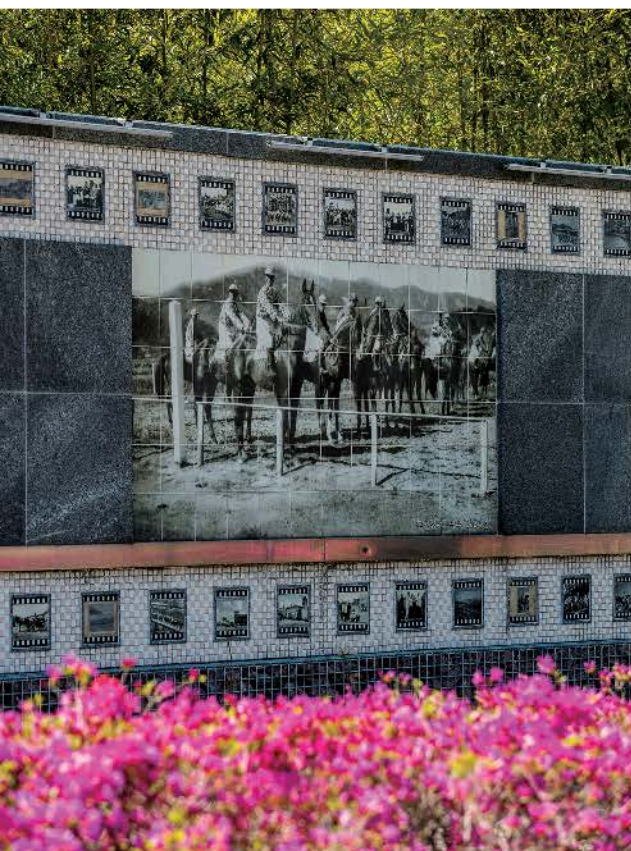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부산시민공원 등
부산진구의 주요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군 기지의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사라진 자리에 부산시민공원이 들어섰다.
당시 생활사를 전시한 역사관이 이 땅의 애환을 전한다.**



farming. However,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e 1920s marked the start of a dark chapter in its history. The site became a horse racing track, and the Imperial Japanese Army used it at times for temporary military training or storage of war reserve stock.

The situation was similar following the liberation of Korea. The site served as a base for the United States Army in 1945, and was later passed to the United Nations in 1948. From 1950 to 2006, it operated as Camp Hialeah under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Finally, in 2014, it opened as Busan Citizens Park as we know it today.

What used to be blocked off to the public by high walls and barbed wire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barrier-free park. With a spring in my steps, I take a good look around. If you need a rest, you can sit on one of the benches made from Camp Hialeah's petrol tanks. The view here is unlike any other park. Memory Pillars features about 40 wooden telephone poles used by the troops, a watchtower reveals its past as a military camp, and the Path of History traces the history of Busan from 1901 to 2014. Camp Hialeah, equipped with schools, hospitals, sports facilities, theaters, and restaurants, was a village in itself. Out of the 338 buildings, 24 were chosen to be preserved based on their historical value. One such building is the Officers' Club, where official events and banquets were held. Built in 1949, it stands today as the History Museum. The non-commissioned officers' quarters is now the Culture and Art Village, and the school for military families is the Citizens House. Part of the old theater was preserved for the outdoor stage called Heritage Theater.

Busan Citizens Park was able to shed its sorrowful past thanks to the people, who held sporadic demonstrations demanding the return of the military site in the late 1980s, and actively led such movements in the 1990s. Even



부산시민공원은 47만 4000제곱미터(14만 3000평) 면적에 다양관 숲길, 광장, 역사관, 어린이놀이 시설 등을 조성해 남녀노소 즐기 좋다.

에는 관사를 포함해 총 338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역사적 가치를 따져 24동만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대표 건물은 장교 연회나 공식 행사를 진행했던 ‘장교클럽’이다. 1949년에 지은 건물로 현재는 이곳에 얹힌 생활사를 전달하는 역사관으로 쓰인다. 이 외에 하사관 숙소는 예술가를 위한 ‘문화예술촌’으로, 미군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전시나 강연 목적의 ‘시민사랑채’로, 그 시절 영화관 일부는 ‘흔적극장’이란 이름의 야외 공연장으로 탈바꿈했다.

수십 년간 잃어버린 땅, 부산시민공원이 그간의 설움을 딛고 일어난 데에는 시민의 공이 컸다. 1980년대 후반 미군 기지 반환을 주장하는 시위가 간헐적으로 열렸고, 1990년대 들어 시민이 주도한 본격적인 운동이 이어졌다. 되찾은 후에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은 당연지사다. 2013년 공원 조성을 위해 진행한 ‘내 나무 심기’ 기부 행렬엔 수천 명이 참여했다. 그때 모인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이 훌쩍 넘는다.

before its opening, the park was warmly and enthusiastically welcomed. Thousands of people participated in the Plant Your Tree Donation Campaign in 2013. The Forest of Dedication, home to about 5,500 trees, is a clear sign of their affection and support.

Hocheon Village, Following Your Heart

“Youth is for making trouble!” The Korean television series *Fight For My Way* premiered in May 2017. It revolves around four underdogs pursuing their dreams in a ruthless world where job applicants are judged based on a piece of paper. At the end of a long day, the four friends gather at Namil Bar, which is their hangout at the rooftop of a house overlooking the village.

**높이가 제각각인 계단을 사이에 두고 양옆에 주택이 늘어섰다.
누군가 대문을 열고 나올 때를 대비해 눈인사를 연습해 본다.**





VILLAGE



180계단, 호령이 어슬렁길 등이이색적인호천마을은 한국관광공사가선정한 2021년봄 비대면안심 관광지 중 하나다. 문의 051-605-4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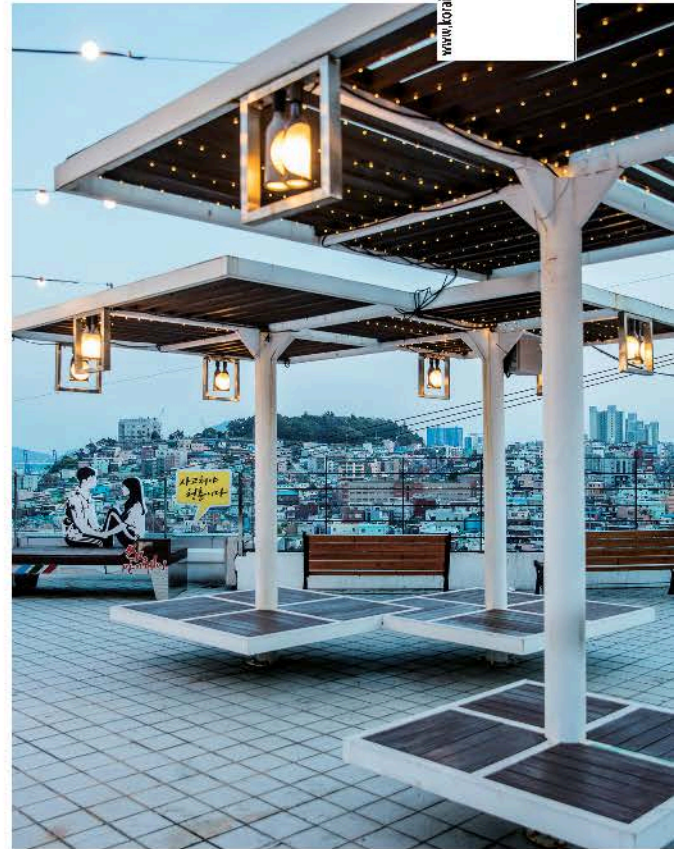
이런 애정을 바탕으로 꾸민 ‘참여의 숲’엔 크고 작은 나무 5500여 그루가 쭉쭉 자라는 중이다. 이를 포함해 부산시민공원에 자리한 100여 종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아늑한 그늘을 만들어 사랑에 보답한다.

내 심장이 원하는 대로, 호천마을

다 그런 거라고,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다독이던 시절이 있었다. 부산진구에선? “사고 쳐야 청춘이다!” 2017년 5월 드라마 <쌈, 마이 웨이>가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이력서 한 장으로 지원자의 열정과 패기를 판가름하는 세상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네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세상은 말한다. 현실과 타협하라고, 너에겐 과분한 꿈이라고. 청춘이 응답한다. “그냥 더 가슴 뛰는 거해.” 믿을 거라곤 건강한 몸과 마음 뿐인 네 청춘은 지친 하루 끝에 ‘남일바(bar)’로 모여든다.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주택 옥상에 주인 몰래 마

At the so-called bar, they share laughter and tears over heartfelt conversations. As they clink their glasses together, they gain the courage to face another tomorrow. The filming location of Namil Bar is Hocheon Village in Busan.

During the Korean War, many refugees flocked to Busan and started new lives. Hocheon Village was formed by those who lost their hometowns at that time. The entrance to the village can be easily reached via a city bus. Next to a small supermarket near the bus stop is the highlight of the village: 180 stairs. Standing before the stairs, I am first drawn to the web of overhead electrical cables. Then, my gaze gradually shifts to the scene beyond. With my eyes, I follow the winding road, which seems to be making its way out of a complicated maze. Ready to



련한 아지트다. 네모난 평상에 무릎 붙여 앉은 이들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울고 웃는다. 마음껏 응석도 부린다. 그러고는 술잔을 부딪치며 내일을 맞이할 용기를 얻는다. 고단한 청춘을 힘껏 안아 주는 남일바의 실제 촬영지, 호천마을이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몰려든 피란민은 인파에 밀려 산자락까지 올라왔다. 나무, 판자, 골판지 같은 것으로 바람만 겨우 막고서 몸을 누었다. 집들은 가파른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온기를 나눴다. 호천마을 역시 전쟁 중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새로이 개척한 곳이다. 삶을 흔드는 거센 바람을 여기서 이겨 냈다. 시내버스를 타고 호천마을 입구에 내리면 마을 여행이 시작된다. 정류장 근처 자그마한 슈퍼 앞에 놓인 커피 자판기와 아이스크림 냉장고, 작은 평상이 정겹다. 슈퍼 옆에는 이 마을의 하이라이트, 180계단이 자리한다. 계단 앞에 서서 머리 위에 어지럽게 얹힌 전깃줄에 시선을 빼앗긴다. 그러다가 조금씩 시야를 넓혀 계

fully immerse myself in the experience, I begin climbing down the stairs. On both sides, there are gates leading to actual residential houses. After taking about ten steps or so, I remind myself to give a friendly smile to any villager stepping out from a gate.

Up next on my itinerary is the filming location of Namil Bar, that is, the rooftop of a house near the Hocheon Village Cultural Center. There, a low wooden bench awaits. I decide to take a short break. "Believe me. No matter what anyone says, you're going to succeed." This line from *Fight For My Way* keeps playing in my mind.

There is no fixed route in exploring Hocheon Village. All you have to do is follow your heart. I hear the burbling of flowing water, and soon find a shallow stream that passes between



드라마 <쌈, 마이웨이>속 남일바를 재현한 호천문화플랫폼에서는 마을 풍경부터 바다까지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문의 010-8689-0419

단 너머 풍경에 집중한다.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가듯, 구불구불한 산비탈 마을을 재주껏 가로지르는 산복도로의 행방을 눈으로 좇는다. 맛보기가 끝났으니 이제는 몸으로 부딪혀 볼 차례다. 느린 속도로 계단을 밟아 내려간다. 높이가 제각각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아담한 주택이 늘어선 모양새다. 열 걸음쯤 걸었을까. 양 옆에 있는 대문에서 금방이라도 주민이 나타날 것 같다. 혹시 누군가 마주친다면 눈인사를 건네리라 다짐하며 여정을 이어 간다.

네 청춘의 아지트 남일바에 가 보기로 한다. 남일바 장면은 호천생활문화센터 근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옥상에서 촬영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도착한 곳에 나무 평상이 하나 자리한다. 드라마의 여운을 전하려는 주인장의 마음 씩씩이가 따스하다. 평상에 엉덩이를 붙이고서 잠시 쉬어 간다. “내 말 믿어. 누가 뭐라든 넌 될 놈이야.” “울고 싶을 땐 센 척하는 게 쿨한 게 아니고, 울고 싶을 땐 그냥 우는 게 쿨한 거야.”

houses. I head on down the waterside deck. “Woof, woof!” A dog is faithfully keeping guard. Its low growl ripples through the peaceful village. The people are hardly disturbed, and go about their routines nonchalantly. Next, my eyes land on the calligraphic works created by the villagers themselves. “It was tough cracking ice to do laundry, but I find myself missing those days.” “Where lettuce, young radish, perilla, and wallflower used to grow has been replaced with small and large buildings, parking lots, and houses.” The plain, simple sentences strike a chord within, and their memories flash before my eyes.

The last place I drop by in Hocheon Village is Hocheon Culture Platform. The space has recreated the atmosphere of Namil Bar, including



어느 순간, 드라마 <쌈, 마이웨이> 속 청춘이 말을 붙여 온다. 팬스레 울적 쏟아지는 마음을 애써 부여잡는다. 안녕, 고마워. 마음으로 인사를 전한다. 호천마을을 여행하는 방법엔 정답이 없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 졸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를 향해 걸음을 옮긴다. 층층이 쌓인 집 사이로 얇은 천이 흐른다. 호랑이가 나오는 골짜기라 해서 호계천이라 부르는 물길을 따라 조성한 벵 길을 걷기로 한다. 월월! 낮선 이의 발소리에 청각이 예민한 개 한 마리가 제 본분을 충실히 수행한다. 담벼락에 기댄 채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동네를 깨운다. 익숙한 일인 듯, 이웃 주민이 무심하게 지나간다. 그 모습이 왠지 정답게 느껴진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캘리그라피 작품이 눈길을 끈다. “얼음 깨고 팔래하던 시절, 참 힘들고 고달픈 세월이었지만 그 시절이 그리기도 하네.” “상추, 열무, 깻잎, 부지깽이 자라던 곳에 큰 건물, 작은 건물, 주차장, 집들이 들어섰다.” 기교 없는 담백

a soju bottle tree containing memorable lines from the television series, neon signs, and other familiar props. The bar overlooks rows upon rows of pastel-colored houses, and the iconic Busan Harbor Bridge can be seen in the distance. While admiring the rainbow of hillside houses, I take time to reflect on the drama's message: “Just go with the thing that makes your heart beat faster!”

Chic Street of Cafes

Jeonpo Cafe Street exudes a youthful, vibrant atmosphere. It went through a major transformation during the Korean War, when military vehicle maintenance centers opened in Jeonpo-dong and nearby areas. The street was soon filled with

CAFE





STREET

리데나, 가스켓, 메카니컬, 오일레스, 고무금형, 특수리데나, 수입품일절
AL 동아특수산업
 804-9678 F.804-9673 H.P:010-2001-6006





독특한 카페가 많은 전포카페거리는 2017년 <뉴욕타임스>가 ‘올해가 봐야 할 52곳’으로 선정된 곳이다. 문의 051-605-4525

한 문장이 마음에 꼭 박힌다. 얼굴 모를 누군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친다.

호천마을에서의 마지막 목적지는 호천문화플랫폼으로 정했다. 드라마 명대사가 쓰인 술병 트리, 네온사인 간판, 평상과 담금주 등을 비치해 실제 촬영지보다 더 남일바 같은 곳이다. 바 뒤로 각양각색의 파스텔 톤 옷을 입은 집들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저 멀리 부산항 대교도 보인다. 시원한 전경에 가슴이 탁 트인다. 산자락에 웅기종기 모인 집들을 찬찬히 눈에 담으며 드라마 명대사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 “네가 있는 데가 너한테 메이저 아냐? 네가 좋은 데가 너한테 메이저 아니냐고, 그냥 더 가슴 뛰는 거 해!”

낙후한 공구 골목의 변화, 전포카페거리

두 발 딛고 선 자리를 메이저로 만든 청춘이 가득한 전포카페거리로 이동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전형적

hardware stores and tool shops, amounting to over 500 in the 1960s and 197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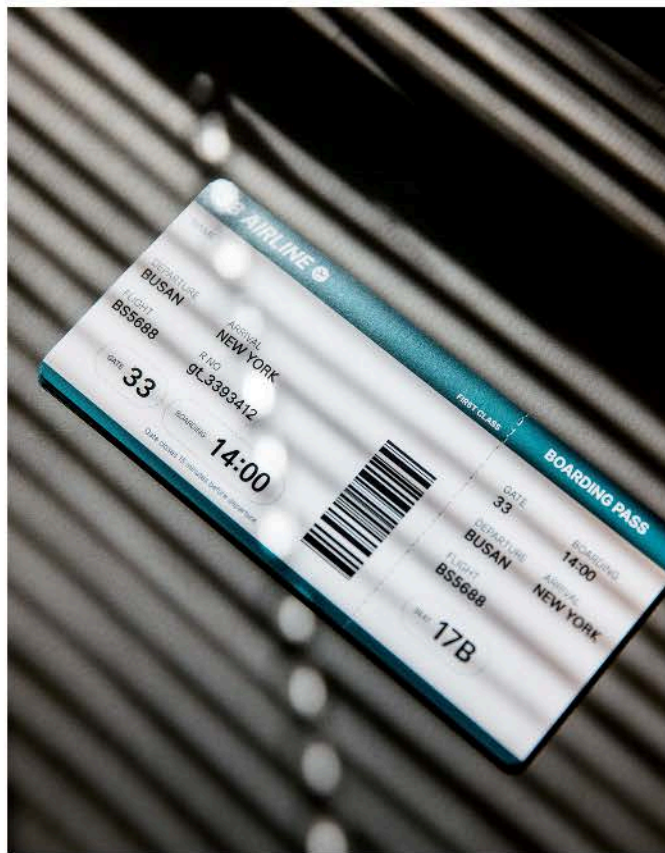
After vehicle manufacturers relocated in the 1980s and 1990s, the street lost its vitality. Coffee was what gave it new life. A small cafe popped up among the few remaining hardware stores in 2009, and grew widely popular through word-of-mouth. This led to the opening of more charming, trendy cafes. Jeonpo Cafe Street is recognized today as a major attraction of Busan. You won't realize how time flies as you browse through the wealth of crafts, vintage items, and props. And then, you will be charmed by the street's unique atmosphere when you come across signs that read “Special Tools” and “Safety Boots.” Hardware and coffee are two vastly different worlds, but this is where they

공업사 사이로 카페 불빛이 반짝인다. 철을 깎는 쇠소리 대신 원두 볶는 소리가 공구 골목을 가득 메운다.

인 농촌이던 이곳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전쟁 당시 미군이 들여온 군용 차량을 정비하는 육군 차량 재생창이 전포동과 인근 지역에 자리 잡았다. 이후 차량 부품을 취급하는 공구상과 관련 공장이 차츰 늘었다. 한국지엠의 시초인 신진공업사도 1960년 이곳에 부산 공장을 준공했다. 그러다 보니 1960~1970년대엔 500여 개의 상점이 밀집할 정도로 번성했다.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부품을 구하러 일부러 찾아 오기도 했다. 경남모직, 대양고무, 홍아타이어 같은 기업도 이곳을 발판 삼아 힘차게 성장했다. 그것도 잠시, 1980~1990년대 제조사가 이전하는 등 상권이 변화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가게 대부분이 영업을 마친 오후 5시 이후엔 인적이 뜸 끊기곤 했다. 건너편에 위치한 서면 변화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활기를 잃은 골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커피였다. 2009년 허름한 공구 상점 사이로 카페 불빛이 반짝였다. 변화를 벗어난 외진 지역, 커피 맛에 집중한 자그마한 카페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철 깎는 쇠소리가 울려 퍼지던 거리에 원두 볶는 소리가 더해졌다. 특색 있는 카페가 늘어나면서 골목 깊이가 커피 향이 배어들었다. 그 결과, 오늘날 전포 카페거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발돋움했다. 카페뿐 아니라 공방, 빈티지 숍, 소품 가게 등 개성 넘치는 가게가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고기로 하나 되는 순간' '인생도 초밥처럼 날로 먹고 싶다' '회사원 세트처럼 짧지만 강렬한 문구가 호기심을 부르는 맛집도 곳곳에 보인다. 그러다 어느 틈에 고무 금형, 특수 공구, 안전화 같은 단어가 쓰인 간판을 마주하며 이 길의 묘미를 다시금 깨닫는다. 공구와 커피라는 서로 다른 두 단어가 낯선 듯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환상적인 공합을 자랑하는 이 조합은 길 건너 전리단길과 전포 사잇길까지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2018년 전후, 존재감을 드러낸 전리단길은 공구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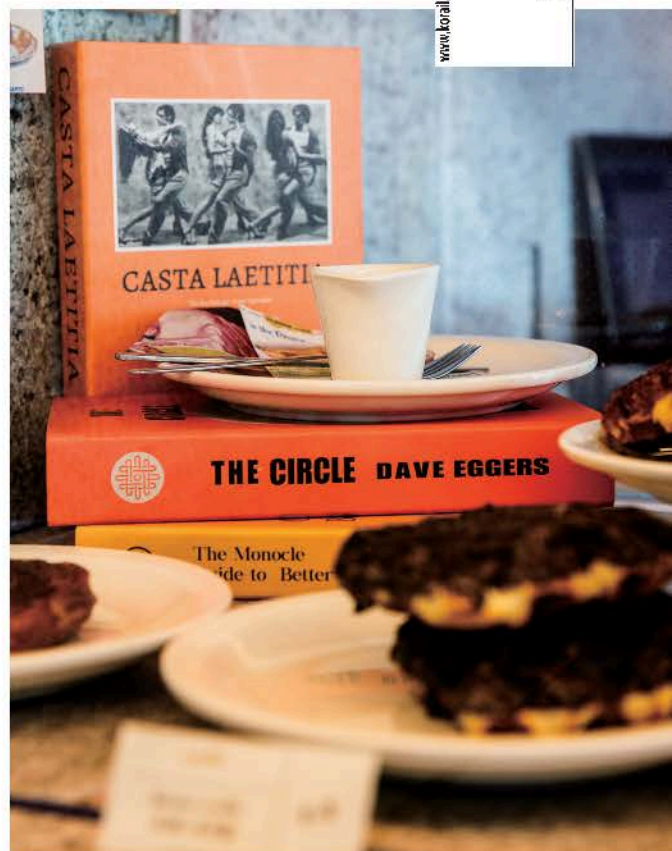
전포카페거리, 전리단길에 이어전포사잇길까지 카페와공방, 공구상이 공존하는 세 거리는 서로 닮은 듯 다른 분위기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카페, 공방이 가까워 한층 이색적이다. 골목 대여섯 개 규모에 대부분의 상점이 통유리로 이뤄져 천천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서핑 잡화점, 공항 라운지처럼 꾸민 카페, 손 글씨를 배우거나 가족 지갑을 만드는 공방 등 시간 내서 방문하고 싶은 상점이 골목을 풍성하게 메운다. 마음에 꼭 드는 가게에서 추억을 쌓거나, 그저 걷기만 해도 즐거운 길이다. 지난 1월 개관한 전리단갤러리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것도 좋겠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건물 2층, 투박한 계단을 밟아 도착한 곳에서 예술을 만난다. 사실 이 거리엔 또 하나의 예술이 존재한다. 공업사철 문이 하나들 닫히면 이곳은 전시장이 된다. 지난해 개최한 '전리단길 청년미로(美路)'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철문에 그려 넣었기 때문이다. 무지갯빛 커피에서 뛰노는 아이, 친근하게 대화하는 바리스타와 손님, 턱을 괴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남자 등 저마다의 그림체와 색채를 지닌 작품이 공간에 생동감을 더

blend together harmoniously. Recently, the stretch of cafes and shops has been expanding to Jeollidan-gil and Jeonposait-gil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Jeollidan-gil, which emerged around 2018, is lined with tool shops, cafes, and workshops. The clear glass storefronts invite you to look in from outside. The list of hip, interesting shops include an unmanned surfing store, a cafe designed like an airport lounge, and a workshop where you can learn calligraphy and leathercraft.

Also recommended is Jeollidan Gallery, which opened a few months ago in January. On roller shutter doors along the street, you will see winning works from the Jeollidan-gil Youth Beautiful Street Design Competition. Each work of art adds zest and energy to what



한다. 전포카페거리와 전리단길 다음으로 형성된 전포사잇길은 다소 한적한 주택 단지에 속해 있다. 공업사뿐 아니라 세탁소, 미용실 등 생활감 넘치는 풍경에 아기자기한 카페와 베이커리, 브런치 가게가 스며들어 또 다른 낭만을 전한다.

오늘의 낭만, 내일의 역사

부산진구가 거쳐 온 수많은 역사를 헤아려 본다. 그 속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새로운 터전과 문화를 일궈 낸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의 노력이 모여 오늘의 낭만이 탄생했다. 언제든 부산시민공원에서 해바라기하는, 호천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을 다독이는, 전포카페거리에 절묘한 화음이 울려 퍼지는 낭만 말이다. 고단했던 시간이 현재의 낭만을 선물했듯, 수고로운 오늘이 훗날 부산진구를 더욱 아름답게 빛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진구엔 낭만이 가득하다. 12

would otherwise seem like a dull landscape. Jeonposait-gil, formed after Jeonpo Cafe Street and Jeollidan-gil, is a quieter residential area. Other than the usual laundromats and hairdressers, it is replete with a lovely selection of cafes, bakeries, and brunch spots, all adding to the romance of the district.

Today's Romance, Tomorrow's History

I try to fathom the historical depth of Busanjin-gu District, including the recovery of lost land, and the people who settled into new lives and culture. Their persistence has been rewarded with today's romance. Efforts pay off in the end, and Busanjin-gu District will be more dazzling in the days to come. ■



부산진구의 또 다른 볼거리



황령산 봉수대

해발 427미터 높이의 황령산 정상에선 부산진구는 물론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등 부산 시내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다시 말해 외부 침입을 확인할 봉수대를 설치하기에 적절하다는 뜻이다. 과거 황령산 봉수대에 불을 피우면 해운대의 간비오산 봉수대 등을 지나 서울까지 소식이 전해지곤 했다. 1425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는 황령산 봉수대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의 침입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의 051-605-4065



강수영 열사 기념비

4·19혁명 당시 부산 최초로 희생된 강수영 열사를 기리는 기념비를 그의 모교인 경남공업고등학교에 세웠다. 부산진구엔 4·19혁명 진원지, 6월 항쟁 표석 등 역사의 흔적이 즐비하다. 부산진구는 이 같은 스폿을 돌아보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서면애(愛) 가면 도보투어'도 내놔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옛 극장가, 서면 공구 골목, 부산시 민공원 등을 돌아본다.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예약하면 된다. 문의 051-605-4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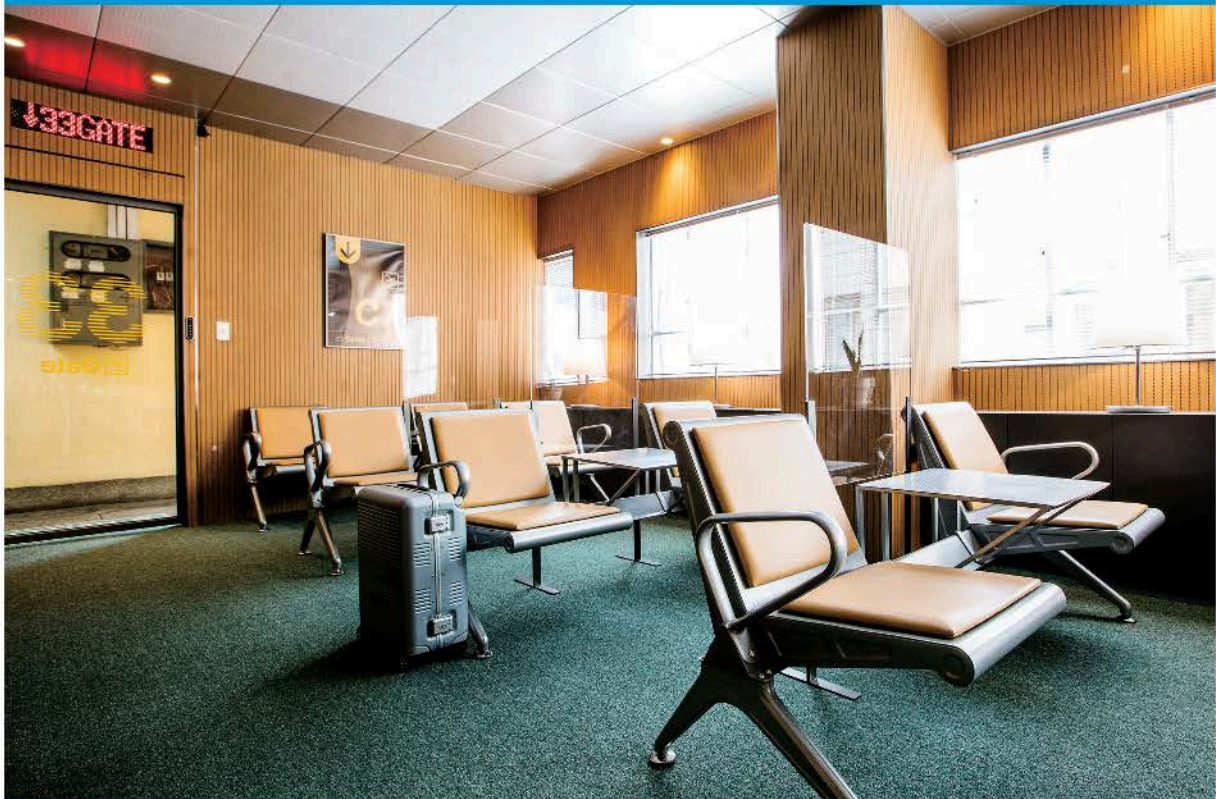


부산커피박물관

지난해 잠정 휴관한 '부산커피박물관'이 올해 3월 새롭게 개관했다. 전포커피거리 중심에 자리해 누구나 쉽게 오간다. 김동규 관장이 1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수집한 커피기물 500여 점 중 일부를 공개한다. 1920년대 태엽 방식의 로스팅기, 1960~1970년대 모닥불로 원두를 볶던 로스팅기 등 다채로운 수집품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문의 010-9346-8000



부산진구의 감성 카페



랜드마크9

통유리로 이뤄진 2층 규모의 원통형 건물. 한 번 봤을 뿐인데 뇌리에 남는 특이한 외관이다. 이름 그대로 전포카페거리의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카페답다. 넓고 쾌적한 내부 역시 우아한 가구 사이사이 식물을 배치해 세련된 느낌을 준다. 다양한 음료 중 말차와 초콜릿이 어우러진 '말차크림초코', 캐러멜과 헤이즐넛 라테에 로투스 크림과 크림볼 토핑을 얹은 '로투스 크림볼'이 대표 메뉴다. 타르트, 케이크 등 디저트도 직접 만든다. 문의 010-3560-7760



에프엠커피 전포사잇길점

지난해 전포카페거리의 터줏대감 '에프엠커피'가 전포사잇길에 분점을 냈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매장, 로스팅실, 제빵실 등으로 구성했다. 바리스타가 정성껏 로스팅한 원두로 신선한 커피를 내린다. 콜드브루 원액에 크림을 듬뿍 올려 부드러운 맛을 더한 '투모로우' 커피로 입소문이 났다. 유가농 말차를 사용한 말차라테 '전포숲'도 인기다. 커피에 곁들일 10여 종의 빵을 매일 구워 낸다.

문의 051-803-0928



33게이트

올해 1월 전리단길에 오픈한 '33게이트'는 공항 라운지를 뚝 뚫은 공간으로 사랑받는다. 휴양지에서 만날 법한 과일 에이드, 터키식 디저트, 뉴욕 치즈 케이크 등 세계 각지의 음료와 디저트를 맛보며 도심 속 휴가를 만끽한다. 간간이 흘러나오는 공항 안내 방송이 현장감을 높인다. 여행 가는 기분 내도록 곳곳에 캐리어를 배치해 인종 사진 찍기에 안성맞춤이다. 기념품으로 비행기 티켓까지 받으니 진짜 공항에 온 기분이다. 문의 010-8518-6918

전국
우수 숙소

부산

후회 없는 선택 부산 호텔

관광 명사로 사랑받는 부산에서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호텔을 찾았다.

글. 이내정 사진. 신규철



‘여행자의 방’에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업소가운데 엄선한 숙소를 소개합니다.

KOREA 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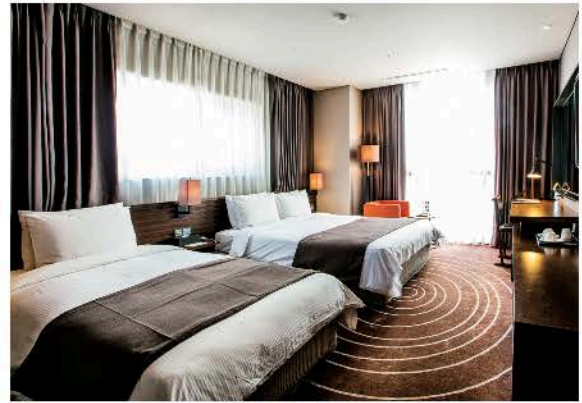
한국관광 품질인증

해운대 인근 비즈니스 부티크 호텔 베스트루이스해밀턴호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해세권'에 숙소가 위치한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일출 시각 즈음 일어나 나갈 체비를 한다. 특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폭신한 구스 침구에서 편안하게 잠든 덕분인지 몸이 개운하다. 기분 좋게 해를 맞이하려 나가니 하늘이 벌써 붉게 물들었다. 설레며 기다리는 시간, 곧 바다 위로 둥근 해가 얼굴을 내민다. 하루를 알뜰 열었으니 여유 있게 아침도 챙긴다. 조식을 서비스하는 숙소 지하 1층 라운지로 향한다. 쿠폰을 내자 세프가 바로 준비를 시작한다.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필요한 만큼 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신선하다. 해운대에서 10년 가까이 운영한 '베스트루이스해밀턴호텔 해운대점'은 깨끗한 실내와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새 건물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조명이 돋보이는 1층 라운지 한쪽에는 파우더 룸을 마련해 숙소를 떠나기 전 고객이 마지막으로 용모를 점검하도록 돕는다. 고객의 니즈를 고려해 구성한 공간이 섬세하다. 작은 차이가 이곳의 서비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INFORMATION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00번가길 8 문의 051-741-7711
홈페이지 www.bestlouishamiltonhaeundae.co.kr
주변 여행지 사계절 언제나 바다가 아름다운 해운대해수욕장



숙소의 보물 1호



든든한 조식 메뉴

늦잠을 잔 고객도 즐길 수 있는 조식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공한다. 메뉴는 총 세 가지. 시그너처인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는 팬케이크에 요구르트를 넣고 만들어 맛이 더욱 깊고 부드럽다.





청결은 기본, 개성도 간직한 숙소 센트럴파크호텔부산

변화는 기회를 만드는 법이다. 지난해 4월 '센트럴파크호텔부산'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대대적인 리뉴얼을 단행했다. 단순히 외양만 바꾼 게 아니라 내실을 다졌다. 실내 공기 정화 설비를 보강해 객실이 보다 쾌적해졌고 침구류 관리, 실내 청소 등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침구류와 수건 등 피부에 직접 닿는 물품을 세탁하는 세제를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한 것.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머무르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고의 제품을 택했다. 변화의 결실은 빨리 맺혔다. 기업 단체 투숙객이 늘어나고 주말로 방문한 고객 비중도 높아졌다. 객실뿐 아니라 편의 시설도 보완했다. 호텔에서 운영하는 와플 매장에서는 매일 달콤한 와플과 이탈리아 라바짜 원두로 내린 고소한 커피를 판매하고, 1층 조식 공간에서는 아침에 도시락을 제공한다. 가정의 달 5월에는 특별한 프로모션 '봄날의 로맨스 패키지'를 선보인다. 호텔과 인근 동물원 캐니언파크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상품으로, 봄날 여행을 더욱 알차게 한다.

INFORMATION

주소 부산시 중구 해관로 20 문의 051-243-8001

홈페이지 www.centralparkhotelbusan.com

주변 여행지 남포동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부산타워와 웅두산공원



숙소의
보물 1호



1층 로비

호텔의 얼굴인 로비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세단장한 로비는 눈부신 상들리에와 하얀 바닥재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편안하게 쉬어 가도록 소파도 비치했다.





3대가 이어온 동래온천 호텔의 자부심 녹천온천호텔

부산 동래온천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온천으로 알려졌다. <삼국유사>에서는 683년 장산국, 현재 동래구에서 중원공이 목욕했다 하고, 조선 중기의 책 <지봉유설>에서는 우리나라 전역의 온천 중에서 동래온천이 으뜸이라 했다. 병자가 씻고 나았기에 신라 시대에는 왕들이 즐겨 찾았다고도 기록한다. 이 지역에 근대 온천이 개발된 것은 1910년대 일본인에 의해서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1962년 한국인이 처음 세운 목욕탕이 '녹천온천호텔'의 전신이다. 1980년대에는 호텔로 신축하며 객실마다 탕을 만들었다. 더 많은 이가 몸에 좋은 온천물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할아버지 뜻을 이어 아버지, 이제는 손주 박종열 실장이 이곳을 경영한다. 대중목욕탕에 가기 힘든 시기,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려는 이들로 붐비는 만큼 방역도 철저히 한다. 하루에 두 번 건물 소독은 기본이고, 탕 청소는 두 배로 신경 쓴다. 요즘은 방역과 소독이 손님을 위한 최고 서비스라 박 실장의 말에 숙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INFORMATION

주소 부산시 동래구 금강공원로26번길 31

문의 051-553-1005 홈페이지 www.nokcheonhotel.com

주변 여행지 숲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금강공원



숙소의 보물 1호



68도에 달하는 온천물

국내에서도 온천물 온도가 높기로 손꼽힌다. 부산 진산인 금정산 자락에서 흘러 내려오는 염소 성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염천이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백가네한우사랑



연화식당



가파솔곰탕



다은회관

GO-CHANG

고창 자연이 선물한 건강 밥상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전북 고창에서 자란 농산물과 수산물이라 믿음이 간다.
그 자원으로 정갈한 밥상을 차리는 음식점 열다섯 곳을 모았다.

글. 이내경



우리품천장어



본가



모양성숯불칼비



성송회판



보양성순두부



석정풍천장어



보교지함초바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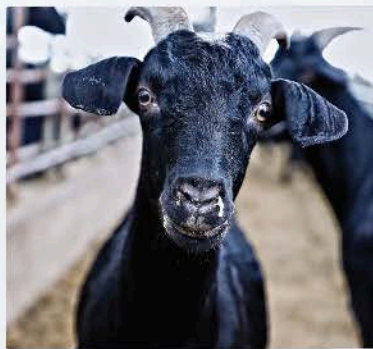
산, 바다, 들을 아우르는 고창은 예부터 살기 좋은 땅입니다. 무기질과 미네랄을 함유해 비옥한 황토에서 2000년 전 마한 시대에는 보리와 갈대가 펼쳐진 땅이라는 의미의 모로비리국이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를 자랑하는 고인돌 유적지가 이를 증명합니다. 품질이 뛰어난 장어, 바지락, 백합이 자라는 고창 갯벌은 인간에게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풍요로운 고창 고창이 청정 자원으로 요리하는 음식점을 모아 만든 브랜드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의 식당 열다섯 곳을 소개합니다.



인천가든



갯벌삼방 웰빙식당



새싹골



해성페일



가마솥곰탕

▲ 모듬전골 5만원 꼬리곰탕 1만 3000원 갈비탕 1만원
 ♣ 고창군 고수면 고인돌대로 1438 ☎ 063-564-0988



온종일 우리는 육수가 진국

뽀얀 국물이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 우족, 쇠머리뼈 등을 가마솥에서 24시간 고아 낸 국물을 베이스로 꼬리곰탕, 갈비탕, 설렁탕 등 다섯 가지 메뉴를 선보이는 '가마솥곰탕'은 언제나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국물 요리를 제공한다. 곰탕 전문점의 특성을 살려 갈비살을 맑은 국물이 아닌 뽀얀 국물에 담아내는 갈비탕, 이 집에서 사용하는 도가니와 사태 등 모든 쇠고기 부위에 부챗살도 넣어 깊은 맛을 전하는 모듬전골 등 메뉴가 단출해도 하나같이 훌륭하다. 분위기도 음식 맛을 좌우하는 요소. 멀리서도 눈에 띄는 3층 황토 건물 내부엔 타작 기구, 지게 등 옛 농기구를 진열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소중한 농경문화를 되새기자는 주인장의 취지가 뚜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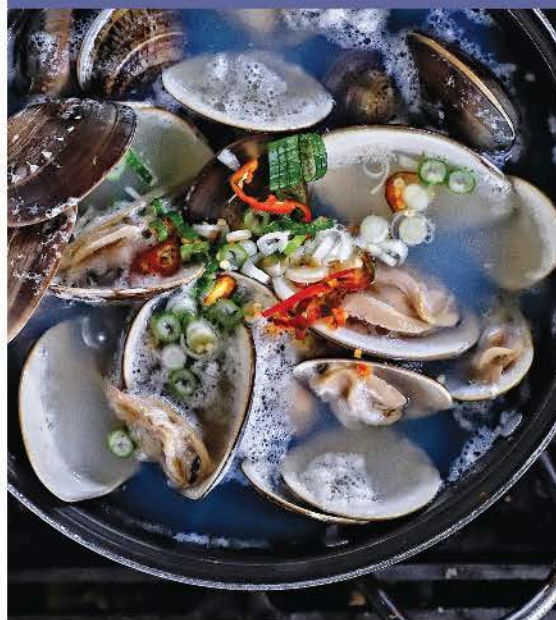


백합 요리의 모든 것

한국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고창 백합을 주재료로 요리한다. '다은회관'의 대표 메뉴는 백합을 다양하게 즐기는 백합정식. 백합회나 무침이 코스의 포문을 연다. 생백합은 산지 식당에서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라 손님 대부분이 처음엔 낯설어하지만, 한 번 맛보고 나서는 잊기 힘들어 다시 찾아오게 하는 메뉴다. 이어서 백합살이 쫄깃한 백합구이, 시원하면서 툭툭한 백합탕이 식사 시간을 정점으로 이끈다. 마무리는 백합을 삶아 낸 짭조름한 국물에 표고버섯과 녹두를 넣어 끓인 죽. 식사를 마치는 순간 백합 요리의 진수를 경험한 기분이다. 처음 다짐한 그대로 정확하게 약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다는 이곳에선 배도 마음도 두둑해진다.

다은회관

▲ 백합정식 3만원 백합상탕 1만 5000원 백합무침(대) 3만 5000원
 ♣ 고창군 고창읍 동산7길 1 ☎ 063-564-6543





모꼬지함초바지락

▲ 바지락정식 1만 8000원 바지락칼국수 7000원
♀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 60 ☎ 063-561-4568



고창 갯벌의 싱싱한 재료로 차린 잔치상

남편 전용미 대표는 40년 전 고창 최초로 지주식 김 양식을 시작한 이후 바지락 양식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자연히 가족도 전 대표와 관심사를 공유하게 됐다. 고창 특산물에 마음을 쏟다 보니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바지락을 더 알려야겠다는 꿈이 생겼다. 2017년 부인 김혜영 대표는 그 마음을 담아 '모꼬지함초바지락'을 오픈했다. 상호는 고창 갯벌의 싱싱함으로 차린 잔치 한 상이라는 뜻. 상 위에 고창의 바다가 차려진다. 흰쌀에 실한 바지락 살을 얹어 지은 돌솥밥이 윤기가 좡르르 흐른다. 대하를 넣은 담백한 바지락칼국수, 과일을 갈아 만든 양념장으로 무친 바지락초무침, 바다의 약초라 불리는 함초로 부친 전 등이 모두 먹음직스럽다.



매일 만드는 영양 만점 두부

고창 대두가 하얀 두부가 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니 정성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불린 콩을 갈아 끓이고, 콩물을 짜고 나서도 간수를 부어 가며 제조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닐 터. 이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모양성순두부'는 두부를 만들고자 매일 새벽 4시에 매장을 연다. 8000원짜리 메뉴일지라도 제일 좋은 음식을 내겠다는 주인장의 소신 때문이다. 그날 만든 두부가 상에 나갈 차례. 고소한 두부와 표고버섯·흰목이버섯 등 버섯 여섯 가지, 채소를 함께 내는 두부버섯전골은 채수로 국물을 써 시원하고 깔끔하다. 부끄럽지 않은 한 상을 위해 밑반찬 하나까지 신경 쓴다. 쌀뜨물로 씻어 구운 자반고등어가 별미. 더운 날엔 과일을 베이스로 한 메밀 메뉴를 추천한다.

모양성순두부

▲ 두부버섯전골(대) 3만 8000원 육전품은과일비빔모밀 8000원
♀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33-13 ☎ 063-564-0337





식사 메뉴까지 훌륭한 숯불갈빗집

고창정식, 모양성정식, 고인돌정식 등 메뉴 이름 하나하나에 고창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겼다. 고창읍성의 옛 지명인 모양성, 이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 유적 고인돌에서 따 친근하다. '모양성숯불갈비'는 인근 도축장에서 직접 선별해 온 최상급 고기를 참숯에 구운 구이 메뉴나 돼지양념갈비는 물론, 지역 식재료를 만든 점심 특선 메뉴로 정평이 난 맛집이다. 장어조림, 떡갈비 등을 성대하게 차려 내는 고인돌정식은 가정수에 한 번 놀라고, 임미랑 대표 손맛에 두 번 놀란다. 임 대표가 제일 공들이는 것은 돌솥밥. 표고버섯, 당귀 등 네 가지 재료를 우린 물로 흰쌀에 흑보리를 섞어 밥을 짓는다. 밥이 보약이 되는 곳이다.



모양성숯불갈비

▲ 고인돌정식 3만원 돼지양념갈비 1만 3000원
 ♣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83 ☎ 063-564-9979

박가네한우사랑

▲ 생고기 5만원 생고기비빔밥 8000원 갈비탕 7000원
 ♣ 고창군 고창읍 남정1길 3 ☎ 063-562-6678



합리적 가격으로 즐기는 최고의 생고기

선홍빛 고기가 누가 봐도 신선하다. '박가네한우사랑'은 전북 정읍에서 그날 도축한 최상급 고기를 매일 5킬로그램 정도씩 들여와 생고기로 소진한다. 대형 마트에서 오랜 기간 육가공 일을 한 박종태 대표가 고기를 손질하는데, 차지고 달달한 맛에 칭찬이 자자하다. 생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다 보니 비빔밥에도 생고기를 쓴다. 생고기비빔밥 한 그릇에 생고기와 콩나물, 채 썬 당근 등 채소를 함께 담아 간단하게 먹기 좋다. 높은 품질 때문에 값이 비쌀 거라 여기면 오산.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행정안전부 인정 '착한가격업소'다. 심지어 갈비탕은 10년 전 가격 그대로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췄다.



백합 대중화에 앞장서는 백합 요리 전문점

"고창산 백합은 껍질이 반짝거리고 색이 어여빠요. 맛도 매력적이죠. 첫맛은 짭조름하고 끝 맛은 달아요." 백합을 주재료로 한 요리로 명성을 얻은 '호수가든' 대표인 부모님을 보고 자란 윤은석 대표는 10여 년 전, 식당 경영에 뛰어들며 한 가지 결심을 한다. 가격이 비싼 백합을 다양한 요리로 응용해 대중화하겠다는 것. 2012년 웰파크시티 단지로 이전하며 상호를 '본가'로 변경했고,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그는 그 신념을 지켜 나간다. 백합정식은 백합을 생, 구이, 무침, 전골, 전, 죽 등으로 친숙하게 소개하는 삼차림. 이 중 백합무침은 손님에게 내기 직전 백합과 채 썬 오이를 양념장에 무쳐 입안 가득 신선함을 전한다.



본가

▲ 백합정식(4인) 14만원 백합무침+백합죽(4인) 9만 2000원
 ♣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71 ☎ 063-564-5888

석정풍천장어

▲ 장어 2만 8000원 장어탕 1만원
 ♣ 고창군 고창읍 석정1로 105-2 ☎ 063-564-0592



잡내를 확실히 잡은 장어가 맛의 비결

석정힐컨트리클럽과 마주한 '석정풍천장어'는 인근 지역 골프장까지 소문난 장어구이집이다. 그 명성만큼 김명환 대표가 맛에 대해 가지는 자신감이 두둑하다. 고품질 풍천장어 사용은 기본, 잡내를 잡으려고 여러 조리 단계를 거친다. 제일 먼저 매장에 설치한 수족관에 장어를 4~5일 축양해 불순물을 배출시키고, 다음 날 판매할 양만큼 손질해 하루 동안 냉장 숙성한다. 두 과정으로 대부분의 잡내를 잡은 뒤 마지막으로 참숯에 초벌구이해 온온한 숯 향을 입힌다. 장어 맛이 훌륭하니 양념은 사치. 초벌구이할 때 아홉 번 구운 죽염으로 간을 해 식감이 더욱 쫄깃하고 맛이 고급스럽다. 장어 뼈와 살만 8시간 곤 장어탕도 진국이다.



성송회관

▲ 새싹생고기비빔밥 8000원 새싹보리전 7000원
 ♡ 고창군 성송면 대성로 796 ☎ 063-562-8575



유기농 새싹보리 요리

식전 음료인 연둣빛 새싹보리즙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새싹보리는 보리가 싹을 틔워 15~20센티미터 정도 자란 어린잎으로, 혈당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이다. 2014년 '성송회관'을 오픈한 직후부터 고창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요리를 내고 싶던 김정우 대표는 보리가 잘 자라 '모(牟)양성'이라고 불린 지명에 착안해 새싹보리에 집중한다. 친환경으로 보리농사를 지어 요리에 활용하는 그의 열정은 대단하다. 그날 공급받은 한우 뒷다릿살과 새싹, 무생채, 고사리 등 일곱 가지 나물을 보기 좋게 담아내는 새싹생고기비빔밥이 가장 사랑받는 메뉴. 검정 보리로 만들어 영양을 배가한 새싹보리전도 놓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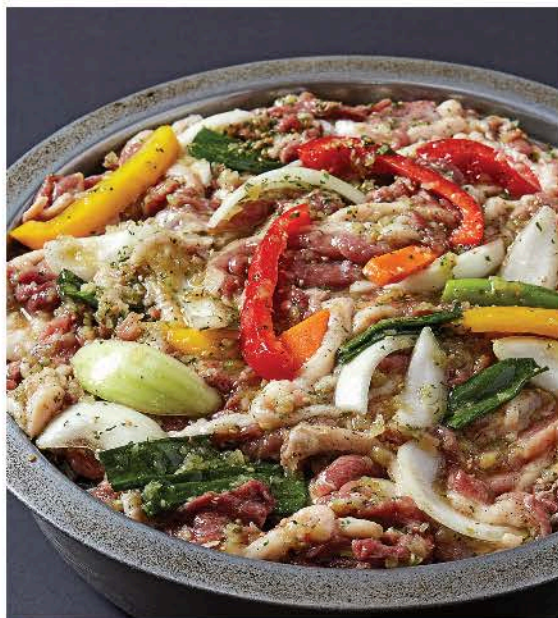
사시사철 몸에 좋은 흑염소 보양식

장사에서 좋은 목은 중요한 요소지만 맛만 있다면 손님은 어디든 찾아간다.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싸릿골'은 이 말을 증명하는 흑염소 전문 식당이다. 표주원 대표는 흑염소 요리에서 맛을 결정하는 요소가 누린내 제거라고 판단하고 2년 동안 전국 염소 농장을 다니며 냄새 잡는 방법을 터득했다. 비결은 깨끗한 환경에서 친환경 사료를 먹고 자란 염소를 사용하는 것. 흑염소전골은 이 집의 진가가 드러나는 요리다. 흑염소 뼈를 4시간 정도 곤 국물에 한 입 크기로 썬 고기를 전골냄비 중앙에 담은 후 새송이버섯, 부추, 양파, 다진 양념 등을 곁들여 내는데 성인 네 명이 먹어도 넉넉하다.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 보양식으로 즐기기에 제격이다.

싸릿골

▲ 흑염소전골(대) 6만원 흑염소탕 1만 4000원
 ♡ 고창군 고창읍 남구3길 15-1 ☎ 063-564-9549





연화식당

▲ 오리로스 4만원 오리탕 4만원 흑염소수육 6만원
♀ 고창군 대산면 대성로 197 ☎ 063-562-1223



20년 넘게 지켜 온 오리 요리 자부심

대산면에서 모르는 사람 없는 현지인 맛집 '연화식당'은 오리로스, 오리탕 등 오리 요리와 흑염소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다. 많은 이가 이 집에 열광하는 이유는 특별한 오리로스 덕분. 국내산 냉장 오리를 쓰고 특제 양념으로 만들어 빛깔부터 다르다. 일반적으로 불게 양념한 오리주물럭과 다르게 고기 색이 그대로 드러나 신선함이 눈으로도 느껴진다. 특제 양념은 이경옥 대표가 개발한 비법으로 제조해 이틀간 숙성한다. 고객이 주문한 즉시 양념에 오리고기를 버무려 상에 올린다. 쌀알이 크고 온온한 단맛이 나 값비싼 신선진쌀로 짓는 공깃밥을 추가하면 인심 후한 구분만 대표가 우렁이를 넉넉하게 넣어 끓인 된장찌개를 서비스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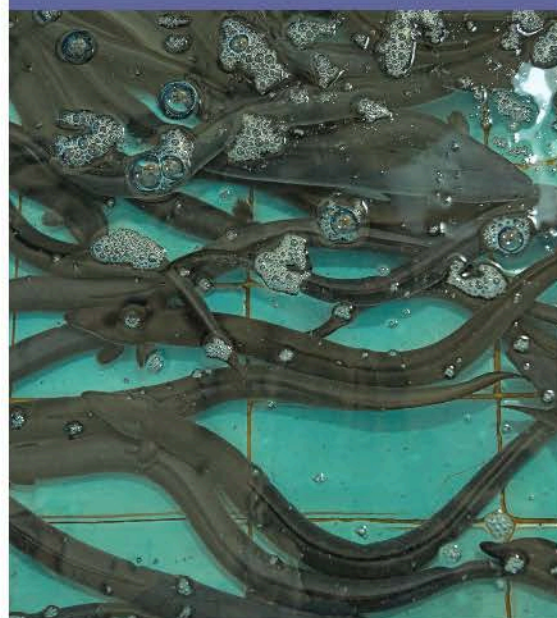


성심을 다해 처리는 장어 요리 한 상

번거워워도 이윤보다 정직을 추구한다. '우리풍천장어'는 음식을 준비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특히 이곳의 장어 요리는 비린내가 나지 않기로 유명하다. 비결은 순치장어. 뱀장어를 가져와 바닷물에 일주일 이상 풀어놓는 순치 과정을 거친다. 장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이물질을 토해 내며 활발하게 꿈틀대는 중에 살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또 손님상에 내기 전 초벌구이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해 장어 특유의 냄새를 잡는다. 이때 고창 해리면에서 생산한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5년 동안 간수를 빼고 볶아 짜고 쓴맛을 덜어 낸 것이다. 손님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을 다하니 이 집 장어는 몸에 이로울 수밖에 없겠다.

우리풍천장어

▲ 순치장어 소금구이 시가 장어탕 9000원
♀ 고창군 고창읍 월암수월길 104-14 ☎ 063-563-8882





고창 식문화를 간직한 50년 넘은 매운탕 전문점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주진천을 고창 사람들이 온 인천강이라 불렀다. 자연히 강변에는 물고기를 잡아매운탕을 끓여 파는 집들이 들어섰다. 이것이 '인천가든'의 시초. 어머니 쪽 할머니가 시작한 장사를 부모님이 물려받았고, 이제는 박현철 대표가 맛을 이어 간다. 요즘은 고기가 예전처럼 잡히지 않아 국내산 민물고기를 공급받아 탕을 끓인다. 새우탕에는 민물새우가 반, 무가 반 일 정도로 재료를 아낌없이 넣는다. 개운한 맛을 내는 무가 민물새우의 감칠맛을 부각해 잘 어우러진다. 손수 준비하는 밑반찬 중 집장은 고춧가루 등을 참쌀죽에 섞은 뒤 갖가지 채소와 버무려 숙성한 고창만의 장. 50년 넘은 식당에서 지역 식문화를 엿본다.



인천가든

▲ 새우탕(대) 5만원 송사리탕(대) 5만원
 ♣ 고창군 아산면 원평길 9 ☎ 063-564-8643

텃밭쌈밥 웰빙식당

▲ 우렁쌈밥 9000원 닭코스요리 8만원
 ♣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585 ☎ 063-561-0382



고창 자연이 키운 농산물로 차린 건강 밥상

식사를 끝내고 '텃밭쌈밥 웰빙식당'을 나서는 이들의 얼굴이 밝다. 약 6만 6000제곱미터(2만 평) 텃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농작물로 밥상을 차려 배부르게 먹어도 속이 편하다. 간장, 된장, 고추장도 직접 담근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기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학배 대표는 청정한 고창 농산물로 요리해 손님에게 내놓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식탁 위에 하나둘 자리한 우렁쌈장과 반찬에서 값진 수고가 전해진다. 열 가지 정도 나오는 쌈 채소를 겹겹이 쌓고 고창 심원면에서 가져온 우렁이로 만든 우렁쌈장을 올려 한 입. 입안 가득 싱그러움이 전해진다. 육회, 닭갈비 등 여덟 가지 닭 요리를 한상에 차리는 닭코스요리도 인기가 많다.



메밀막국수와 닭갈비의 찰떡궁합

10여년 전 메밀국수를 직접 뽑는 국숫집을 치렀다가 여름 장사만 한다고 아쉬워하는 단골을 위해 추가한 복분자닭갈비가 이제는 메인 메뉴를 넘본다. '해성메일'의 복분자닭갈비는 건강한 단맛이 매력적이어서 남녀노소 즐기기에 적당하다. 고춧가루를 베이스로 한 양념에 설탕과 물엿 대신 이곳에서 만든 복분자 효소를 첨가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달달하다. 그날그날 필요할 때 전분에 메밀가루를 70퍼센트 정도 배합한 후 반죽해 면을 뽑아 조리하는 시그너처 메뉴인 메밀 막국수도 재료 본연의 맛 느끼기 충분하다. 참기를 한 방울도 방앗간에서 찐다는 이곳. 좋은 음식을 많은 이에게 전해 보람되다는 박혜선 대표의 말에서 진심이 묻어난다.



혜성메밀

☎ 복분자닭갈비 1만 1000원 메밀막국수 7000원
📍 고창군 고창읍 성산4길 26 ☎ 063-563-3009



마음이 제자리를 찾다 여주 기행

글: 김현정 사진: 이규열

삶과 죽음이 만나는능, 강변의 아름다운 천년고찰.
경기도 여주의 명당을 밟으며 사색하고,
그곳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삶의 크기는 어떠한가. 또 죽음의 크기는.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에서 삶과 죽음의 크기를 두 발로 재어 본다. 입구에서 능, 그 주변까지 능역은 넓다. 왕이어서 당연히 죽음 이후의 공간을 넉넉히 차지했다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예우이며 존경이다. 53년을 살다 가신 세종대왕이 이곳에 누운 세월이 552년. 그분께 살아 있는 날은 곧 불쌍히 여기는 날이었다. 세종대왕 덕분에 한글로 글을 써 그분을 기린다.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을 몰라 제 뜻을 펴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겨 한글이라는 문자를 창제했고, 자신의 불편함이 아닌 백성의 생활 속 불편함을 헤아려 연구하고 발명하고 제도를 만들었다. 그가 앉은 높은 자리에서는 쉬이 보이지 않았기에 말 그대로 ‘굽어’살핀 한평생, 그는 사랑했고 그리하여 사랑받았다. 동화 같고 봄날 같은 이야기다.

엄격한 유교 국가를 표방한 조선은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 능을 한양에서 100리 이내에 조성했다. 가까운 데 모시고 자주 찾아뵈려 했고, 그 정도 거리여야 하루 이틀만 궁을 비우고 다녀오기가 가능했다. 제4대 세종의 영릉(英陵), 제17대 효종의 영릉(寧陵)이 나란한

경기도 여주는 예외다. 법도를 중시한 나라에서 예외를 둘 만큼 여주가 왕의 격에 맞는 땅이었다는 뜻이겠다. 가장 위대한 왕을 영원히 품어 안은 명당으로 떠난다.

따사롭고 평화로운 풍경, 두 영릉

삶과 죽음이 만나는 능. 초입에는 그저 나무다. 사람보다 오래 살았고, 사람보다 끈기 있는 존재가 능을 지킨다. 그 길을 걸어 제사와 능을 관리하기 위해 지은 건물인 재실을 지나자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간을 가르는 금천 너머 홍살문이 등장한다. 금천교를 건너면서 다시금 마음을 단정히 한다. 홍살문에서 참도가 시작된다. 정자각 위 언덕에 능이 보인다. 약간 높은 왼쪽 길이 제향 때 향과 축문을 들고 가는 향도, 오른쪽이 왕이 이용한 어도다. 정자각에 이르러서는 참도가 오른쪽으로 90도 꺾인다. 감히 능을 정면에서 바라보지 않도록 한 장치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국조오례의>를 모르더라도, 돌아가신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에 동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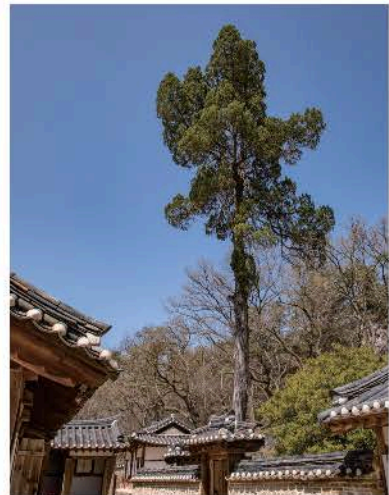
동입서출, 곧 동편 계단으로 올라와 서편 계단으로 내려가면 능을 향하는 오솔길이 나온다. 능의 곡선은 보드랍고, 이를 호위



엄숙하되 짓누르지 않는다.
최선의 자리, 최선의 설계, 최선의
손길이 모인 정점, 영릉은 아름답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여주의 세종대왕 영릉,
신록사와 김아타 작가의
미술관 '아르테논' 등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아티브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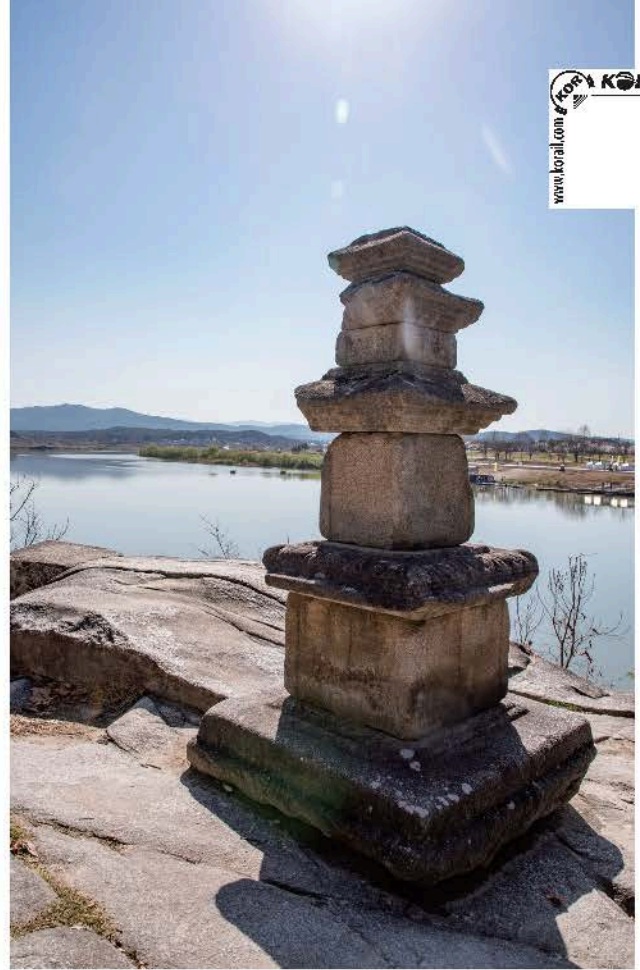
하듯 자란 나무는 향기가 청량하며, 거기 어딘가에 집 지은 새는 조잘조잘 지저귀다. 눈, 코, 귀가 동시에 만족하는 시간. 삶의 결말은 평화라고 해도 될까. 갈지자로 잠깐 오르니 능이다. 별 잘 드는 능에서는 영릉 일대와 맞은편 산까지 봄을 맞아 다양한 빛깔의 자연이 펼쳐진다. 대왕계서 552년간 완상했어도 나날이 새롭고 호뭇하게 즐길 풍경이다.

원래 영릉은 세종의 뜻을 받들어 그의 아버지 태종을 모신 현릉 근처에 조성했는데, 처음부터 자리 논란이 일다가 결국 손자인 예종 대, 1469년 3월 6일 이곳에 옮긴다. 조선 최초의 부부 합장릉이자 천릉이었다. 오죽 신중히 땅을 골랐으랴. 풍수지리에 문외한이라도 명당임이 오감으로 느껴진다. 죽음을 마주하는 공간이 어쩔 이렇게 파사롭고 충만할까. 능을 수호하는

석호, 석양, 문인석과 무인석이 당당하다. 550여 년 세월과 비바람에 깎였음에도 수염이나 옷의 무늬 하나하나가 여전히 감탄스럽다. 엄숙하되 짓누르지 않는다. 최선의 자리, 최선의 설계, 최선의 손길. 모든 종류의 최선이 모인 정점이 아름답다.

세종대왕 영릉과 효종대왕 영릉 사이에는 700여 미터 ‘왕의 숲길’이 이어진다. <조선 왕조실록>은 숙종, 영조, 정조가 거동했다고 기록했다. 뻣뻣한 나무에는 신록이 한창이다. 새순을 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파리가 연둣빛으로 물오르느라 바쁘다. 능은 추모하는 공간이지만 생명의 공간이기도 하다. 넘치는 생명이 능을 채운다.

어느새 효종대왕 영릉이다. 애초 위치에 잘못 조성했다 하여 1673년 효종의 아들인 현종 대에 천장한 능은 야트막한 산의 지형을 살려 왕과 왕비를 아래위로 모셨



다. 배치나 석물 형태가 세종대왕 영릉과 달라, 바로 옆에서 비교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제 모습을 유지한 채실은 조선 왕릉 채실 가운데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되었다. 능 조성 당시 심었다는 회양목과 거대한 향나무가 엄숙함을 더한다. 두 능을 비롯한 조선 왕릉 40기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그 옛날 왕은 능에서, 숲길에서 생각을 거듭했으리라. 선대 왕의 꿈과 업적, 본받을 바, 현재 자신에게 놓인 과제와 기회. 삶이라는 신비와 죽음이라는 또 다른 신비. 이 의미 있고 호젓한 공간에서는 누구나 생각이 깊어진다. 양지바른 곳이니 땀뻗은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광합성을 하면서 기운만 충전하고 가도 물론 좋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 하실 만큼 너그러우시다.

강변의 유려한 천년 고찰, 신록사

영릉에서 여강 건너 직선거리로 약 5.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영릉의 원찰인 신록사가 있다. 원찰이란 돌아가신 이의 명복을 비는 법당을 일컫는다. 세종대왕은 세자 시절 아버지 태종과 한 번, 등극하고 두 번, 합해서 세 번이나 여주를 방문했고, 신록사를 중수하라고 특별히 명하기도 했다. 어머니 쪽 할아버지 댁이 여주라 친숙한 고장이었다.

원찰 이전에도 천년 고찰 신록사의 명성은 전국에 자자했다. 고려 말 공민왕의 왕사였던 큰스님 나옹선사가 1376년 입적한 사찰에는 그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과 그가 심었다는 수령 600년 넘는 은행나무가 있다. 거대한 나무는 두 개 가지 사이로 눈에 들어오는 다른 가지 하나의 형상이 관

세음보살을 닮아 탄성을 자아낸다. 그 오묘한 형상이 아직 세상이 너에게 베풀 자비는 남겨두었다고 위로하는 듯하다.

신록사는 강 많은 한국에서도 유례가 드문 강변 사찰이다. 유유히 흐르는 강 곁에 고즈넉이 들어선 절이 한 폭의 산수화를 그린다. 걸음걸음이 그림이라 한 발 딛고 망연히 바라보고, 다시 한 발 딛고 멈추어 혹 귀한 풍경을 놓쳤을까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강과 맞닿은 암반에는 정자 강월헌과 소박한 생김의 삼층석탑이, 조금 위에는 고려 시대의 당당한 벽돌탑이 서 있다. 앞은 윤슬과 봄빛이 눈부신 강이요, 뒤는 단정한 고찰이라 빈틈없이 꽉 짜인 아름다움이 여행자를 둘러싼다.

절정은 '신록모종(神勒暮鐘)'이다. 날 저무는 저녁 그윽하게 퍼지는 종소리. 강 일대에 어스름이 내려앉는 절경 속에 종이 울리면 감동, 참회, 감사, 위안 같은 추상적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손에 잡힐 것처럼 생생해진다. 내 안의 어딘가 비틀려 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다. 마음의 먼지가 씻겨 나간다. 여주 팔경에 신록모종을 꼽은 이유를 알겠다.

팔경이 전국에 흔하다지만 여주 팔경은 조선 초기 문신 서거정이 '여주 팔영'을 지었

고, 1700년대 중반 지도인 '해동지도'에 표기했을 정도로 유서 깊고 족보가 뚜렷하다. 조선 시대 선비들도 줄지어 신록사를 방문하고 문장을 읊었다. 누각 구룡루의 벽화가 선비에게 사랑받은 독특한 절 신록사의 역사를 대변한다. 구룡루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불교회화뿐 아니라 바둑 두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 어구를 지고 다리를 건너는 사람에다 강가 바위에 누워 책 읽는 사람 등을 그려 놓았다. 친근한 그림도, 누각 기둥을 액자 삼아 내다보는 여강과 경내도 마냥 좋아 구룡루에서 오래 서성인다. 여주 사람은 이 고장의 남한강을 여강이라 부르는데, 실로 고유명사를 따로 붙여야 하는 강 풍경이다.

여주 땅과 강이 선사한 깨우침

만물이 부풀어 올라 천지가 생동하는 계절, 500년의 능과 천년의 사찰을 밟았다. 긴 세월 한결같이 사람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품어 준 땅이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삶을 생각한다는 것의 다른 말이며, 죽음을 향한 예우는 산 자의 자세를 바로 한다. 이 봄이, 생명이 새삼 경이롭다. 여주가 선물한 깨달음이다. ■



●●
서울출발을 기준으로
신분당선을 타고 판교역에서
경강선으로 환승해 세종대왕릉역
또는 여주역에 내린다.



기차로 떠나 더 즐거운 춘천 여행

TV예능 프로그램 <기차로> 촬영 현장에 동행해
강원도 춘천 곳곳을 여행했다.

글. 김규보 사진. 박정우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로> 촬영 현장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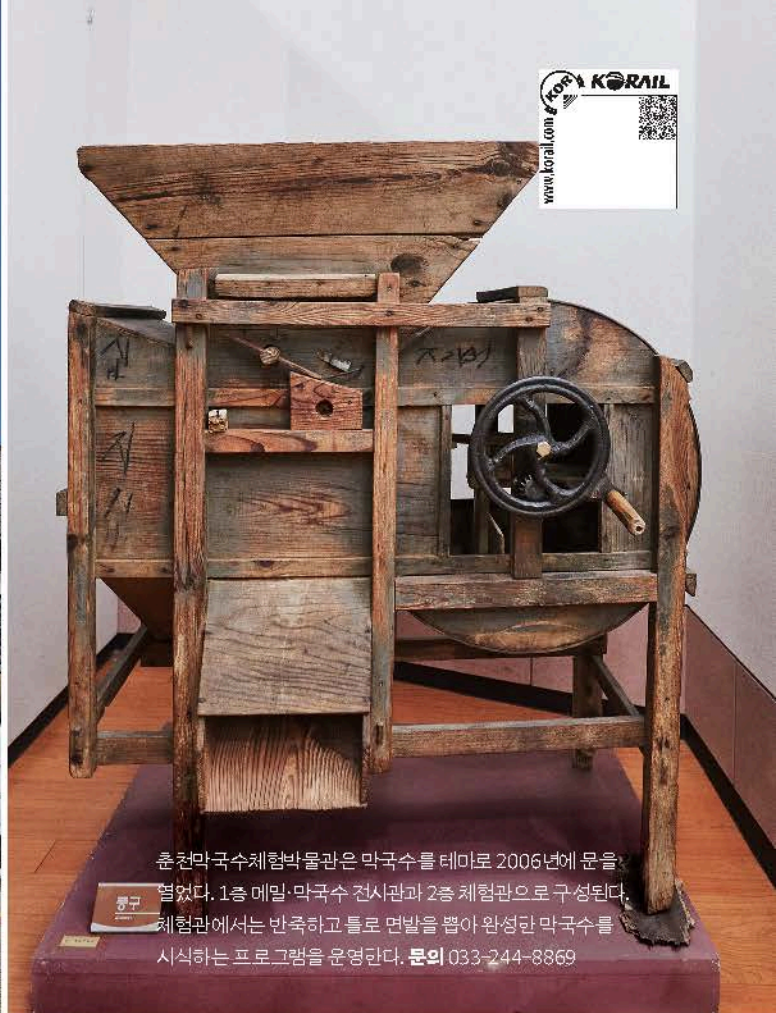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ITX-청춘을 타고 춘천역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신인 시절 닭갈비를 먹으러 춘천에 가곤 했는데요, 그때는 춘천을 가깝고도 먼 도시라고 생각했구요~ 하지만 지금은 서울 용산역에서 ITX-청춘을 타고 한 시간 만에 춘천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기차로 이동하니 시간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낭만도 있고 말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춘천역 앞에서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개그맨 박성호 씨의 멘트가 팔팔 쏟아진다. 함께 출연하는 배우 백현숙, 가수 이만복, 배우 성현 씨가 맞다면서 끄덕끄덕. 닭갈비 먹으러 춘천? 좋습니다. 기차를 타서 즐거운 여행? 아무렴, 그렇고말고요. 현장을 지켜보는 촬영팀의 얼굴에 절로 미소가 어린다. 4월 24일 스마일티브이플러스 채널에서 방영을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 <기차로>의 두 번째 촬영 현장에 동행하는 오늘, 춘천이 미세먼지 하나 없는 하늘을 보여 준다. 환영 선물인 양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출연진이 만드는 유쾌한 분위기를 따라간다. 앞으로 또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될지. 어느새 우리도 끄덕끄덕, 정말 좋은 날이다.

전시와 체험을 모두,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면 뽕는 틀 모양 외관의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에 들어선다. 앞서 출연진은 춘천행 ITX-청춘 안에서 각자 가이드를 맡기로 한 여행지를 공부했다. 준비해 온 책을 읽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서 이따금 차창 밖 풍경을 감상하는 알찬 시간이었다. 스태프들은 그런 출연진을 카메라에 담거나 일정을 논의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콘텐츠 제작 과정은 수고로워도 시청자가 결과물에 만족한다면 고생이 대수랴.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가이드 담당인 백현숙 씨가 1층 전시관에서 강원도 특산물인 메밀을 설명한 뒤 2층 체험관으로 안내한다. 박물관 흥윤기 과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막국수 체험을 이끈다. “설거지하는 것처럼 그릇을 쓱쓱 닦으며 반죽을 뭉치세요. 그래야 한 가닥이라도 더 먹죠.” 고소한 메밀 향에 입맛을 다시던 출연진이 진담 섞인 너스레를 듣고는 한 가닥이라도 놓칠세라 반죽을 다진다. 꺾꾹 누른 다음 어김없이 쓱쓱.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해피 초원목장





해피초원목장은 23만 1400제곱미터(7만 평) 초지에서 한우를 방목하는 체험 농장이다. 소뿐 아니라 양, 당나귀, 토끼, 염소 등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 농장에서 산길을 10여분 오르면 산과 춘천호가 어우러지는 포토스팟이 나온다. 문의 033-244-2122

틀에 반죽을 넣고 웬만해선 꿈쩍 않는 손잡이에 매달린다. 체중에 영혼까지 담아 잡고 늘어지자 틀이 봐주겠다는 듯 슬금슬금 면발을 내놓는다. 면발을 씻고 양념하고 비볐으니 먹는 일만 남았다. 한 번 넣고 감탄, 두 번 넣고 감격, 세 번 넣고 다시 감탄하는 ‘먹방’을 순식간에 완성. 마음도 배부르게 하는 춘천의 맛이다.

춘천의 봄, 해피초원목장

막국수로 불록해진 배를 안고 춘천호 인근 해피초원목장으로 향한다. 주차장에 내려 언덕을 걸어 올라 23만 1400제곱미터(7만 평) 초지에 펼쳐진 목장을 마주한다. 소, 양, 당나귀가 어슬렁대는 비탈에서 잎이 풍성한 나무와 활짝 핀 꽃이 따사로운 계절의 감상을 끌어올린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점점 이어진 길에, 우리도 점 하나를 찍는다. 나긋하게 날아와 얼굴을 쓰다듬는 바람이 달가워 큼직한 웃음으로 화답한다. 봄이 가슴에 닿고 있다.

해피초원목장 가이드를 담당한 성현 씨가 목장 규모와 구역, 기르는 동물에 대해 말해 준다. 성현 씨는 춘천행 기차 안에서도 내내 대본을 읽고 해피초원목장을 연구했다. 기록하다 했는데, 과연 가이드 내용이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 흐뭇해질 만큼 실하다. 성현 씨의 설명과 함께 봄이 절정인 길을 거니는 어느 때에, 아까부터 “스위스 알프스가 떠오른다”라면서 요들송 부를 자리를 찾던 박성호 씨가 출연진을 불러 모은다. 양 떼가 풀을 뜯는 언덕에 서서 들판과 목장 초입을 한눈에 내려다본다. 촬영을 준비하는 동안 양 몇 마리가 다가온다. 잠잠하던 언덕이 목소리를 가다듬는 출연진과 카메라를 세팅하는 스태프로 와글와글해졌으니 궁금할 만하다. 출연진 앞에서 양이 왔다 갔다 하고, 뒤로는 산과 들이 길게 누워 제법 알프스 느낌을 자아낸다. 요들송 듣기에 완벽한 풍경이다. “요호리요 로호로래히리 헤이리~” 출연진이 장단에 맞춰 몸을 흔든다. 때마침 부는 바람이 참말로 시원하다. 가슴에 닿은 봄이 흥겹게 피어나는 것 같다.



기차로

<기차로> 기차길 따라 떠나는 로드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기차 타고 지역 명소와 숨은 여행지, 사람의 이야기를 만난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스마일티브이플러스에서 방영한다. TV아시아플러스와 위(Wee)TV 채널에서도 편성 예정이다.





1960년대 춘천 중앙로의 한 고깃집이 돼지갈비 대신에 닭을 구워 낸 것이 춘천닭갈비의 기원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 중앙로에 전문 식당이 모여들면서 닭갈비는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다. 현재 20여개 식당이 명동닭갈비골목에 밀집해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춘천닭갈비

막국수는 이미 해피초원목장에서 말끔하게 소화됐다. 하기는 잘 놀긴 했다. 그런 덕분에 배가 광속으로 꺼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뿐. 허기에 머리까지 지끈거릴 즈음, 춘천 중앙로와 금강로 사이에 다다라 차에서 내린다.

황금빛 닭 조형물이 보이고, 아래엔 ‘명동닭갈비골목’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가히 시기적절한 장면이다. 드디어 ‘먹방’ 2탄, 춘천닭갈비를 맞이할 시간이 된 것이다. 격한 기쁨을 숨길 수 없어 명동닭갈비골목으로 뛰어 들 뻔하다, <기차로> 촬영을 시작하는 모습에 걸음을 멈추고 숨을 돌린다. 시나브로 지쳐 가도 촬영할 때는 항상 눈을 반짝이는 이들이 착실하게 골목을 걷는다. 닭갈비 가이드 담당인 이만복 씨를 비롯한 출연진이 식당 사람들에게 힘내시라 응원한다.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거리에 뿌리는 밝은 에너지가 쑥쑥 자라나 주길 바랐다.

명동닭갈비골목에 밀집한 가게 중 한 곳을 골라 착석한다. 춘천 하면 생각나는 음식인 닭갈비는 1960년대 중앙로에서 출발한다. 당시 한 고깃집은 돼지갈비가 떨어지자 임시방편으로 닭고기를 돼지갈비처럼 퍼 불에 구웠다. 맛있는 데다 양이 넉넉하고 저렴해 인기를 끈 닭갈비는 1970년대 중앙로에 전문 식당이 모여들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다.

우연한 계기로 세상에 등장한 닭갈비를 온 세상인 듯 우려를 준비가 끝났다. 음식을 기다리는 틈에 김홍철 피디가 닭갈비 삼행시 게임을 제안한다. “닭을 들어 보세요! 갈비는 닭갈비가 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춘천닭갈비!” 이만복 씨 우승. 흥겨운 게임을 마무리하고 닭갈비를 부는다. 닭갈비와 채소에서 배어난 물이 지글지글 끓는다. 슬슬 풀리는 가락국수 사리가 수분을 머금고 닭갈비를 감는다. 이때다. 떨리는 젓가락질로 한 점 집어 먹는다. 터진 살점에서 육즙이 튀어나온다. 화려한 양념이 입안을 감싼다. 두 번째 춘천 ‘먹방’, 명불허전 황홀하다.

봉형개
숙물닭갈비
도민중앙대병원

본가



SINCE 1968
춘천본가 닭갈비
T.033)255-1998

53년 전통
참숯물 닭갈비

명동닭갈비골목



김유정문학촌





김유정문학촌은 ‘봄봄’을 쓴 소설가 김유정을 기리고자 2002년에 설립했다. 김유정의 고향인 실례마을에 위치하며 복원한 생가와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인근에 강촌레일바이크의 기점인 김유정역이 있다. 문의 033-261-4650

실례마을의 추억, 김유정문학촌

‘동백꽃’ ‘봄봄’을 쓴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인 실례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그가 수필 ‘오월의 산골작이’에서 묘사한 대로 아늑하다. 산이 두른 땅 끄트머리에서 수더분하게 올라간 숲이 또 한 번 땅을 둘러싸며 품에 든 생명을 겹겹이 안는다. 별을 쬔 곡식과 드문드문한 집은 봄을 그린 수채화의 물감 같다. 김유정은 서정이 넘실대는 마을을 배경 삼아 작품을 남겼다. 일제강점기 농촌의 암울한 현실을 해학으로 풀어낸 소설의 무대인 마을에 그를 기리는 김유정문학촌이 자리한다.

오늘의 마지막 가이드인 박성호 씨가 출연진을 인솔한다. 기차 안에서 공부했거니와, 이전에 몇 차례 들러 익숙하기도 하다면서 김유정의 삶과 문학촌에 대해 술술 이야기한다. 생가를 돌아보고, ‘봄봄’의 한 장면을 옮긴 조형물 앞에서 역할극도 했다. 그리고 나서 마당 한편 연못의 팔각정에 앉았다.

다시 촬영을 시작한다. 춘천 여행지에서의 마지막 컷이다. 출연진 각자 시청자와 대화를 나누듯 이번 여정을 말한다. “강도 좋고 산도 좋았어요. 즐길 거리와 먹을거리도 많았고요.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드시죠. 앞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전해 드릴게요.” “사실 기차로 여행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차로>에 참여해 여행하니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과 기분이 다르네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요. 기차는 여행의 감성을 살려 줘요. 기차로 계속 여행하고 싶습니다.” 기차는 도시와 자연을 가르며 나아간다. 운전대를 잡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는 동안에 사람과 나무와 들녘은 스치기 쉽지만, 기차 좌석에서는 모두와 맞닿을 수 있다. 바라보니까,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그럴 시간은 충분하니까. 기차역에 내려 만난 도시와 자연은, 그래서 더욱 짙고 넉넉해진다. <기차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아니었는지. 촬영이 끝나고 기차로 돌아간다. 차창 밖에서 사람과 나무와 들녘이 흐르고 있다. ■

눈부시게 찬란한 김천

공기에 설렘이 가득한 계절,
사람 이야기가 벚꽃처럼 활짝 핀 경북 김천을 다녀왔다.

글. 표다정 사진. 신규철



지난겨울 누군가 말했다. 나무만 짝어도 예쁜 계절이 있다고. 그 말을 메모장에 적어 간직했다. 메마른 가지에서 흰 목련이 터지기 시작했고, 돌바닥 틈을 비집고 나온 민들레가 봉오리를 밀어 올렸다. 서로 높이를 겨루듯 솟은 건물이 가득한, 열두 달 고만고만한 풍경의 도시에서 만난 작은 봄이다. 예쁜 계절은 가랑비처럼 젖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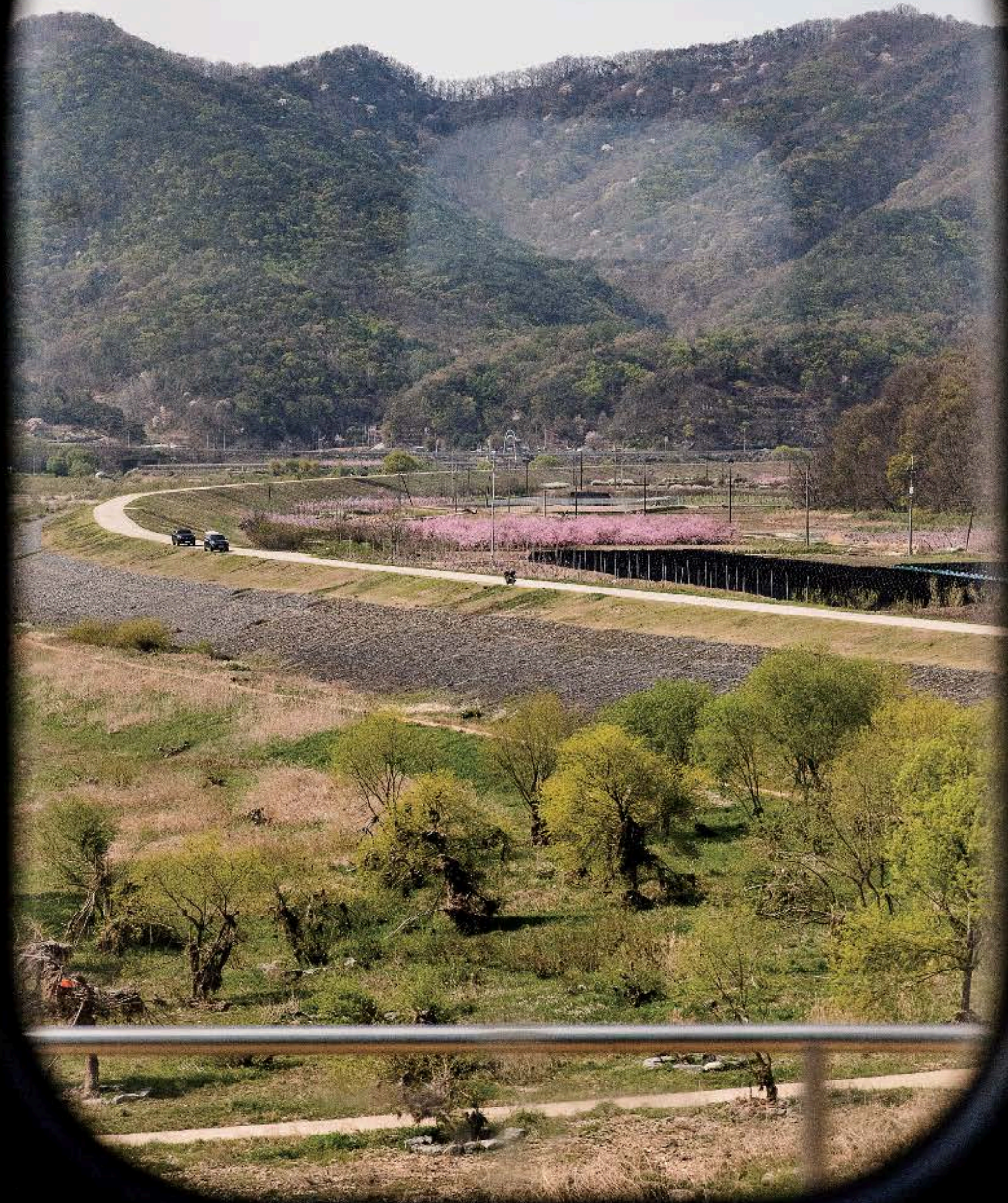
“봄이 돌아오니 어디에고 산맥이 일어서네/ 흰 배의 제비는 처마에 날아들고/ 이웃의 목소리는 흥이 나고 커지네/ 사람들은 무엇이든 새로이 하려 하네/ 심지어 여러 갈래 진 나뭇가지도/ 양옥집 마당에 묵은 화분도”(문태준의 시 ‘다시 봄이 돌아오니’ 중). 김천에서 태어난 문태준 시인의 어느 봄은 그랬나 보다. 나의 이번 봄은 어떨까, 마음속으로 던진 질문에 김천으로 향하는 열차밖 풍경이 답한다. 너의 봄은 이렇다고. 저 능선처럼 부드럽고 복숭아꽃처럼 순순하다고. 흘러보내기 아쉬워 열차의 창문을 프레임 삼았다. 나의 봄. 열차만이 가진 프레임, 김천만이 가진 풍경에 마음이 설렌다.

일상에 쉼을 더하다, 사명대사공원

지난해 6월 황악산 기슭에 사명대사공원이 문을 열었다. 2011년부터 추진한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중 하나로 완공까지 약 10년이 걸렸다. 오랜 시간을 들인 만큼 면적 14만 3695제곱미터(4만 3400평)를 살들하게 꾸몄다. 여행자센터를 지나 공원으로 들어선다. 빌딩이 시야를 가리고 경적이 소란한 도시의 공원과 사뭇 다르다. 시선의 끝은 산이고 하늘이니 수선한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준다. 자분자분 걷다 보면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미중을 나온다. 크고 작은 푸른 잎은 모여 그늘을 드리워 준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위용을 뽐내던 평화의 탑에 다다른다. 높이 41.5미터의 탑은 황룡사구층목탑을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김천(구미)역까지
1시간 30여분이
걸린다.



**나의 봄은 어떨까, 마음속으로 던진 질문에 차창 밖 풍경이 답한다.
너의 봄은 저 능선처럼 부드럽고 복숭아꽃처럼 순순하다고.**



참고해 쌓아 올렸다. 처마 끝에 걸린 풍경에 바람이 스쳤는지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김천시립박물관을 제외한 공원 내 건물은 거의 한옥이어서 어디서나 사진이 잘 나온다. 김천시는 나아가 한옥과 어울리는 한복 대여점을 마련했다. 일반 한복은 물론 무사복 같은 테마 의상과 속치마, 가방, 노리개, 꽃신까지 제대로 갖췄다. 여러 사람이 입는 옷이니 관리가 중요할 터. 오염 상태나 냄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옷감에 따라 세탁소에 맡기고 직접 세탁하기도 하니 믿음이 간다. 옷고름을 정성껏 매 주는 직원의 손길도 상냥하다.

공원에서 가장 깊숙한 데 위치한 건강문화원으로 향한다. 체험동과 숙박동으로 나뉘는 이곳은 힐링을 선사한다. 돔 사우나, 반신욕기 등 다양한 건강 기구를 비치한 체험동의 메인은 라벤더 야외족욕실이다. 중정에서 서까래 너머 파란 하늘을 지붕 삼아 족욕을 즐긴다.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라벤더 입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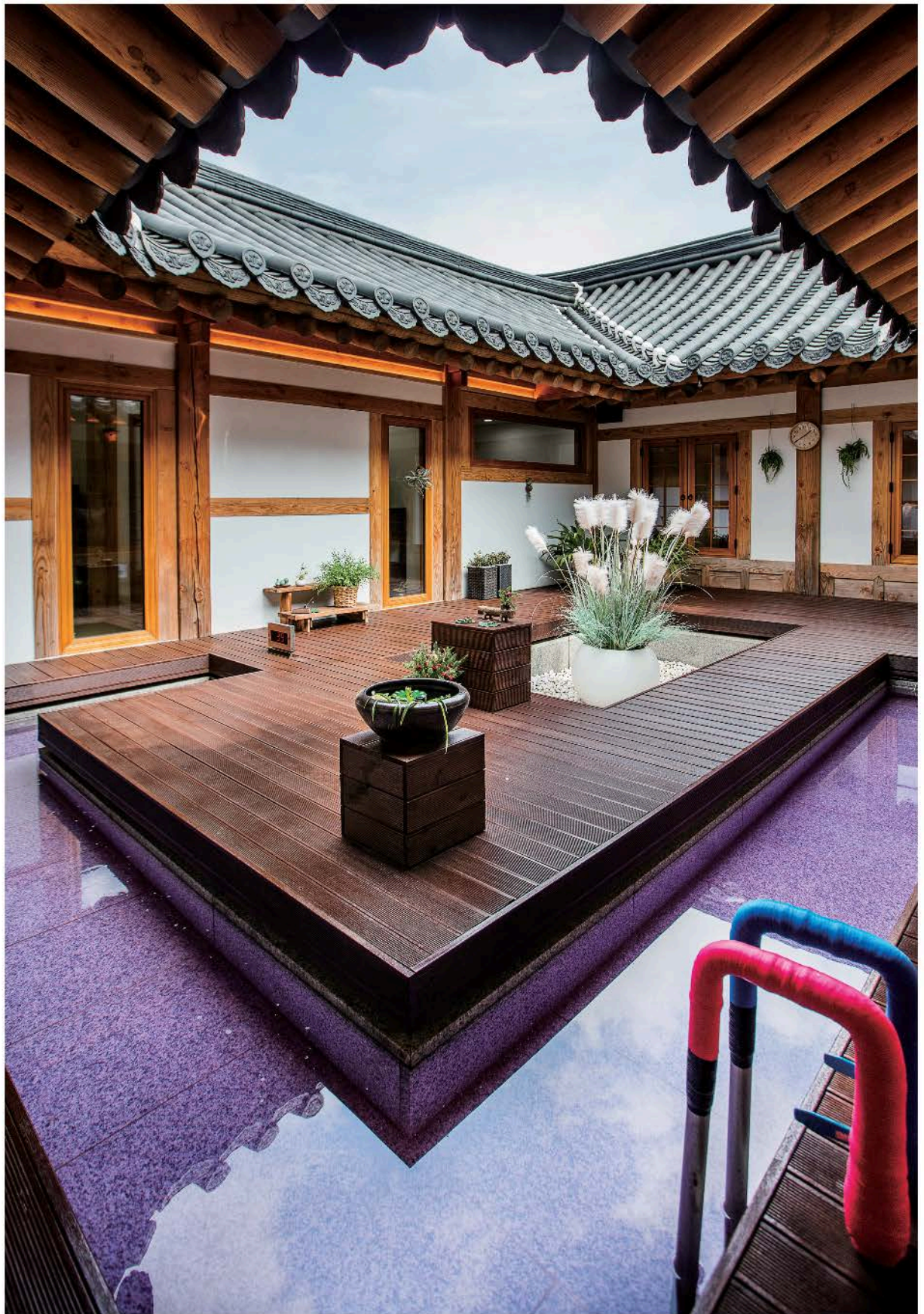


사명대사공원에서는
매주 토·일요일에 초콜릿
만들기, 전통 장 담그기 등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한다.
4월에는 '사명 플라마켓'도
열었다. 문의 054-421-1557

를 뜯은 물은 찬연한 보랏빛. 발을 물에 담그니 봄별이 발등에 고스란히 닿는다. 곳곳에 식물을 둔 덕분에 싱그러움이 배가된다. 발을 담근 모든 이가 적당한 물 온도처럼 온온하게 미소 지으며 말한다. “정말 좋아. 더 있고 싶다.” 돌담 위에 이팝나무 꽃이 만개한 숙박동은 다섯 채로 하나하나 설계에 신경 써 공간마다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구조는 조금씩 달라도 창이 넉넉하다는 점은 같다. 벽이란 벽에는 모두 창을 냈구나 싶을 정도. 그 덕분에 창문 틈으로 햇살이 쏟아져 숙소가 조명을 켜 듯 환하고 구석구석 빠짐없이 파스하다. 창문을 하나 열었다. 이팝나무 꽃, 새순 오르는 나무를 마주한다. 건너 사람과 마주칠까 걱정하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대청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는 일, 아담한 중정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가능한 곳. 머리 위로 지나가는 구름처럼 마음이 평안해진다. 김천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김천시립박물관과 김천에서 재배한 호두를 듬뿍 넣은 빵, 주인장의 아버지가 로스팅



걷다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피로를 녹이는 일, 지역 특산물로 만든 빵을 맛보는 일, 대청마루에 앉아 햇별을 쬌는 일은 이곳이기에 가능하다.





한 원두커피를 즐기는 ‘카페밀’도 지나치면 아쉽다.

어둠이 드리우면 공원은 낮과 다른 색으로 여행자를 반긴다. 하이라이트는 평화의 탑. 사람들이 불을 밝힌 탑과 사랑하는 이를 카메라에 함께 담느라 분주하다. “조금 더 가까이 와 봐.” “저기 서 봐.”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아름답다. 지금 바라보는 김천의 야경처럼 말이다.

계속 걷고 싶은 예쁜 연화지

이 아름다움은 연화지로 이어진다. 조선 시대 초기에 농업용수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곳은 이제 ‘벚꽃 맛집’으로 통한다. 1990년대에 조경을 다듬고 군데 군데 의자를 두어 김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다 벚꽃 명소로 입소문이 나 봄이면 전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봄빈다. 연못 둘레는 570미터. 10분이면 한



바퀴를 돌겠구나 싶었는데, 몇 걸음 가다 멈추길 반복한다. 수천 개의 가지에 매달린 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매년 피는 꽃이 뭐라고 사람을 이토록 홀리는 것일까. 걷는 동안 노란 개나리도 옆을 지킨다. 조명을 받은 꽃처럼 연화지를 따라 걷는 사람들 표정도 환하다. 잔바람에 꽃잎 하나가 빙그르르 몸을 틀며 연못 수면에 내려앉는다. 지상의 모든 것을 투명한 연못에 작은 파장이인다. 졸랑졸랑 잔물결이 가슴에도 닿는다. 떨어진 잎도 다시 보게 만드는 이 계절이 좋다.

봄이라는 계절 아래 사람 이야기도 꽃이 핀다. 창머리 쪽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쬔다 잠들어 버리는 일, 떨어지는 벚꽃을 잡으려다 까르르 터진 말간 웃음. 김천에서 새긴 나의 봄이다. 걷고 멈추길 반복하는 사이 김천이 스며들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다. 기차에서 차창 밖 풍경을 보았을 때부터. 무엇이든 제 색을 더 선명하게 뽐 5월, 김천으로 향하자. **18**

김천의 맛있는 먹거리



비어카스텔 더 테라스



맥주를 좋아한다는 말은 많이 마신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어카스텔 더 테라스' 김동하 대표는 맥주를 좋아하고 맥주만 마시며 직접 맥주를 만든다. 그가 만드는 맥주에서 주목할 점은 김천 대표 특산물인 자두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2017년 김천 밀맥주를 기획한 뒤 개발 기간만 3년이 걸렸다. 도수를 높이고 낮추고, 주재료를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난해 김천 밀과 자두를 발효한 김천위트에일, 김천시 아포음 밀로 만든 바이젠카스텔을 출시했다. 김천위트에일은 자두의 상큼한 향이 온온하게 입안을 감싸고, 바이젠카스텔은 묵직한 보디감이 일품이다. 합성 착향료를 하나도 넣지 않은 착한 맥주다.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더. 김천밀맥주는 앞으로 김천 샤인머스켓, 캠벨포도를 포함한 네 종의 신제품을 비롯해 캔맥주, 병맥주로도 출시할 예정이다.

▲ 김천위트에일 바이젠카스텔(1잔) 2800원 📍 김천시 혁신3로 15 율곡스퀘어 VI 4층 ☎ 054-473-2018



카페자산



자산동 벽화마을의 카페로 향하는 길. 아기자기한 벽화를 구경하면서 언덕을 올라 진한 자주색 복숭아꽃이 반기는 '카페자산'에 도착했다. 우물이 있는 마당을 지나 건물로 들어서며 '2020년 경상북도 건축문화상' 명패를 발견했다. 이하나 대표에게 사연을 물으니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김천 음장의 관사로 사용하다 방치되어 김천시에서 마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손본 것이라고 한다. 약 100년 전 건물에서 커피와 빵을 즐기는 셈이다. 대학에서 외식 조리를 전공하고 오랜 시간 빵을 만 들어 온 동생 이상원 대표가 매일 아침 부지런히 빵을 굽는데, 종류만 20가지에 달한다. 인기 메뉴는 대파크루아상. 대파 흰 부분을 통째로 사용해 비주얼과 맛 두 가지 다 잡았다. 구운 대파의 달큰한 맛에 대파가 빵과 이렇게 잘 어울렸나 싶다. 마을 어르신에게는 사랑방 같은 존재고, 벽화마을에 놀러 온 여행객에는 '인생 빵집' '인생 커피'로 사랑받는 곳이다.

▲ 대파크루아상 3500원 딸기라떼 5000원 📍 김천시 자산3길 36 ☎ 010-4118-9459



수
평

청년 장군이 절명한 시간 속으로 가는 길, 손죽도

조선 시대 장군 이대원의 혼이 깃든 여수 손죽도에서 미제봉과 삼각산, 깃대봉을 잇는 산행을 했다.

글. 신준범 사진. 주민욱(이상 월간 <산> 기자) 진행. 김규보



『건강 여행』은 월간 <山>과 제휴한 칼럼으로 'BAC 섬&산 100' 시리즈를 재편집했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었다. 허공을 옮겨 놓은 듯 파도는 손 놓고 있었다. 가만히 차올랐다 가라앉으며 섬의 굴곡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의 아픔을 알고 있다며, 그들의 이름을 초혼가에 실어 읊는 것만 같았다. “여기가 무구장터여. 이대원 장군의 목 없는 시신, 부하 시체가 널렸던 곳이며. 그걸 주민들이 묻어 주고 무구장터라 이름 붙였제. 장군 목은 왜놈들이 가져갔지라.” <조선왕조실록> ‘선조수정실록’은 1587년 2월 1일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왜적이 고흥에 침범하였는데, 녹도를 지키는 장수 이대원이 막아서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 이보다 앞서 왜선 수 척이 침범했을 때 이대원이 미처 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그들을 쳐서 물리쳤는데, 수사 심암은 그가 자기 공으로 삼은 것을 미워하였다(심암은 그 공을 자기가 세운 것으로 하자고 이대원에게 말했다가 거절당했다). 얼마 안 되어 왜선이 손죽도를 침범하자, 심암이 이대원을 선봉으로 삼고는 뒤이어 응원하지 않았다. 적은 많고 아군은 적어 대적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대원이 전사했다.” 그의 나이 22세였다.

전라좌수사는 수적 열세를 알고도 100여 명의 병사만을 주며 출병을 재촉했다. 장군은 이미 날이 저물고 군사도 적은데 출정하는 것은 무모하니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군사를 더 보아 출정하는 것이 옳다고 간언했으나 강제로 출병시켰다. 장군은 출병하며 수사에게 군사를 이끌고 뒤따라와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수사는 출병하지 않았고 장군과 병사들은 3일 밤낮을 격렬히 싸웠다. 중과부적이었기에 다시 한번 병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라좌수사는 지원병을 보내지 않았다. 생포된 장군은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왜군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죽음을 받아들였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몽산역에서 KTX를 타고 여수엑스포역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



이순신 장군은 이대원 장군을 잃은 것이 국가의 큰 손실이라 하여 이 섬을 잃을 손(損)과 큰 대(大) 자를 써 손대도라 불렀다(이후 손죽도로 바뀌었다).

전망 맥 지나 또 전망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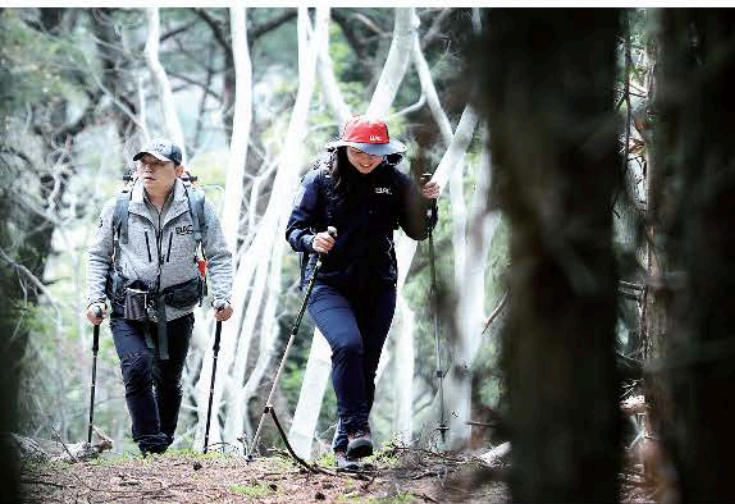
산이 마중 나와 있었다. 두 개의 바위 봉우리인 삼각산이 배에서 내린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 명의 선인이 선 듯, 쌍봉은 독특하면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대원 장군의 현신인 양 보진 바닷바람에도 타협 없이 뜻을 세우고 있었다. 설악산적십자구조대원 문승영 씨, 블랙야크 익스트림팀 손창진 씨와 입도한다. 손죽도의 유일한 산악회인 손죽산악회 회원들이 등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맞아 준다. 송정민 부회장의 안

내로 입산한다. 정갈한 시작이다. 대나무가 많아 이름에 죽(竹) 자를 쓰는 섬답게 대나무 숲이 반긴다. 몇 발자국 들어서니 딴 세상이다. 내륙 산에서도 흔히 듣기 어려운 찹꼬리와 맑은 새소리가 청아하게 울린다. 벚꽃 잎이 축포처럼 흩날리고, 뒤돌아보면 코발트블루의 바다가 펼쳐진다.

귀한 섬산 풍경을 온몸으로 음미한다. 코끝은 향기롭고, 눈은 시원하고, 피부에 닿는 햇살과 바람은 온온하다. 능선은 순하여 땀 좀 뻘 만하니 정상 언저리다. 이제 800미터 왔는데 벌써 정상, 웃음이 난다. 마제봉의 실제 정상은 조금 더 가야 하지만 별다른 표지석이 나 경치가 없어 팔각정이 산행의 정상 역할을 한다. 마제봉을 넘어서자 전망 맥이 쉬어 가라 권한다. 이곳 섬인 소거문도 상산이 힘 있는 산세로 우뚝 솟아 푸른 화폭을 짝 채운다. '손죽마을 전망대'라는 별명답게 파랑과 빨강이 섞인 지붕이 웅기종기 보인 것이 한눈에 드러난다. 그 너머에 육산 깃대봉과 삼각산이 바위산 특유의 현란한 굴곡을 드러낸다.

얼마 안 가 다시 전망대다. 해안 절벽과 순한 송아지 등 같은 산길이 도시에서 온 일행의 굳은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바꿔 놓는다. 실없는 농담과 자연스러운 웃음이 흐르는 섬산의 봄날이다. 손죽도는 숨이 찰 만하면 어김없이 전망대를 내어 준다. '전망 맥의 섬'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망 맥이 많다. 다음은 벼랑 끝에 자리한 목넘전망대다. 섬 동쪽 벼랑에 있어, 주민들이 해돋이 명소로 찾는다. 능선을 내려서자 너른 사거리에 정자가 놓인 지짐이재다. 매년 봄이면 주민들이 꽃으로 전을 부쳐 먹는다는 화전놀이 마당이다. 그래서인지 봄꽃이 산길 구석구석을 수놓았다. 산길 가운데에도 꽃이 꽤 피었다. 다니는 사람이 적어 숨을 쉬는 흠이기에 꽃이 핀다. 개벚꽃, 유채꽃, 뿌리뱅이, 봄까치꽃, 흰민들레, 금창초, 제비꽃, 팽이밥, 장딸기꽃이 피어 산길이 절러풀하다.

지짐이재에서 마을로 내려가 점심을 먹고 삼각산으로 향한다. 손죽도는 배편이 하루에 한두 번밖에 없고,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올 경우 1시간 20분이 걸려 등산객이 많은 산은 아니다. 백패커들이 비교적 자주 찾는데, 대부분 삼각산 전망 맥에 텐트를 치고 일몰과 일출을 보는 것을 정석으로 여긴다.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와 백사장이 있는, 생계를 위한 활동이 멈춘 듯한 마을에서 하는 식사. 싱싱한 풍경 같으면서 한편





으른 쓸쓸한 정적의 시간이 마음에 든다. 나를 가두고 있던 고정관념의 숲에서 빠져나와 바다를 처음 보는 것처럼 행복한 눈빛으로 삼각산에 들었다. 손죽산악회 이안재 부회장은 피 산(山) 자를 닮아 이름이 유래한다고 알려 주었다.

손죽도 산행의 백미, 삼각산

발품을 조금 팔았을 뿐인데 과분한 풍경이 이어진다. 북쪽 해안선 끝 전망 맥에서 다시 바다다. 작은 무인도 몇이 정적에 휩싸여 있고, 시선은 섬과 섬 사이를 훑훑 날아간다. 나른한 날의 나른한 풍경, 하루쯤은 해먹에 누워 생각 없이 누리고 싶은 평화가 깃들어 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바다가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암봉을 돌아 계단에 올라서자 정상 맥이다. 손죽도 최고 전망임을 인정하게 되는 경치가 선물로 놓였다. 미인의 눈썹을 닮은 해변과 마을, 마제봉과 깃대봉을 잇는 부드러운 능선, 거칠게 툭 튀어나온 소거문도 상산까지 시원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자면 얼마나 달콤할까 싶은데 ‘야영 금지’ 팻말이 보인다. 정상을 두고 서쪽 해안선 벚랑으로 내려서니 다시 전망 맥이다. 마침 경기도 의정부에

서 혼자 왔다는 사내의 텐트 한 동이 아담하다. 초도군도가 단정한 검은 실루엣으로 남은 해수면 위로 뉘엿한 햇살이 쏟아지는 평범한 풍경. 어찌나 여운 깊은지 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마을에서 하룻밤 자고 맞은 잔잔한 아침, 무구장터를 찾았다. 한스러움이 느껴지지는 않았으나 인적이 드물어 조금 서늘했다. 장군의 동상과 표에서 짧게 묵념하고 깃대봉으로 향한다. 코코넛 양탄자가 깔린 새로운 산길을 따라 오른다. 손죽도 최고봉답게 가파른 오르막 산길이 지그재그로 이어진다. 약초로 알려진 예덕나무가 유난히 많고, 편백나무도 작은 숲을 이뤘다. 정상에는 해양경찰의 무인 레이더 탑이 자리한다. 최고봉이지만 산행의 재미는 삼각산이나 마제봉에 비해 밋밋하다. 인증 사진을 찍고 임도를 따라 내려서니 어제 왔던 지짐이재다.

꿈 많던 청년 장군의 눈물일까. 흘날리는 벚꽃 잎이 서글프다. 떠나는 길, 선착장의 장군 동상이 떠나는 이들을 바라본다. 죽음을 직감한 이대원 장군이 마지막 3일의 결전 중 썼다는 ‘절명시’가 들리는 것 같다.

“해 저문 진중에 바다 건너와/ 외로운 군사 힘이 다하여 끝나는 일생 슬프다/ 나라와 어버이 은혜 갚지 못하니/ 원한이 구름에 얹혀 풀릴 길 없네”.■

대해에 핀 연꽃, 바닷가 사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각지의 경치 좋은 바닷가 사찰을 소개한다.

글. 김규보

양양_홍련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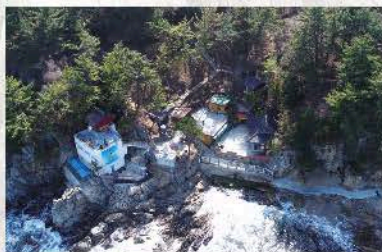
낙산사에서 동쪽으로 난 길을 걷다 보면 해안 절벽에 세운 홍련암을 만난다. 인근 산에서 목격한 푸른 새를 뒤쫓은 의상대사가 이곳 암굴 앞바다에서 관세음보살과 함께 붉은 연꽃인 홍련을 보았다 하여 이름 붙었다. 그가 676년에 창건한 홍련암은 파도처럼 꿈을 거리는 기암괴석과 시아의 절반을 덮은 거대한 동해, 수평선을 뚫고 오르는 태양이 환상적인 조망을 선사한다. 문의 033-672-2447



◎ 세심사

남해_세심사

다도해 절경이 곳곳에 놓인 경남 남해의 자그마한 포구, 세심사가 건너편에서 언덕을 뒤에 두고 바닷물을 바라본다. 바다를 끼고 사찰로 향하는 길부터 잔잔한 물결이 감싸듯 다가오는 대응전 앞까지 모든 공간에 남해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어렸다.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 주는 불교 행사인 방생 법회가 유명해 전국에서 찾는다. 문의 055-867-4937



◎ 동해시정

동해_감추사

영동선 위를 가로지르는 육교에서 내려오자 바다가 바짝 밀려드는 감추해변이 나온다. 해변 오른편 계단을 올라 감추사 해수관세음보살상 너머로 광활하게 뻗은 동해를 감상한다. 신라 시대 선화공주가 지었다 전하는 감추사는 오랫동안 폐사였다가 20세기 들어 중건한 뒤, 바다에 몰다시피 한 전망 빼어난 사찰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문의 033-532-9623



◎ 여수시정

여수_용월사

높이 20미터 해안 절벽에 미끄러질 듯 걸친 용월사에서는 잔잔한 남도 바다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좋은 자리를 찾아 수년간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스님이 절벽과 바다가 잠깐인 이곳을 발견하고 1992년 사찰을 지어 올렸다. 성덕대왕신종 모양으로 주조한 범종 옆 108계단은 절벽에 뿌리박은 나무들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비경을 건넌다. 문의 061-644-2790



수사불패!
김천상무FC가 스포츠 중심 도시 김천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주 슈웅~!





Miniature Shrine and Amitabha Triad, 1468 (Joseon Dynasty), excavated

Miniature Shrine and Amitabha Triad

The miniature shrine has a roof with elegant curves pointing to the sky. If you pull open the small doors, you will see a space designed specifically for the Amitabha triad. The three statuettes are all seated on a lotus flower throne. They are small enough to be placed on your palm, yet have clearly distinguishable features, from their divine gaze to gentle lips. The shrine was found inside a pagoda in Maegok-dong, Suncheon-si, Jeollanam-do Province. Discovered with the shrine were a written prayer containing details about the shrine and statuettes, prayer beads, mirrors, and Buddhist relics. The shrine and statuettes were made 600 years ago by a monk and 277 faithfuls while they were repairing the pagoda. Imagine how grand it must have been: hundreds of faithfuls gathered in front of the pagoda, accompanied by the swirls of incense, flowers, and calming chants. What did they wish for back then? Was happiness granted to all whose names were included in the written prayer? What are some vows you would like to take before these statuettes?

History Culture Gallery 2, Permanent Exhibition Hall, Gwangju National Museum
Miniature Shrine and Amitabha Triad, 1468 (Joseon Dynasty), excavated
from Maegok-dong, Suncheon-si, Jeollanam-do Province
For inquiries, contact 062-570-7034

culture

146

이산하 시인이 만난 김아타 작가

156

영화 10편으로 본 한국의 가족

164

찬란한 문화 위에 만개한 예술, 타이 방콕







실험하고 격을 깨다 아티스트 김아타

한 번 부서지면 낡은 것이 가고
두 번 부서지면 새로운 것이 온다.
김아타 작가는 끊임없이 스스로 죽이고
또 스스로 태어난다.

글. 이산하(시인) 사진. 이규열 진행. 김현정





반짝이는 별들은 언어의 배열이고 사진의 배열이다.
그러나 저 별들은 이미 수만 년 전에 죽은 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별빛에 감탄하는 것은
허공의 상갓집에 조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쩌면 예술도 이미 소멸했거나 곧 소멸할 세계의 허상을
뒤늦게 조문하는 의식인지도 모른다.
단지 작두를 타고 하느냐, 타지 않고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예리한 통찰과 깊은 성찰

나는 최근에 나온 시집 <악의 평범성> 속에서 이 세상
최고의 시는 'e=mc²'라고 썼다. 시인의 상상력이 과
연 빛의 속도를 추월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던졌
다. 예술의 2대 적은 '중력과 광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중 하나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의문은 풀리지 않았
다. 물론 젊은 20대 시절에 딱 한 번 중력에 도전한 적
이 있다. 내 데뷔작인 '존재의 놀이'라는 장사에서 테
니스공을 통해 중력을 거스르는 발칙한 시도를 했다.
40년이 흐른 지금 생각해 보면 중력의 역린을 건드린
꼴이었다. 참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잡아먹히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난 중력에 굴종했
고 광속에 굴신했다.
스님처럼 삭발한 김아타 사진작가를 얼마 전 여주에

서 만났다. 거기에는 그의 개인 미술관 '아르테는(Art
+Parthenon)'이 있다. 절벽의 검은 봉쇄수도원 같기도
하고 아우슈비츠의 가스실 같기도 한 '블랙마운틴'
전시장은 방문자의 숨을 잠시 멎게 한다. 육중한 문으
로 들어가자 천장 높이가 12미터나 되는 거대한 암실
은 어둠도 복면을 쓰고 있는 듯했다. 묵언 수행 같은 침
묵이 20분쯤 흐르면 천천히 빛이 들어온다. 아니다. 원
래 잠복한 빛에 내 눈이 적응한 것이다. 벽면을 가득 채
운 작품이 서서히 그 존재를 드러낸다. 고대 퇴적층의
탁본인 듯 무너진 바벨탑의 잔해인 듯 쿠비즘의 추상
화인 듯 경계가 모호하다. 애당초 선부른 규정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작품들이다. 한마디로 '판단중지'였다.
김아타 작가는 기존 사진계를 발각 뒤집어 일찍이 '요
주의 인물'로 주목받았고 그만큼 배척당했다. 끊임없
이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연출과 구성으로 새로운 철
학적 화두를 던지며 독창적 사진 미학을 구축해 왔다.
아무도 밟지 않은 히말라야 설산의 외로운 눈표범 같
은 이단아다. 눈표범에겐 자신 외에는 천적이 없다. 그
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죽이고 또 스스로 태어난다. 예
리한 통찰의 눈과 깊은 성찰의 마음이 거기서 비롯된
다. 작품은 그 반영일 뿐이다.
들판에 나체의 사람들이 흠뻑려진 '해체' 시리즈, 법당
의 불단에 앉은 나체의 남녀들과 역시 나체가 웅크린
투명 아크릴 상자를 전시한 '뮤지엄 프로젝트', 미국
뉴욕·프랑스 파리·인도 델리 등 인파가 북적이는 변화



아타보이(Attaboy)

너무 맑아서/ 알은 줄 알고/ 들어갔다/ 한없이 가라앉는다.

-이산하





**시인의 상상력이 빛의 속도를 추월할 수 있을까. 예술의 적, 중력과 광속.
김아타 작가는 빛이 찍는 사진으로 중력을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가에서 하루 8시간 셔터를 열어 놓은 ‘온 에어 프로젝트’, 팔판대장경 <논어> <반야심경> 등의 모든 글자를 촬영해 하나로 겹친 ‘인달라’ 시리즈, 얼음 불상을 설치해 녹아서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 준 뉴욕 루비미술관 로비의 ‘아이스 붓다’, 역시 얼음이 녹아서 사라지는 ‘아이스 파르테논 신전’...

이런 발칙하고 대담한 상상력과 유니크한 작업에 세계가 흥분했다. 뉴욕의 국제사진센터(ICP)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개인전을 열었고, 빌 게이츠가 그의 사진 한 장을 1억 원에 구입했다. <뉴욕타임스>가 “철학적 사유가 극히 참신한 작가”라고 격찬하며 대서특필했다. ‘세계 100대 사진작가’에 선정됐고,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초청으로 6개월간 특별전도 열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자 그의 손은 카메라 대신 캔버스를 들었다. 세계 도처에 빈 캔버스를 2년씩 세워 두는 ‘온 네이처. 자연 하다’ 시리즈 작업을 했다. 사람의 손을 거부하고 자연 스스로 캔버스에 흔적을 남겼다. 바람이 할퀴고 햇빛이 화상을 입히고 비가 식히고 눈이 포근히 감싼 흔적이다. 상처의 피라미드다. 그게 작품이었다. 또 전방 부대의 포사격장에 캔버스를 세워두고 포탄과 파편에 찢긴 형묘 조각을 수거해 작품으로 발표했다. 일반 규정으로 보면 사진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치미술로 보기에 작가의 손을 너무 타지 않았다. 작가가 한 일은 장소를 찍어 캔버스를 설치하고 몇 년 뒤 수거한 것밖에 없다.

혹시 이런 작품 경향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개념 규정이 있느냐는 내 물음에 김아타 작가는 전혀 망설임 없이 “없다”라고 했다. 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말로 해석했다. 그가 자신을 사진가나 화가 대신 ‘아티스트’로 부르는 데 익숙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자주 자기 자신을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김아타는’이라 부르는 삼인칭 화법에서도 그의 존재론적 자신감은 넘친다. 1917년 남성 소변기에 ‘샘’이라고 써서 우아한 전시회에 출품한 마르셀 뒤샹이 불쑥 떠올랐다. 그 작품이 지금도 세계 미술 역사상 최고작으로 자주 선정된다.

오체투지의 긴 고행 끝에 김아타 작가가 ‘온 네이처. 자연 하다’ 시리즈 작업으로 들어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면벽 수행인지도 모른다. 순례 끝에 자연이 있었고, 그 자연과 하나가 되어 소멸해 가는 캔버스 같은 ‘나’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 곧 ‘나’와 ‘자연’의 동질



이산하 시인 1982년 등단해 1987년 20대 푸른 시절 제주 4·3항쟁을 소재로 장편서사시 <관라산>을 발표하고 옥고를 치렀다. 한동안 펜을 꺾었다가 1999년 두 번째 시집 <천둥 같은 그리움으로>를, 최근 <악의 평범성>을 냈다. 사회, 사람, 역사를 직시하는 시를 쓴다.

성이 지닌 미학을 재발견하는 반가사유상의 입구에 당도한 것이다. 그는 긴 고행 끝에 비로소 원점에 이른 것이다. 이제 ‘김아타는 김아타’를 놓아도 된다! 그게 ‘백정의 미학’이다(“전설 속 백정은 살코기를 발라내면서 칼의 날을 세운다고 했다. 나도 그 전설을 찾아 길을 나선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작업은 나의 백정질이다. 나는 살코기를 발라내면서 날을 세우는 백정질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라 믿었다. 나는 그것을 백정의 미학이라 이름했다.” -김아타, <백정의 미학> 중).

존재의 경계를 허물고,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는

내 시 중에 ‘최후의 만찬’이 있어서 김아타 작가의 ‘최후의 만찬’이 유난히 눈에 밟혔다. 나체의 모델 13명이 예수와 12명의 제자 역할을 서로 번갈아가며 연기한 65장의 사진을 포개서 완성한 사진이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원작과 달리 형태만 있고 형상은 없다. 인물의 차이를 해체해 존재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것이다. 동양적 사유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김아타만의 독특한 사진 미학이다. 내 시에서도 당연히 예수와 유다가 나온다. 한 청년 화가가 예수의 모델을 성당에서 찾아 초상화를 그렸고, 그 화가가 노인이 되자 이번엔 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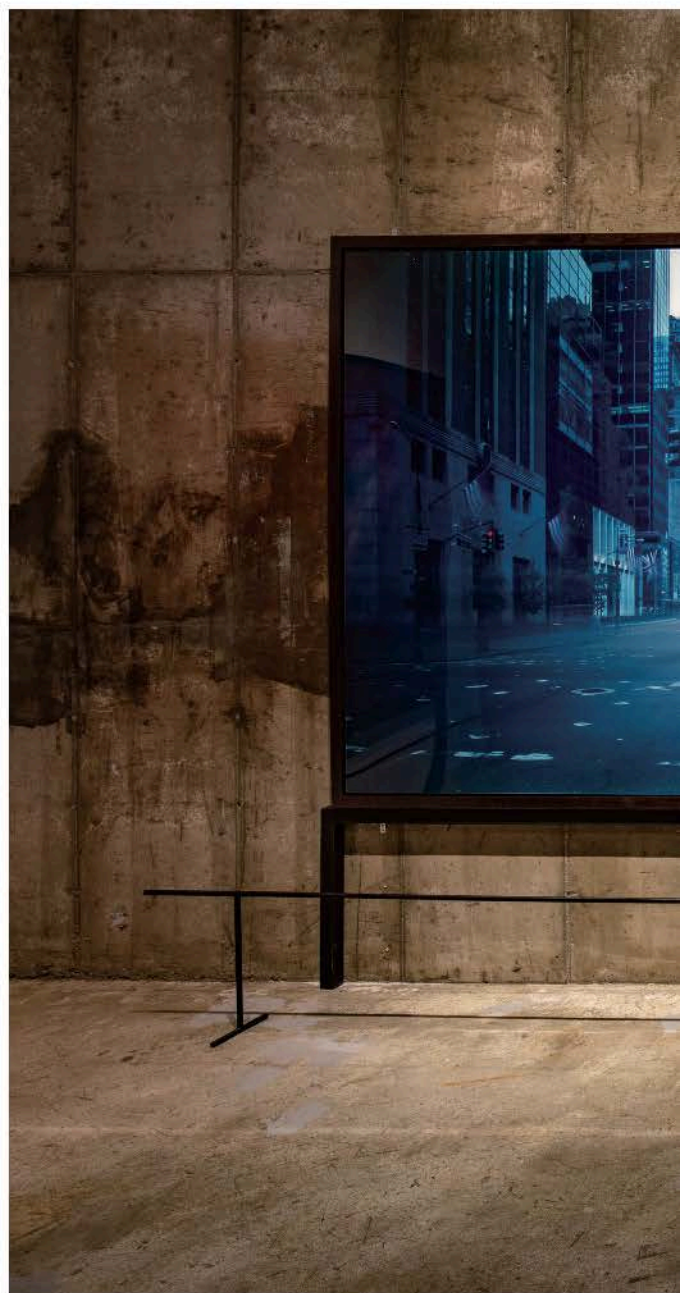


의 모델을 감옥에서 찾아 초상화를 그렸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델이 똑같은 인물이었다는 게 시도입부다. 두 작품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악의 평범성’이다.

내가 작업할 때 늘 기대는 2대 슬로건이 있다. “모든 사유는 뒤늦은 사유(afterthought)”라는 해나 아렌트의 말과 “언제나 이미(always already)”라는 자크 데리다의 말이다. 이것이 예술가가 중력과 광속에 굴신하지 않는 출발점이다. 사진은 빛이 찍는 것이다. 김아타 작가의 지금 그 빛을 이용해 중력을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예술가는 바람이 없는 날이면 바람개비를 들고 달리며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게 진짜 아티스트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마음을 만나러

바로 그 점에서 김아타 아티스트의 가장 좋은 사진은 아직 찍히지 않은 사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시는 아직 쓰이지 않은 시다. 아직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마음을 만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더 이상 추가





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멀어낼 게 없을 때가 완 벽에 이르는 순간이다. 한 번 부서지면 남은 것이 가고, 두 번 부서지면 새로운 것이 온다. 새로운 화두는 자신을 부숴 나를 버리고 죽일 때 온다. 그것을 위해 김아타 작가는 동양사상과 열역학 제2법칙을 결합해 녹인다. 그렇게 나를 절멸해야 적멸에 이른다. 나는 블랙마운틴에 서 내 영혼을 적출당했다. 다시 어느 날 문득 저 복사꽃 밭에서 길을 잃고 싶다. 소멸된 나를 찾을 때까지. 11

김아타 존재의 본질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이를 작품에 옮겨왔다. 미국 뉴욕·인도 델리 같은 도시를 8시간 노출해 촬영한 '온 에어 프로젝트', 시막·술 등에 캔버스를 2년간 설치해 자연의 흔적을 담은 '온 네이처, 자연 하다' 시리즈 등 독창적 상상력과 주제, 작업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2006년 뉴욕의 국제사진센터에서 동양인 최초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09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받아 6개월간 특별전을 선보였다. <뉴욕타임스>는 "동양사상을 예술로 승화했다"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경기도 여주에 자신의 미술관인 '아르테논(Art+Parthenon)'을 열었다.



ARTIST ATTA KIM

EXPERIMENTING AND PUSHING BOUNDARIES

I met the photographer Atta Kim, who had his head shaved like a monk, in Yeosu. That's where he opened his private museums: Arthenon and Black Mountain. The artist has developed a unique photographic aesthetics by raising philosophical questions with his experimental, unconventional approach. *The Museum Project* displays nude men and women in a temple setting or crammed into acrylic boxes; *On-Air Project* presents eight-hour exposures taken at crowded locations in New York, Paris, and Delhi; and *Ice Buddha* at the Rubin Museum of Art in New York shows the melting process of an ice sculpture of Buddha. His bold imagination and unique practice have made him a worldwide sensation. He was the first Asian to hold a solo exhibition at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Photography (ICP) in New York, and one of his works was bought by Bill Gates at one hundred million won. A feature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 praised him as an artist with a novel "philosophical shape of work." He was included in the list of the world's top 100 photographers by Phaidon Press, and received an invitation to hold a special six-month exhibition at the Venice Biennale i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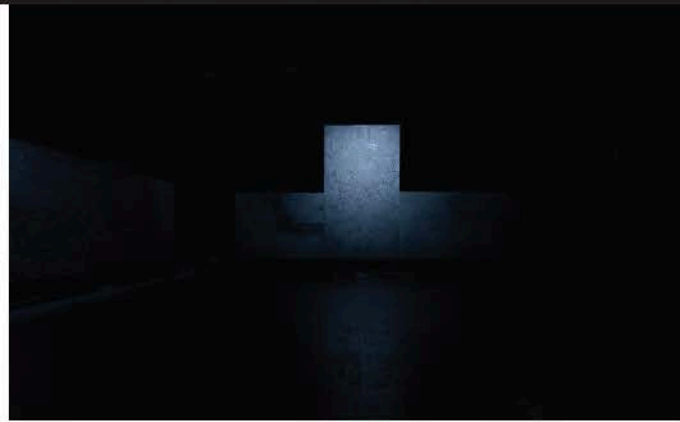
In the 2010s, Kim picked up a canvas instead of a camera. He

set up empty canvases around the world for two years as part of a series titled *The Project: Drawing of Nature*, which lets nature leave spontaneous traces. The canvases are clawed at by wind, burnt by the sun, cooled by rain, and enveloped in snow. The result is a pyramid of wounds. He also placed canvases at the gunnery range of a front-line unit, and collected pieces of cloth punctured by shells.

When I ask if there is a conceptual framework behind his artistic inclinations, Kim replies, "None." The artist's undertaking of *The Project: Drawing of Nature* was perhaps a natural stage of his pilgrimage, in which the assimilation of canvases in nature led to the discovery of his roots.

I am especially drawn to Kim's "Last Supper" as I myself have written a poem under the same

© 김이태 Arthanon (Art+parthenon)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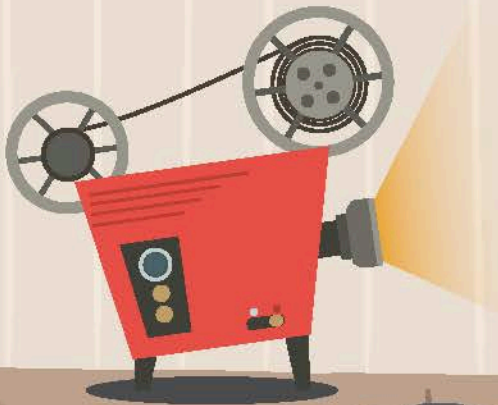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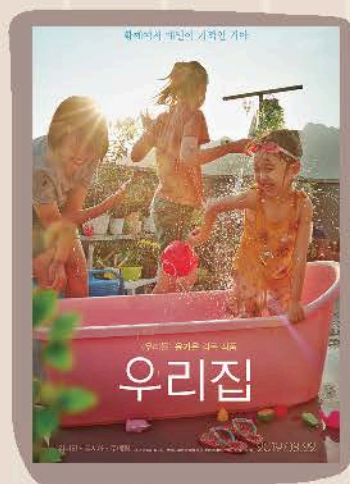
title. He asked 13 models to take turns playing the role of Jesus and the 12 apostles, and layered 65 images on top of one another to achieve a vague impression, lacking the individuality of the original painting. In doing so, he had blurred the boundaries of existence. In my poem, a young artist hired a model in a church to draw a portrait of Jesus. Many years later, he had a prisoner pose for him as Judas. The two models turned out to be the same person. And so, a common theme running throughout our works is the banality of evil.

My writings revolve around two slogans: "Every thought is an afterthought" by Hannah Arendt, and "always already" by Derrida. Artists are those who transcend gravity and the speed of light. As we all know, photography is the art of capturing light. Kim, with his expert use of light and shadow, is winning in the fight against gravity. Even on windless days, artists will run out with pinwheels to create their own wind. In this sense, Kim is a true artist.

New questions emerge when you have the courage to let go of yourself and shed your inhibitions. Kim achieves this feat by integrating orientalism an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Black Mountain won my heart, and took over my soul. I hope to someday lose my way in its sea of peach blossoms, until I reconnect with my inner self. ■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그 이름, 가족

최초의 사랑과 최초의 상처를 주는 존재, 가족.
가정의 달을 맞아 10편의 영화로 한국 가족의 변화상을 짚어봤다.
글. 김현정





감독 양주남
출연 문예봉, 유선옥

엄격한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시대, 여성에게 집 밖은 위험한 곳이었다. 모를지기 여성은 아버지 말 따르며 살다 결혼해서는 남편, 나 이 들어서는 아들 말을 들어야 했다. 물론 집 안에서. 주인공 애순은 이 새장을 박차고 나간다. 데파트(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거기서 남자를 만나 아예 가출한다. 구박만 하는 남편과 달리 이 남자는 아를 답다고 해 주는걸? 일제강점기에 이토록 파격적 캐릭터라니 놀랍지만, 마무리는 비극이다. 본인 실수로 딸이 크게 다치자 돌아온 애순은 독약을 먹는다. '신여성'의 말로가 이렇다는 듯. 모든 신여성이 부도덕했을 리 없다. 영화는 이전과 달라진 여성상을 선보이되 부정적 면모를 부각해 징벌한다. 그럼에도 자기 의지를 갖고 집 밖으로 발 딛는 여성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이 향후의 변화를 예고한다.



감독 강대진
출연 김승호, 황정순

무뚝뚝하고 못 배웠으나 부성에 깊은 아버지는 한국 영화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릭터다. 이런 아버지의 원조가 <마부> <로맨스 빠빠> <박 서방> 등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김승호에게서 탄생했다. 300편 넘는 작품에 출연한 전설의 배우다. <마부>에서는 딸 둘, 아들 둘의 아버지로서 탈 많은 집안을 이끌어 간다. 가정 폭력에 시달려 친정에 도망 온 큰딸, 신분 상승을 꿈꾸는 허영심 넘치는 작은딸, 불량한 작은아들. 그의 희망은 고시를 준비하는 성실한 큰아들이다. 큰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 가족의 성공으로 여겨 오로지 거기 매달리는 모습은 한국 소시민의 초상이다. 아버지 중심으로 뜯 뜯 뭉쳐 성공하고 행복해지자, 우리네 아버지가 눈물 나게 고생하셨네 하는 이야기는 지금껏 이어져 한국 영화의 한 장르가 된다.



감독 김의석
출연 최민수, 심혜진

드디어 여성에게 번듯한 직업이 생겼다. 그전 한국 영화에서 여성은 주부거나 가사도우미(당시 말로 식모)거나 호스티스였다. 주인공 지혜는 성우다. 방송국 피디인 남편 태규와 가사를 분담하고, 의견이 다를 땐 자기 생각을 당당히 주장한다. 직장인 방송국에서 태규와 마주치고 그가 자기 엉덩이를 툭툭 치면 지혜도 태규 엉덩이를 똑같이 치면서 애정을 표현한다. 이쯤이면 일상이 즐거울 법한데 가사 분담부터 상대를 대하는 태도까지 관계는 항상 묘하게 기울어 있고 지혜는 답답하다. 나는 침대처럼 가구의 일종인가? 결국 이혼하는 두 사람. 마지막엔 로맨틱 코미디답게 '너 없인 못 살겠어' 하지만 영화는 결혼이 불평등한 면을 지녔으며, 이 때문에 이혼할 수 있음을 말한다. 여성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도 있다고.



감독 김지운
출연 박인환, 나문희

각박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 오랫동안 한국인의 의식에 가족은 (현실이 못 따라줄지언정) 따스한 울타리였고,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그려져 가족은 선이고 가족을 깨거나 괴롭히는 일은 악이었다. 이 공식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가 <조용한 가족>이다. 명예퇴직(했을 듯)한 아버지는 지방 산장을 구입해 숙박업에 뛰어들다. 첫 손님을 맞은 흥분도 잠시, 이튿날 손님이 시체로 발견되고 당황한 이들은 영업에 지장을 줄까 봐 그냥 묻어버린다. 한 번이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나고 살인으로 발전하는 건 금방이다. 외환 위기 사태가 가족에 미친 영향을 반영했다 하겠으나, 한 발 나아가 경제 공동체로서 가족이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통찰을 제시한 영화다. 21년 뒤 <기생충>이 만들어졌다.



감독 권철인
출연 장진영, 엄정화

한국 사회에서 통념상 평범한 궤도를 벗어난 이는 불편한 시선을 받곤 한다. 특히 결혼과 출산 문제는 더하다. '적당한' 나이가 되면 '적당한'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주인공 나난과 동미는 스물아홉 여성이다. 적당이라는 선이 끝나간다고 세상이 조금하게 구는 나이. 믿기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그 나이가 되고 후들감을 떨었다. 덩달아 초조해진 가운데 연인과 이별하고 직장도 잘 풀리지 않아 고민하는 나난 앞에 그럴싸한 남자가 나타나고, 동미는 비혼 상태에서 임신한다. 이제 식 올릴 차례네 하는 답을 영화는 뒤집는다. 나난은 일에 승부를 걸어 보고 싶고, 동미는 아이 아빠가 사랑하는 상대가 아니라 비혼모가 되기로 한다. 둘은 동지로서 서로 곁을 지킨다. 결혼이 영화 결말이고 삶의 필수 과정이던 시대가 지나간다.



감독 김태웅
출연 문소리, 고두심

미라에게 5년 만에 동생이 찾아온다. 스무 살 연상의 아내 무신을 데리고. 이걸 그렇다 했다. 다음이 가관이다. 무신의 전 남편의 전 부인의 어린 딸인 채현까지 떠맡는데, 정작 동생은 도망친다. 아무 상관 없는 세 사람은 어찌라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평생을 '사랑밖에 난 몰라' 한 엄마와 그런 엄마 때문에 지친 딸이 등장한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괴로운 게 가족이라 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딸은 홀가분해질 기회를 얻지만 배다른 동생 경석이 눈에 밟힌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채현과 경석이 연인이 되고, 앞선 에피소드 인물의 후일담을 보여 준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미미하게 섞였어도 이들은 가족으로 살고 있다. 가족의 확장. '피는 물보다 진하다'를 넘어서 '함께한 시간은, 연인은 피보다 진하다'.



감독 봉준호
출연 김혜자, 원빈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엄마를 창조했다'라는 말로 엄마에게 부담을 지우고, 수많은 엄마는 스스로 바람직한 엄마상을 설정해 지나치게 노력하고 좌절도 해 왔다. 회생적이고 숭고한 모성이 기 본값. 물론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은 지극한 것이어서 이를 절절히 표현한 <말아톤> <엄마> <집으로...> <미나리> 같은 작품은 눈물과 감동을 자아낸다. 그럼 모성은 성역인가. <마더>의 엄마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혼자 키운다. 마을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아들이 용의자로 몰리자 엄마는 누명을 벗기려 움직인다. 엄마의 절박한 심정이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하다. 그 절박함으로 엄마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성공하고, 그만큼 미쳐 간다. 엄마라는 단어의 온기 이면에 숨겨질 수 있는 집착, 광기를 영화는 묻는다.





감독 김태곤
출연 김혜수, 마동석

비혼인 스타배우 고주연은 외롭다. 나이는 한살 한살 먹고, 어린 애 인은 바람이나 피우고, 인기는 하향세... 어디에도 내 편이 없다. 남 이 떠받들어 준 인생, 바로 옆에서 스타일리스트·매니저·소속사 대 표가 극진히 모시건만 주연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가 떠올린 해결책은 임신. 비혼 여성 연예인에게 얼마나 험난한 길일지 주변 사 람은 보이는데 주연은 고집을 부린다. 입양은 거절당하고 산부인과 에서는 임신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주연이 우연히 만난 이가미 성년 임신부 단지다. 단지는 남자 친구의 외면과 세상의 질타에 시달 리고 있었고, 주연은 그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제안한다. '철없 는' 고집이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 비혼모, 미성년의 임신, 무책임 한 아빠의 행태라는 묵직한 주제가 대중 영화로 들어왔다.



감독 정승오
출연 장리우, 이선희

형제란 무엇인가. 또 장남은. 딸 넷에 아들 하나. 건적이 나온다. 아들 낳자고 계속 출산한 집안이다. 아버지 묘를 이장하러 오랜만에 네 자 매가 시골에 모인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동일한 출발점을 지녔음에도 넷은 살아오면서 처지도, 성격도 한참 벌어져 있다. 형제 가진 사람 대부분이 느끼는 신비다. 다들 속 시끄럽고 사정이 분주해 얼른 이장 문제를 처리하고 싶으나 큰아버지가 호통을 친다. "어떻 게 장남도 없이 무덤을 파내!" 그 장남은 현재 지절한 상황에 도피 중 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장남에 집착하는 윗세대가 못마땅해도 장 남 겸 막냇동생을 찾아 나서고, 길 위에서 갈등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리듬감을 만들어 낸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화해시키는 영화가 아니 다. 가부장제 이후의 가족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



감독 윤가은
출연 김나연, 김시아

영화가 가족 모습을 드러내는 장치, 밥상.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장면이 화해나 행복의 지표로 쓰이곤 한다. 실제로도 식사 시간은 가 족 구성원의 관계를 보여 준다. <우리 집>의 주인공 집은 밥상부터 썰 렳름하다. 열두 살 하나네는 부모님이 특하면 싸우고, 유미 자매네는 경제사정으로 이사를 자주 다닌다. 어른들은 바쁘고 삶이 고달파 아 이를 돌보지 못하고, 세 어린이는 가족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려 계획을 세우고 서로 돕는다. 물론 이런 노력이 부모 사이를 돌아키거 나 가족에게 닥친 경제 위기를 해소할 리만무하다. 그렇다고 그 과정 이 무의미하진 않다. 셋이 떠난 가솔 여행에서 돌아온 유미가 하나에 게 묻는다. "그래도 언니는 우리 언니 해 줄 거지?" 내 가족은 내가 만 든다. 이들은 같이 밥을 먹고 기댄다. 이것이 가족의 새로운 정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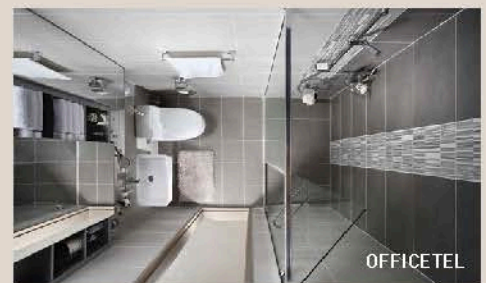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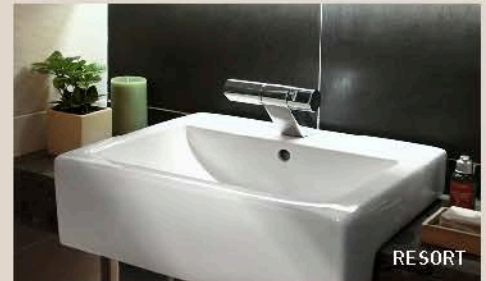


Good morning
&
Good night.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떠 하얀 세면대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과가 끝난 저녁엔 피로를 씻어내는
샤워로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
LEEHYUN BATH



‘시스템욕실(System Bathroom)’이란?

욕실의 모든 구성부재 및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가공하여 현장설치/완성하는 건식 공법

TPR방수판 열융착공법 열가소성수지를 열융착 방식으로 제작하여 욕실의 다양한 형상 및 크기에 적용 가능

PU복합판넬 접착성이 우수한 PU와 타일을 일체화시켜 방수, 단열, 차음, 방균 성능이 뛰어난 벽판넬

천장: 독특하고 다양한 디자인, 세련미와 편안함이 어우러진 인테리어 욕실 천장

TEL. 02-923-3855~7

건식 욕실 시공의 장점

습식공법의 방수성능 저하 해결, 공간간 비간섭, 인력수급문제 등 해소, 복잡한 공정의 단순화, 격조있는 고품격 욕실 구현

특히 및 인증 현황

기술연구소 인정서, INNOBIZ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관련 특허 21건, 디자인 32건 보유

곡우(穀雨)

윤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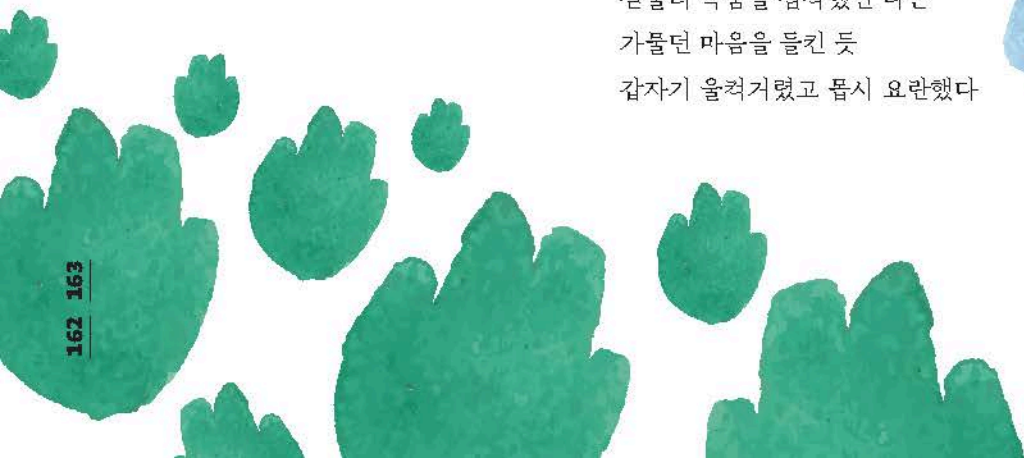
그때 처음 수돗물을 틀어 놓고 울었다
오래 저장된 눈물이 있다는 듯
견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수도꼭지처럼 잠글 수 없는

잠든 아버지의 파리한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숨 막히는 병실을 빠져나와
복도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았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어머니 없이 입원한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 했다
저물녘 나는 병실 앞 복도에 기대어
아버지 없이 못자리를 해야 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잠시 머뭇머뭇했더니
니 아버지 죽는다냐?

정말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 줄만 알았다

다 때가 있는 것인데
선불리 목숨을 집착했던 나는
가물던 마음을 들킨 듯
갑자기 울척거렸고 몹시 요란했다



같이 여행을 가려고

엄마와 아빠, 형, 누나, 언니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 이들이 곁에 없다면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글. 이우성(시인) 진행. 표다정

병원에 계시는 아빠가 다시 쓰러지셨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이 일그러져서 몸을 구기는 느낌을 받았다.

그걸 허탈이라든가 괴로움 같은 단어로 일축할 수 없다.

간병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를 바꾸어 달라고 말했다.

아빠는 내 이름을 불렀다. "우성이냐?"

그리고 뜨겁한 의식으로 설명해주었다. 재활 치료를
받다가 종종 생기는 일이라고. 아빠가 병원에 입원한 후
의식이 그렇게 명확한 적이 없는 거 같다. 내가 걱정할까봐,
그게 싫어서 의식을 단단히 붙잡고 말한 걸까?

윤석정이라는 시인이 있다. 내가 데뷔했을 때 문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 내 기준에서 좋은 시를 쓴다고
생각하는 시인이다. 종종 만났는데 나는 무엇보다

석정 형의 산적 같은 덩치가 좋았다. 보통 그럴 땐
듬직하다고 표현하지만 석정이 형은 덩직하다는 문장보다

어울리는 형질을 찾기 어렵다. 첫 시집 <오페라 미용실>은
인상적이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몇 주 전에 형의 사인이
적힌 두 번째 시집이 도착했다. 제목은 <누가 우리의

안부를 묻지 않아도>이다. 새삼 안부를 묻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적고 몇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국우'라는 시를 읽고 거실 소파에 앉아 밤에 혼자 훌쩍었다.

듬직한 석정이 형이 수돗물을 틀어 놓고 울었다니까.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어머니 없이 입원한
아버지"라는 시구에서 느껴지는 현실감이 무겁고 아팠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로서는 연유를 속속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냥 무엇인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나에게

는 더 슬픈 문장이 아래 있다.
"니 아버지 죽는다냐?"

죽긴 왜 죽어. 기교 없이 덩덤하게 뻗은 말이가슴을
건드린다. 안다. 저 말 안에 얼마나 큰 슬픔 덩어리가 놓여

있는지. 불안한 예감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전, 확인해 보는
마음. 덩덤해야만 한다. 불안하게 흐느끼며 물으면 예감을

마음. 덩덤해야만 한다. 불안하게 흐느끼며 물으면 예감을

마음. 덩덤해야만 한다. 불안하게 흐느끼며 물으면 예감을

마음. 덩덤해야만 한다. 불안하게 흐느끼며 물으면 예감을

마음. 덩덤해야만 한다. 불안하게 흐느끼며 물으면 예감을

마음. 덩덤해야만 한다. 불안하게 흐느끼며 물으면 예감을

마음. 덩덤해야만 한다. 불안하게 흐느끼며 물으면 예감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저 한마디에는 한 생과 나란히 앉은
여러 생의 운명이 걸려 있다. 상심하지 말자, 상심할 이유가

없어, 상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인 거지? 어렵고 낯설고 당황스러운 감정이 몰려와

서로를 괴롭게 만드는 상황.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덩덤하게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내 상황 때문에 이시가 더 애절하게 읽혔을 수도 있다.
유사한 상황은 누구에게든 찾아온다. 거대한 이별의

순간을 먼발치에 두고 그것이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삶이니까. 그래서일까. 아빠가 병원에 입원한 후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빠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이라고 말하기

싫고, 이제 나는 그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내 삶을 나누어 드리고 싶다.

여행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직 어렵다면, 한편으로는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을 테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러니 갑자기 중학교

국어 시간처럼 이시가 주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남은 여행의 시간에 감사하자는 말이다. 엄마와 아빠, 형,

누나, 언니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 누군가 곁에 없다면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여행의 시간은 줄고 있고,

이것은 부득이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아직 손잡을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은가. 윤석정 시인의 시집
제목처럼 '누가 우리의 안부를 묻지 않아도' 물론

살아가겠지만, 누구나 안부를 물어봐 주길 원하지 않을까?
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 황망히 서서 끝난 여행을

바라봐야 한다. 감정적인 이야기인데 소중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 빈자리를 바라본다.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화려한 전통 위에 예술이 만개한 **방콕**

푸른 하늘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원. 찬란한 문화를 발판 삼아 현대 예술가가 타이 방콕에서 나라를 펼친다.

글. 김수진(태국정부관광청) 진행. 이내경



↑ 클롱 옹앙(Khlong Ong Ang)

도시의 생명줄이던 운하가 예술의 거리로 재탄생했다. '클롱 옹앙'은 방콕이 건설되던 18세기 라마 1세 시대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운하 지역이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운하가 오염되자 서울 청계천을 벤치마킹해 단장했다. 산책로로 조성한 운하 양쪽 거리의 벽에는 그림을 그려 넣었으며, 주말엔 야시장이 열려 방콕 시민의 삶에 녹아들 수 있다. 조경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방콕 차이나타운과 리를 인디아사이에 자리 해 방콕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즐길 거리 많다.



↑ 타이 창의 디자인 센터 (Thailand Creative & Design Center)

타이 디자인의 모든 것을 만난다. 오래된 우체국 건물 일부를 '타이 창의 디자인 센터' 방콕 지점으로 사용하는데,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디자인 서적 도서관, 창작 공간, 갤러리 등으로 구성된 센터에서 특히 도서관은 명소. 반투명 유리로 감싸 개방적이면서 감각적이다. 전 세계 디자인 관련 서적과 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이의 디자인 산업과 디자이너를 지원하고 양성한다.

방콕은 220년 동안 타이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다.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짜오프라야강 주변으로 고층 빌딩과 호화로운 왕궁, 사원이 조화를 이루며 들어섰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은 타이 아티스트는 곳곳을 독창적이고도 다채로운 작품으로 물들인다.

→ 방콕 조각 센터(Bangkok Sculpture Center)

타이는 청동기시대부터 조각의 역사가 시작된, 전통이 유구한 나라다. 약 4000제곱미터(1200여 평) 부지에 세운 '방콕 조각 센터'에서 타이 조각의 역사를 살핀다. 튀어나온 눈, 두꺼운 입술을 가진 몬족 얼굴을 형상화한 듯한 11~12세기 드바라바티 양식의 불교 조각품부터 현대 작품까지 수집해 전시한다. 타이 현대 조각의 선구자 키엔 임시리,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타완 두차니 등 여러 작가의 작품도 공개해 볼거리가 풍부하다.





Film x Train



리스본행 야간열차에서 꿈꾼 지금과 다른 삶

운명이 결정되는 드라마틱한 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소할 수 있다. 영화 <리스본행 야간열차>의 주인공이 그랬듯.

글. 전찬일(영화 평론가) 진행. 김규보



<리스본행 야간열차>, 빌레 아우구스트 연출, 2013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이순이 다 되도록 일상에 그토록 충실했건만 어느 한순간의 어떤 사건에 의해 일생일대의 일탈을 감행하는 한 남자를 축으로 펼쳐지는 감동·여운 가득한佳作(佳作)이다. '유럽 문학의 현대 고전' 등으로 평해지는, 파스칼 메르시어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했다.

스위스 베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전문학을 강의하며 별 새로운 게 없는 일상을 살아온 그레고리우스가 <리스본행 야간열차>의 주인공이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 죽으려 하던 낯선 여인을 구하지만, 그녀는 붉은 코트와 수십 년 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출판된 책 한 권, 15분 후 출발하는 리스본행 기차표를 남겨 두고 사라진다. 난생처음 맛보는 강렬한 끌림에 그는 그 의문의 여인과 책의 저자를 찾아 리스본행 기차에 오른다.

제목만으로는 기차가 주인공이어야 마땅하다. 한데 기차의 양적 비중이 미미하리만치 작다.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플롯은 채 3분도 되지 않는다. '야간열차'라면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밤 풍경은 한 장면이 전부다. 도대체 왜 제목에 열차를 내걸었을까? 기차의 질적 함의에서는, 지금껏 소개한 그 어느 영화 못잖다. 약 2000킬로미터의, 베른에서 리스본까지 물리적·외(면)적 이동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적·내(면)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가 다름 아닌 기차이기 때문. 영화 속 기차의 내포적 의미가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원작도, 영화도 그런 삼삼한 제목을 내세운 것일 테다.

그레고리우스는 기차 안에서 아마데우 프라두라는 작가이자 의사가 쓴 <언어의 연금술>을 읽으며, 그 문제의 책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그의 내레이션을 통해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이전의

경험과 장소는 과거일 뿐, 대부분은 잊혀진다.... 무엇을 할 수 있었으며, 뭘 해야만 했을까.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고, 깃털처럼 자유로웠으며, 불확실함에 버거워했던 그때, 단지 꿈같은 바람일까? 인생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내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하길 바란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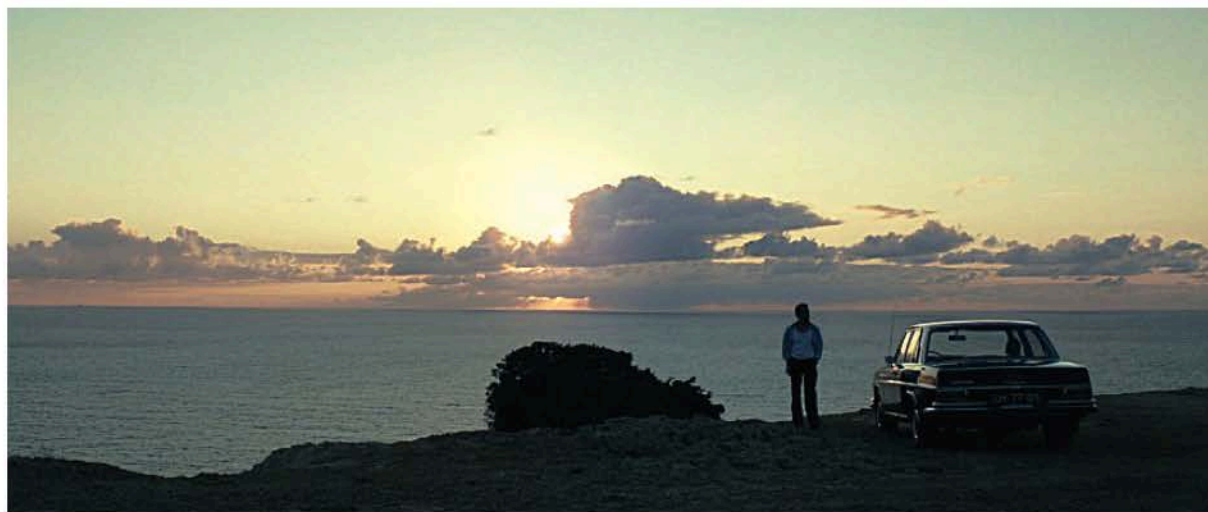
몇몇 구절만으로도 책은, 그레고리우스를 뒤흔든다. 이제 그의 호기심은, 영화 후반부에 정체가 밝혀지는 문제의 여인에게서 책의 저자에게로 무게중심이 옮겨진다. 이후 영화는 책 속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가며, 그 어떤 웰메이드 스릴러 못잖은 긴박감·긴장감으로 유려하게 전개된다. 그 과정이 어쩌나 흥미진진한지, 이 영화에 주어진 인색한 평가가 못마땅하기조차 하다. 무엇보다 사건이 주로 포르투갈에서 펼쳐지건만, 영어로 일관하는 등 영화의 부자연스러운 선택 탓이 컸을 듯. 다국적 배우·스태프들과 작업하는 데서 기인했을 그 부득이함(?)을 양해하고 감상한다면 영화는 충분히 즐기고 감동하기에 부족함 없다. 스위스·포르투갈 합작 영화지만, 감독 빌레 아우구스트부터가 덴마크 태생 아닌가. <정복자 펠레>와 <최선의 의도>로 1988년과 1992년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며, 총 8명의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 2회 수상자(3회는 아직 없다) 중 한 사람인 명장.

영화 수준에서야 비교하기 조심스럽지만, 관람하는 내내 오손 웰스의 걸작 <시민 케인>(1941)이 떠올랐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복합적 드라마 구조도 그렇거니와 연기의 맛도 최상이다. <행운의 반전>으로 1991년에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안았던 제러미 아이언스만이 아니다.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멜라니 로랑, <벤허>의 잭 휴스턴, <레드 스파이>의 살렛 램플링, <프라하의 봄>의 리나 올린, <베를린 천사의 시>의 브루노 간츠, <히든 라이프>의 아우구스트 달 등 명배우의 열연이 기대 이상의 감흥을 선사한다.

원작에 힘입어 전해지는 주옥같은 대사는 어떤가! “꼭 요란한 사건만 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운명

이 결정되는 드라마틱한 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소할 수 있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삶에 완전히 새로운 빛을 부여하는 경험은 소리 없이 일어난다. 그 놀라운 고요함 속엔 고결함이 있다.”

그리고 보니 회갑을 맞이한 내 삶을 결정지은 그 무엇도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만난 한두 권의 책, 한두 편의 영화였다. 가령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 같은 것들. 그레고리우스는 결국 나일 수 있고, 나아가 우리 모두일 수 있지 않을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리 잠자가 그렇듯....



Busan: More Than The Ocean

Article and photos by **David Light** (Korea Travel Qrator,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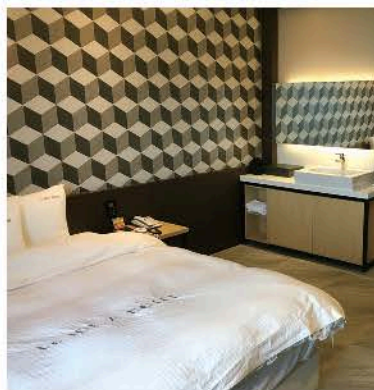


Sometimes it's good to travel without a plan. When I went to Busan, I didn't know exactly what I intended to do. At the same time, I had an interest in getting to know Busan as more than simply "the city next to the ocean." The first thing I knew when I arrived in Busan is that I wanted a bath at some point. My hotel room had a large tub that I expected to make use of, so I used my phone to search the location of the nearest Lush where I could buy a bath bomb. That's how I ended up in the area known as Nampo Market. I had never heard of Nampo Market before, but it turned out to be a shopping district. It's a busy series of streets crammed with retail outlets of all sorts and plenty of street food carts in between. Even though I'm not very into shopping, I tend to enjoy walking around these markets to bath in the electric atmosphere of the crowd. While wandering, I discovered some people in red coats working as tourism guides. I told them that I enjoyed photography and asked where some nice places for pictures might be in the area. They told me that Busan Tower was a short walk away. Busan Tower is the counterpart to Namsan Tower in Seoul, which I had incidentally just visited the day before. The path to Busan Tower was a short one, and the tower itself had fewer attractions than the one on Namsan, but the observation deck still offered a beautiful view of the city and the opportunity for a few great nighttime shots. Had I discovered the character of Busan? At least in part, I think yes. There's so much more to Busan than the ocean. I'm not sure I would have discovered that if I had simply spent time at the ocean. ☹️

Traveler's Room

Le Idea Hotel I was not disappointed. Le Idea Hotel more than lives up to the promises it makes in the photographs posted to booking sites. As for the rooms themselves, pictures may be worth more than words in this case. The bed and pillows strike a similarly perfect balance between being too soft and too firm. The interior design is both modern and elegant. All in all, Le Idea Hotel was exactly the sort of comfort-focused experience that I was hoping for, and at a fraction of the cost to what I would usually expect. Add to that, the remarkably convenient location of being right next to the train station, and I can't imagine that I could recommend a better place to stay in Busan than Le Idea Hotel. **051-441-0708 www.idealbusan.com**

• Korea Quality, certifi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s a certified designation system that helps tourists select high-quality facilities and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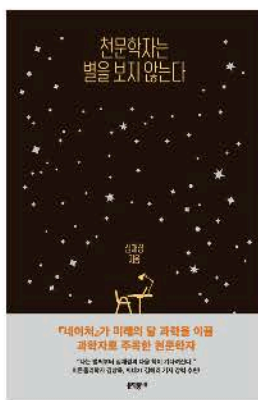




당신의 일상에는, 늘 **타라**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책부터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다이어리까지
인쇄와 종이, 그 이상의 가치를 담기 위해
오늘도 타라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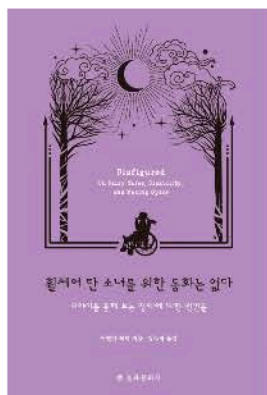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매일 모니터와 씨름한다. 연구 제안을 작성하고 논문을 심사할 땐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까 걱정한다. 날마다 별을 관찰하는, 낭만적일 듯한 천문학자의 일상은 대략 보아 우리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천문학자인 저자는 자신의 일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의심하며 모두 경이로울 수 있다 믿는다. 우리는 지구라는 멋진 우주선에 올라탄 여행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유를 담은 에세이다. 우주만 한 위로를 건네받는 것 같다. **심재경** 지음 **문학동네** 펴냄



<밤으로의 자전거 여행>

강이 온하수와 만나는 날, 사람들은 등불에 물고기를 그려 강에 띄우는 축제를 연다. 물고기를 낚다 물에 빠진 등불 장인을 기리기 위해. 강을 따라 흐르던 등불이 온하수로 올라 밤하늘의 별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날, 벤과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고 등불을 따라간다.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걸까? 말하는 곰, 괴상한 마법사가 등장하는 빛과 밤의 판타지 세계가 몽환적인 그림으로 펼쳐진다. 놀라운 상상력에 감탄이 계속 나온다. **라이언 앤드루스** 지음 **조고은 옮김 예프 펴냄**



<월če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는 목발을 짚었고 '백설 공주'에서 사악한 왕비는 흉하게 변장한다.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의 악당, 얼굴 흉터가 짙은 사자는 이로부터 스카(Scar, 상처). 장애인들은 동화에서 자신을 본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나쁜 사람이다. 뇌성마비를 앓는 저자가 장애인 입장에서 동화를 읽어 준다. 모를 수 있어도 알면 외면하기 힘든 사실, 동화 속 이야기에서 아름답게 변해야 하는 건 왜 항상 개인일까. 세상이 아니라. **어벤다 레지** 지음 **김소정 옮김 율유문화사** 펴냄



<내가 사랑한 동물들>

사랑한다는 말은 흔하지만,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아 나누는 일은 귀하다. 농부의 딸로 태어나 일흔일곱 살인 지금껏 동물을 사랑한 이가 있다. 내가 즐기는 애완이라기보다, 서로 알아가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랑이다. 어미가 죽어 미음을 먹여 기른 개는 닭이 곡식을 먹지 못하게 지키곤 했다. 아버지가 만년에 아낀 고양이는 아버지의 피곤한 어깨를 자주 밟아 주었다. 작고 약한 생명이 안타깝게 돌보면, 동물은 기적처럼 보답했다. 바로 그 동물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다. **전순애** 지음 **송송책방** 펴냄

EXHIBIT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들이다: 풍경과 정물>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5387점 중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제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풍경화, 정물화, 공예, 조각 56점을 선보인다. 연대를 기준 삼아 서술하듯 구성하지 않고 장르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는 전시는 1부 풍경화와 2부 정물로 내용을 구성했다. 유약에 열을 가해 색을 만든 권순형 작가의 추상회화 '해변풍경'과 봉합 기술을 반영해 한국 도예의 확장을 시도한 김익영의 '화기일식' 등을 만난다.

기간 8월 22일까지 문의 02-2124-5201(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집·주명덕 사진전>

사회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출발해 산과 들을 다니며 가장 한국적인 것을 기록해 온 사진작가 주명덕의 대표작을 모았다. '나의 사진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진가로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온 작가는 1968년 안동, 1992년 경주 등에서 변하는 풍경 속에 자리한 변하지 않는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집을 둘러싼 빛, 사람들의 따뜻한 표정에서 땅과 사람에 대한 작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기간 6월 27일까지 문의 031-798-2581(경기도 광주 닷미술관)



<흙의 일상>

도자를 바탕으로 조각, 회화, 설치 그리고 건축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작업하는 이한정이 흙으로 일상의 풍경을 구현했다. 가마를 이용해 전통 도자를 굽는 한편, 그 과정에서 벌어진 틈이나 흘러내린 유약 같은 우연한 요소를 수용한 작품 10여 점을 통해서다. 도자로 이뤄진 방, 위에 놓은 음식과 식기까지 모두 백토로 제작한 테이블, 인물상, 동물상이 상상력을 자극하며 흙의 무한한 변용을 보여 준다. 기간 8월 22일까지 문의 02-736-5700(서울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네거티브 스페이스 SPACE IN PERSPECTIVE>

강은혜·애나한·엄익훈 작가가 사진, 건축, 조각, 회화에서 오브제를 제외한 빈 공간을 일컫는 '네거티브 스페이스'의 예술적 가능성을 조망한다. '네거티브 스페이스는 관찰자 시점이나 인간의 행위에 의해 비로소 존재를 드러내는 공간'이라 정의한 덴마크 심리학자 에드가르 루빈의 개념에서 출발했다. 공간에 무수한 점이 중첩되거나 벽과 창이 빈 공간을 잇는 작품 32점을 통해 인지하는 순간 의미가 되어주는 숨은 공간과 조우한다. 기간 6월 30일까지 문의 054-745-7075(경주 우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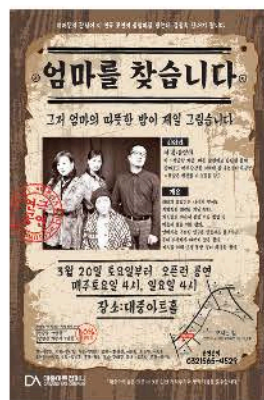
SHOW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엔통이의 동요나라 2>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꾸준히 선보인 '어린이 음악회 시리즈'의 신작이다. 2018년 인기리에 초연을 한 <엔통이의 동요나라> 두 번째 작품으로, 친숙한 동요를 편곡한 국악을 국립극장 캐릭터 '엔통이'와 함께 부르며 즐긴다. 프로그램은 전래 동요부터 이번 무대를 위해 새롭게 작곡한 창작 동요까지 총 열여섯 곡으로 풍성하게 구성했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주제곡 '바나나차차'의 국악 버전이 기대를 모은다. **기간** 5월 1일~9일 **장소** 서울 국립극장 문의 02-2280-4114



<엄마를 찾습니다>

포스터 속 '엄마를 찾습니다' 문구가 시선을 끈다. 혐의도 조목조목 적혀 있다. 자식을 위해 인생을 몽땅 걸어 희생한 혐의, 엄마라는 주요 임무를 맡았음에도 부서져라 몸을 아끼지 않은 혐의 등이 가슴을 울린다. 후니와 서니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가 행방 불명됐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전하는 연극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기간** 오픈 런 **장소** 인천 대중아트홀 문의 032-565-4529



<드라큘라>

강렬한 조명, 스펙터클한 무대장치, 100퍼센트 수작업으로 완성한 화려한 의상에 눈을 뗄 수 없다. 2014년 한국 초연 후 매 시즌 폭발적 관심과 화제를 모은 뮤지컬이 1년여 만에 라인업을 강화하고 네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400년 넘는 기간 동안 한 여인을 사랑한 드라큘라 역을 김준수·전동석·신성록이 애절하게 연기하고, 구애를 받는 미녀 역을 조정은·임혜영·박지연이 연연한다.

기간 5월 18일~8월 1일 **장소** 서울 블루스퀘어 문의 02-6467-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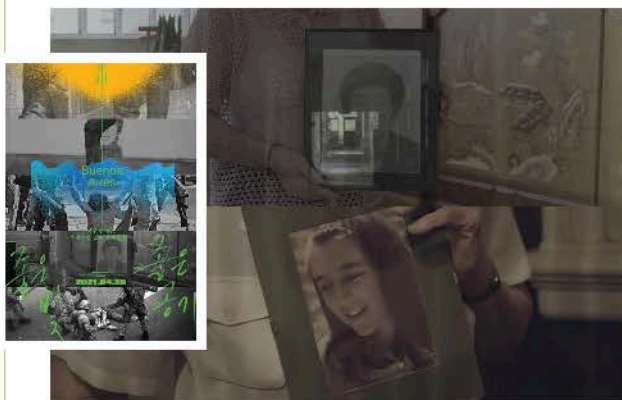
<본색>

부산시립무용단이 '춤 브랜드화'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를 반주 삼은 1부 '파사, 백송'은 한 편의 수목화처럼 가냘픈 춤 선이 굵다면, 2부 '용호상박'은 천하를 두고 당대 영웅과 호걸이 다투는 박진감 넘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형상화한 춤이 판소리 '적벽가'와 어우러져 무대를 장악한다. 우리 춤에서 그 가치와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기간 5월 27일~28일 **장소** 부산문화회관 문의 051-607-6000

MOVIE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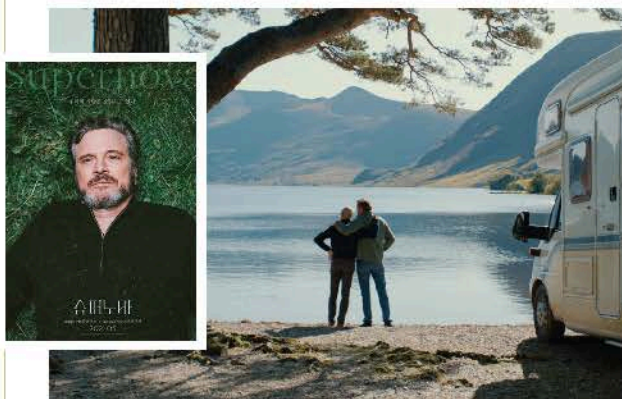
<좋은 빛, 좋은 공기>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감독의 신작이다. 임 감독은 한국 광주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경험한 아픈 역사에 주목했다. 1980년 전후,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두 도시에서 군부 정권에 맞서 세상을 바꾸려 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눈물겨운 당시 상황을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하는 동시에 현재진행형인 투쟁의 현장도 보여 준다. 두 도시의 아름다운 자연이 영상미를 더한다. 4월 28일 개봉. 감독 임흥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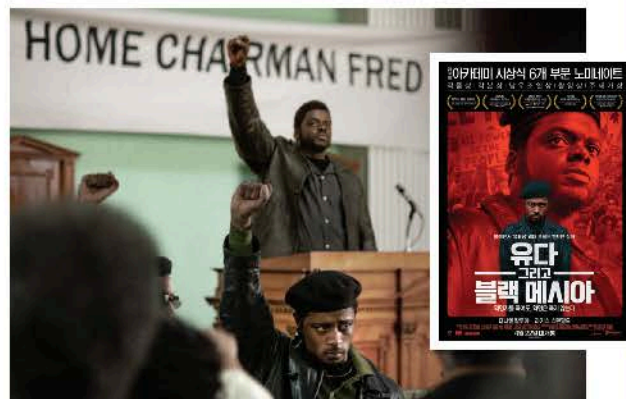
<아이들은 즐겁다>

아홉살 다이는 바쁘다.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방과 후엔 친구들과 신나게 뛰놀며 우정을 쌓는다. 병원에 입원한 엄마와 일하는 아빠를 대신해 가끔 집안일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이와 친구들이 어른 몰래 집을 나선다. 다이의 엄마를 만나러가는 길, 엄마에게 줄 선물을 소중한게 챙긴 다이와 곁을 지키는 친구들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평균 별점 9.95점의 높은 평가를 받은 네이버 동영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5월 5일 개봉. 감독 이지원 출연 이경훈, 박예찬



<슈퍼노바>

오랜 시간 함께한 연인 터스커와 샘이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광활한 풍경을 감상하는 커플의 모습은 언뜻 평범해 보인다. 사실 이 둘에겐 커다란 걱정거리가 있다. 터스커는 기억을 점점 잃어 가고, 그런 자신이 샘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한다. 아픈 연인을 보는 샘의 마음도 편치 않다. 다양한 작품으로 한국 관객과 만나 온 콜린 퍼스와 스탠리 투치가 애절한 감정 연기로 또 한 번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5월 12일 개봉. 감독 해리 맥퀸 출연 콜린 퍼스, 스탠리 투치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1960년대 미국, 청년 정치인 프레드 햄프턴은 흑인 정치 단체인 흑표당의 일리노이주 지부장이자 인권 운동가로 활약한다. FBI는 눈엣가시 같은 그를 처단하려 흑인인 윌리엄 오닐을 매수해 흑표당에 가입시킨다. 햄프턴의 신임을 얻은 오닐의 배신은 큰 파장을 불러온다. 1969년 스물한 살 나이로 미국 정부에 의해 암살당한 프레드 햄프턴의 실화를 그렸다. 오늘날에도 여전한 인종차별 문제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4월 22일 개봉. 감독 사카 킹 출연 다니엘칼루야, 키스 스탠필드



소박하고 단단한 사랑 이야기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이
여섯 나라의 노부부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로 돌아왔다.

정리. 김규보

- **지난 4월에 공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님아: 여섯 나라에서 만난 노부부 이야기>를 총괄 제작하셨어요.** 2017년 9월, 넷플릭스 미국 본사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리즈 책임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극장에서 보고 감동했다고 해요. 이를 원작 삼아 전 세계 오래된 커플의 러브 스토리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고자 했어요. 이번 시리즈 1에서는 한국 편 연출을 겸해 다른 나라 감독을 선발하고, 출연자를 선정하고, 시리즈 전체 스타일을 결정하는 총괄 제작자인 EP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인도, 스페인, 미국, 브라질, 일본 등 여섯 나라의 여섯 작품을 2021년 4월 13일 세계 190개국 2억 시청자에게 공개했습니다.
- **제작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겠어요.** 이야기의 중심은 원작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 사랑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각국의 문화·정치·사회 현실을 엮어 풍성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지요. 의외로 외국 감독들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스타일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기회가 적어요. 외국 감독에게 제안했을 때 한결같이 좋은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는 분위기였어요. 제작에 들어가서는 매달 촬영 내용을 보며 의논했고, 가편집본부터 완성본까지 함께 토론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개성이 뚜렷한 각 나라 감독이 만든 작품은 언뜻 별개로 보이지만, 여섯 작품을 모두 본 뒤에 '바로 이것이 <님아> 시리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 **전작에 이어 이번 작품도 노부부가 주인공이에요.** 이벤트가 젊은이의 사랑 표현법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종종 습관처럼 보이는 것들이죠. 상대방을 익히는 과정이 다소 힘들어서 그렇지, 습관처럼 보이는 그것은 쉽게 무너뜨리거나 변형되기 어려워요. 관객 이이를 관찰해 알아채고 자신의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키워드는 '사랑의 교과서'예요.
- **영화를 만드는 동안 새롭게 느낀 부분이 있나요.** 커플의 사랑은 상대방이 존재해야 가능하지요. 행운이 따라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 사랑을 유지하고 가꿀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준비 상태입니다. 사랑은 만남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두고 가꾸어야 하기에 늘 진행형이죠. 수행자 같은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사랑은 반짝 빛나다가 이내 자취를 감추는 무지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 **다큐멘터리를 주로 연출하고 제작해 오셨어요. 감독님에게 다큐멘터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생활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성취감을 얻고 실림도 하죠. 다른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다만, 이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존중해 주시는 팬이 있어 주목받을 뿐입니다. 늘 깊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작 중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스크린에 잠깐 출연하는 인물이나 도구로 대하지 않고, 내 인생의 시간을 함께해 준 분으로 진심하게 대하고 사랑하려 노력합니다. 이걸 다큐멘터리가 저에게 건넨 또 하나의 선물이에요.
- **앞으로 작품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제 주제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은 문화·역사·정치·환경·생활 속 인물들로 다채롭게 변형되지요. 물론 현재 저는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앞으로 역사 속에서 뭉뚱그려진, 조명받지 못한 사람들을 한 꺼풀씩 벗겨 개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싶어요. 지치고 힘든 시기에 제 작업이, 이번 작품이 휴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

INFORMATION

<님아: 여섯 나라에서 만난 노부부 이야기> 한국, 인도, 스페인, 미국, 브라질, 일본 등 여섯 나라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오랜 시간 함께한 커플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국경이나 성별을 뛰어넘는 사랑의 본질을 만난다.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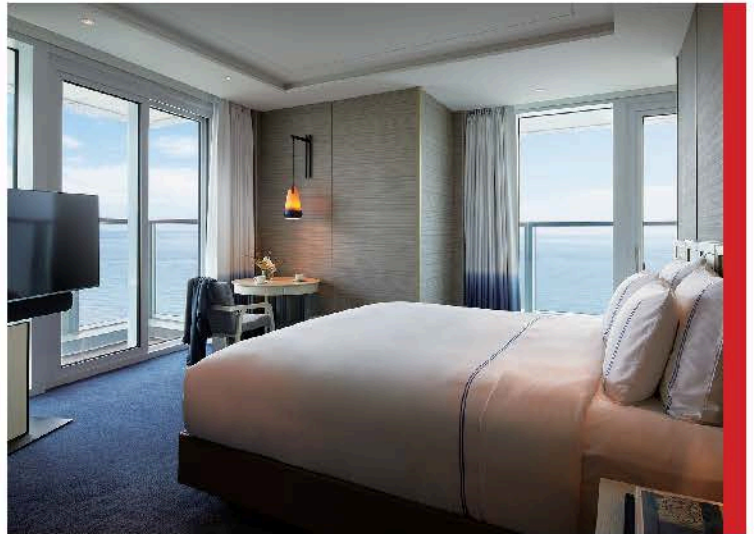


시그니엘 부산

이터널 프로미스 패키지

평생 기억에 남을 프러포즈를 계획 중이라면 여기에 주목할 것. 시그니엘 부산에서 예비부부를 위한 ‘이터널 프로미스(Eternal Promise) 패키지’를 기획했다.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보이는 객실 1박,朝食 이용권을 기본으로 프러포즈분위기를 배가해줄 웰컴 커티시, 미니 꽃다발에 향수 브랜드 덤티크의 보디 세트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다. 웰컴 커티시는 와인, 초콜릿, 수제 케이크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인화 기능을 갖춘 즉석카메라 ‘인스탁스 미니 리플레이’를 대여해 주니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기념한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

☎ 051-922-1111 www.lottehotel.com



휘닉스 평창

만족스러운 펫캉스를 위한 현명한 선택

합리적인 가격대로 반려동물 동반 객실을 제공하는 휘닉스 평창에서 ‘펫캉스’를 누린다. 우선 포레스트 파크의 잔디광장에서 신나게 산책한다. 4월 말에 오픈한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에서 바비큐도 즐긴다. 반려동물을 두고 외출할 때는 24시간 자율 보호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펫캉스 손님을 위한 ‘스카이라일 워드 펫 패키지’도 준비했다. 블루동 프리미엄 콘도 객실에 구비한 히노키(편백) 욕조, 애견 드라이어 등 10종의 펫용품들을 사용해 쉬어 간다. 객실에서 반려동물과 아침을 맞이하게끔朝食 도시락과 커피 테이크아웃 서비스도 마련했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

☎ 1577-0069 www.phoenixnr.co.kr



오크밸리 리조트

야외 프라이빗 웨딩 운영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야외 예식이 가능하다. 약 2만 5000제곱미터(7500평) 규모의 조각공원에서 열리는 가든 웨딩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꿔 온 야외 웨딩의 로망을 실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체플 웨딩을 고려 중이라면 자연과 어우러진 오크밸리 교회에서 예식을 올려도 좋겠다. 3층 규모의 단독주택 ‘피에트 분 하우스’는 프라이빗 하우스 웨딩에 제격으로, 야외 수영장이 있는 정원에서 예식과 애프터 파티를 단독으로 이어간다. 오크밸리 리조트는 5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건 이내의 예식만 진행해 여유롭다.

☎ 033-730-2900 www.oakvalley.co.kr





동탄상회

라면처럼 물만 붓고 보글보글~
쉽고 간편하게 맛있는 국물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여행이나 캠핑 갈 때도 편리해요~



- * 보통 맛, 매운맛, 아주 매운 맛 중 선택 가능
- * 10인분부터 전국 어디든 택배 주문
- * 1인분씩 개별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가격 2500원(1인분)
문의 031-374-4157



행복드림대리운전

대리운전부터 차량 탁송까지,
법인 차량 대리운전은 물론 일일 기사도 운영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액 보상해 드리며,
전 직원 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모두에게 행복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모십니다.

- * 신용카드 결제 가능,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대기

가격 거리마다 다름
문의 1600-9252



볼빅

부드러운 타구감과 낮은 스핀량으로 더욱더 멀리!
질리지 않는 무광 컬러볼 T2, T3는
초기에 빠른 볼 스피드를 낼 수 있으며
드라이버 타격 시엔 우수한 비거리를 자랑합니다.
2피스, 3피스에 6구, 9구, 12구 패키지로
기업 로고를 인쇄하거나 고급 선물 포장도 가능합니다.



가격 T2 6구볼 1만 4000원, T3 6구볼 2만 1000원(화이트, 컬러볼 중 선택 가능)
문의 02-387-1125



춘천명가푸드

2년 전 강원도 동해안 산물 때 소방서에 닭갈비를 선물해
인터넷과 언론을 뜨겁게 달군 춘천 척힌닭갈비.
미담뿐 아니라 맛으로 더욱 유명한 이곳 닭갈비를
밀키트로 만나 보세요. 전국 가정에서
춘천의 맛을 그대로 배달해 드립니다.



- * 닭갈비 3인분(900그램), 양배추, 치즈떡, 갯잎, 대파로 구성

가격 1만 8000원
문의 033-264-7100, 010-9892-9003



함안갈비&곰창

맛과 정성에 인심을 더했습니다.
거기다 1975년 오픈해 46년과 쌓은 내공까지!
점심시간마다 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곰창전골을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입에 착 달라붙는 한우곰창전골이 배달됩니다.



가격 한우곰창전골 2만 4000원(2인분)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로 15, 2층
문의 055-255-6200



거북당꿀빵

통영하면 떠오르는 메뉴 꿀빵.
'거북당꿀빵'은 통영 시민은 물론 택시 기사와
시장 상인이 모두 인정하는 대표 꿀빵입니다.
50년 가까이 꿀빵 외길을 걸어온
장인의 손맛을 집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팔 '고구마·유자·원두' 앙금. 입맛 따라 선택하세요.



가격 꿀빵 세트 1만원
문의 055-645-5950



오뎅식당

1960년 문을 연 대한민국 부대찌개의 원조.
고히기숙 대표가 소시지와 햄에
김치와 육수를 추가해 조리한 찌개가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3대 대표인 손자가
명성을 이어갑니다. 원조를 맛보세요.



가격 부대찌개 1만 8000원(2인분)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309번길 7
문의 031-842-0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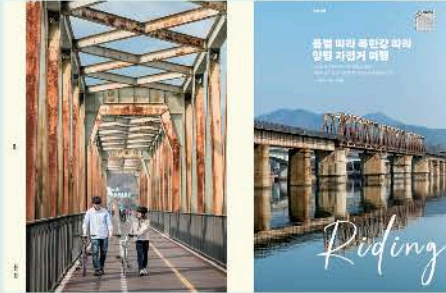
본 광고처럼 지면 혹은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에 업소나 제품, 서비스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길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매달 10만 부를 발행해 KTX,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KTX매거진>이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더욱
많은 이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문의 02-890-0907, jony2@swadcom.co.kr
(성우애드컴 <KTX매거진> 광고팀)



<KTX매거진> 4월호를 보고 나서



봄별 따라 북한강 따라 양평 자전거 여행 기차를 타면 <KTX매거진>을 먼저 펼쳐 봐요. 친구랑 자전거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는데 양평 자전거 여행 기사가 나왔어요. 양평으로 자전거 여행 가라는 신호겠지요? 정은주(fidw****)



장애를 말하는 그림책 학생들에게 소개하고픈 책을 발견했습니다. 사소하지만 작은 사랑, 손길과 관심은 큰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하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분 지선이 생명을 살린다 기차역에서 지연 문구가 뜨면 짜증부터 났는데,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앞으로 지연 알림 안내가 나오면 뭔가 사정이 있는 거라 여기며 기다릴게요. 김일새 경남 양산시 평산1길

기차로 여행하면서

01 비 내리는 주말, 가족과 경북 청송으로 향했습니다. 제법 쏟아지는 빗속에서 우산을 쓰고 주왕산 대전사까지 걸었어요. 빗길 산책은 또 다른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투덜거림은 덤으로~

송수옥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예제로

02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무작정 KTX에 올랐습니다. 기차길 옆이 온통 꽃이라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군요. 구례구역에 내려 쟁계사를 방문했습니다. 몸과 마음, 두 손에 봄을 한 아름 담아왔습니다. 박해란(bb10****)

03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기록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의 기록은 'KTX를 처음 타는 쌍둥이'입니다. 아이들이 신났네요. 우리 이제 기차 타고 여행 많이 하자. 촬영할 때만 마스크 잠깐 내렸습니다!

박정숙 전북 익산시 불로1길



01 기사를 읽은 소감과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02 독자 평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사진은 600KB 이상).

03 이메일 주소는 ktx@swadcom.co.kr입니다.

04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05 마감은 5월 15일입니다.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코웨이 뷰티 브랜드 리엔케이(Re.NK)의 '셀 루미너스 안티폴루션 UV 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선블록은 사계절 필수 제품입니다. 셀 루미너스 안티폴루션 UV 쉴드는 밀착력이 좋아 산뜻하게 발리며, 피부 톤을 맑고 깨끗하게 해 줍니다. 또 피부를 지키는 스킨 프로텍트 효과로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바로잡습니다

<KTX매거진> 4월호 '솔로 여행' 기사 중 '신석복 신부'는 '신석복 순교복자'의 오타입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KTX



인
보
표
©

제9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구름터널 속으로'

- 180 한국철도소식
- 186 시간표
- 196 편의 시설 및 부가서비스
- 198 열차 이용 안내
- 200 비상시 행동 매뉴얼

KORAIL 한국철도

Information



한국철도, 한국철도형 그린뉴딜 사업에 박차

한국철도는 서울시장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력해 철도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솔라 레일로드(Solar Railroad) 그린뉴딜 협력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차량 기지나 역사 주차장 등 철도 자산 37만 제곱미터(약 11만 평)에 총 2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춰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발전 설비가 연간 생산하는 태양광 전력은 총 3200만 킬로와트시로, 1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규모. 매년 소나무 220만 그루를 심었을 때와 동일한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철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철도형 그린뉴딜'을 추진해 2030년까지 철도 분야 태양광발전 규모를 화력 발전소 발전 용량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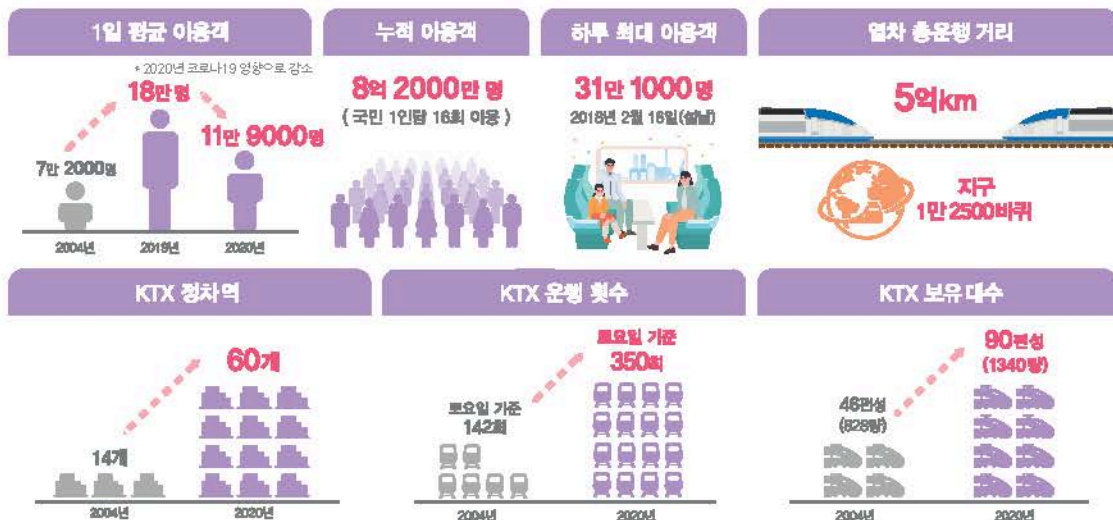


공공 기관 최초로 사이버안전센터 이종화

한국철도가 열차 운행 등 철도 관제 정보를 비롯해, 고객 개인 정보 등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사이버안전센터를 이종화했다. 지난 3월 대전사옥에 구축한 '사이버안전비상관제센터'는 서울사옥에 있는 '한국철도 사이버안전센터'가 재해나 테러, 전염병 등으로 정상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센터로, 서울사옥 센터를 대신해 열차 운행 정보, 승차권 예약 발매 시스템을 포함한 70여 개 철도 정보 시스템을 재해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24시간 보호한다.

숫자로 보는 KTX 개통 17주년

※ 2021년 3월 기준



역·열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꼭 지켜주세요!

위반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RAIL-RO

자유롭고 안전하게 떠나는 철도패스

이용 대상 | 전 국민 누구나 운영 기간 | 상시 운영(명절 특별 수송 기간 이용 불가)

패스 가격	종류	ADULT (일반)	YOUTH (만 25세 이하)	좌석 지정		비 고
				KTX	일반	
	연속 7일권	110,000원	60,000원	1일 1회 (총 2회)	1일 2회	유효기간 7일
	선택 3일권	100,000원	50,000원			

* YOUTH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만 34세까지 확대 운영

이용 열차 | KTX의 좌석, 일반 열차(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의 좌석·입석(자유석)

* 코로나19로 인한 입석(자유석) 운영 중지 → 한시적으로 일반 열차의 좌석 지정을 1일 4회로 확대 운영

좌석 지정 | 구매와 동시에 코레일톡, 전국 승차권 발매 역에서 좌석 지정 가능

* 내일로 두 번째 이야기 좌석 지정은 승차율에 따라 일부 열차의 좌석에만 적용되며, 해당 좌석 매진 시 좌석 지정 불가

패스 구입 | 이용 시작일 7일 전부터 코레일톡, 전국 승차권 발매 역에서 구매 가능 * 1년 권종별 4회까지 구매 가능



어몽어스 교통카드

The image displays four screenshots from the game 'Angry Birds'. From left to right: 1. A screenshot of a level with a red bird in a red chair and a yellow bird in a yellow chair. 2. A screenshot of a level with a red bird in a red chair and a yellow bird in a yellow chair. 3. A screenshot of a level with a green bird in a green chair and a yellow bird in a yellow chair. 4. A screenshot of a level with a green bird in a green chair and a yellow bird in a yellow ch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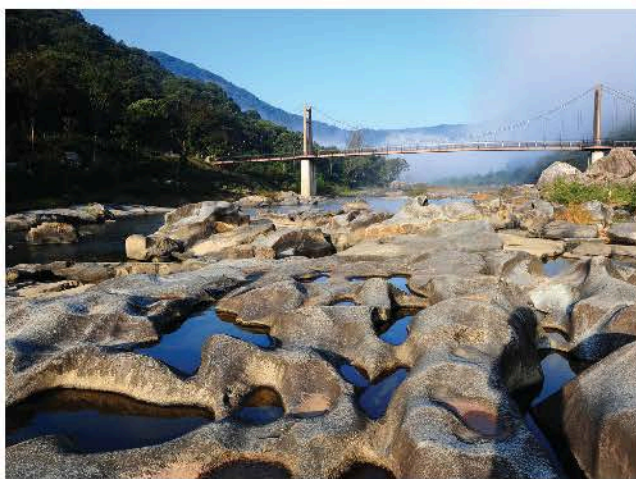


치유 관광 1번지 순창 섬진강 줄기 따라 가는 감성 여행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여행지, 장군목유원지

마을 뒤편으로 용굴산과 무량산이 선 형상이 장군이도 열한 형세와 비슷해 장군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은 수만 년 동안 섬진강이 다듬어 놓은 기묘한 바위가 강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많은 바위 중 마을 수호 신으로 신성하게 여기는 요강바위는 지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인근 용굴산은 치유의 숲이라고 불릴 만큼 경관이 수려한데, 암벽에 조성한 하늘길을 걸으면 하늘에서 산 아래를 굽어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용굴산과 섬진강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를 잇는 약 4킬로미터의 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우선 안심 걷기길'로, 애견을 동반한 집사가 자주 찾는 여행지다.

#용굴산하늘길 #반려견과함께하는우선안심걷기길



사랑을 잇는 오작교, 채계산 줄렁다리

순창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채계산의 적성과 동계를 잇는 빨간 줄렁다리가 가슴을 울렁이게 한다. 줄렁이는 다리에 의지한 채 허공을 가르는 기분이 짜릿하고, 사방으로 탁 트인 섬진강과 적성 들녘 풍경은 아름답다. 길이 270미터, 높이 75~90미터에 달하는 이 다리는 기둥이 없는 국내 현수교 가운데 가장 길다. 달빛 아래 비너를 꽃은 여인과 장군목을 지키는 장군이 둘로 나뉘어 채계산 산세 때문에 만나지 못하다가 지난해 줄렁다리를 준공하면서 해후했다고 하여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애칭도 얻었다. 줄렁다리로 가는 길목에는 염원을 담아 하나씩 쌓아 올린 돌탑이 곳곳에 눈에 띄니 돌아섰으며 소원을 빌어도 좋겠다.

#아찔한줄렁다리 #사랑의다리



맛깔난 고추장과 수려한 강천산 트레킹 길로 사랑받아 온 순창이 치유·관광 1번지로 발돋움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이에게 청정 자연 속에서 힐링과 희망을 전하고자 광주송정역 여행센터가 자유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대자연의 위대함을 간직한 장군목유원지, 채계산 관광과 농촌에서의 건강한 식재료 체험 프로그램이 마음에 여유와 위로를 전한다. 혜택도 쏙쏙하다. 순창 지역 인근 기차역인 익산역·전주역·남원역·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하는 투어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숙박비와 농가 체험비 일부도 지원한다. 예약은 필수.

문의 | 063-650-1631(순창군청 관광과), 062-942-3376(광주송정역 여행센터)

순창 자연 속에서 힐링, 치유벧 농가 체험

바쁜 생활에 치여 계절을 잊은 도시인에게 휴식을 선물한다. 건강을 챙겨 주는 친구라는 의미가 담긴 치유벧 농가는 자연 속에 머무르며 자연에서 난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프로그램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단식 등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치유 프로그램', 제철 식재료로 차린 밥상을 맛보는 '치유 푸드', 편안하게 쉬어가는 '치유 스테이', 농산물을 수확해 보는 '치유 상품', 순창을 대표하는 고추장·장아찌 등으로 구성된 식단을 제안하는 '치유 레시피'가 있다. 농가가 저마다 특색을 살려 진행하는 송화버섯 생육, 천연 염색, 전통 술 빚기 등 체험 모두 알차다.

#치유벧농가 #힐링농가체험



백제 시대 건축양식을 재현한 한옥 숙소, 초연당

섬진강 인근에 자리한 약 9900제곱미터(3000평) 부지의 한옥이 고즈넉하다. 멋진 장소에 한옥을 제대로 지어 보자는 취지에 공감한 백남인도편수가 한국 육송을 사용해 백제 시대 건축양식을 재현했다. 문화재 보수나 사찰 건축을 주로 하는 장인이 지은 한옥이기에 숙소가 문화재나 다름없다. 한옥에 들어서니 진한 나무 향이 그윽하다. 외형은 전통을 따랐으나 실내는 현대적으로 설비해 편리하다.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여암 신경준 선생의 <순원화혜잡설>을 모티브로 조성한 오천년정원에는 한국 육송과 꽃들이 정취를 자아낸다. 체험실에서는 전통 순창고추장 만들기, 전통 민요, 다도, 목공 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통한옥체험 #초연당



KTX/KTX-산천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서울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신경주 新慶州	울산 蔚山	부산 釜山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Daejeon	Gimcheon (Gumi)	Dongdaegu	Singyeongju	Ulsan	Busan	Remark
1		05:15	05:32			06:14		06:57	07:15	07:28	07:49	
161		05:20	05:37			06:19		07:02	07:15	08:01	08:14	월
3		05:30	05:47	06:09		06:34	06:58	07:23	07:41	07:54	08:15	
5		06:00	06:17	06:39		07:04		07:47		08:12	08:33	
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금토일 KTX-산천
1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월화수목 KTX-산천
7	06:13	06:35	06:52			07:34	07:58	08:23	08:41	08:54	09:15	
9		07:00	07:17	07:39	07:52	08:09		08:52		09:17	09:38	
11	07:08	07:30	07:47		08:15	08:34	08:58	09:23			10:03	
13		07:52	08:09			08:49		09:32			10:12	
15		08:00	08:18			09:00	09:24	09:48	10:07	10:20	10:41	
121		08:14	영등포 08:24 수원 08:47			09:57		10:40			11:20	
17	08:30	09:00				09:52		10:35			11:15	
19		09:30	09:47		10:16	10:35	10:59	11:23	11:42	11:55	12:16	KTX-산천
101		09:45	10:02	10:25		10:50		11:33	12:06	12:32	12:45	
21		10:00	10:17	10:39		11:04		11:47	12:06	12:19	12:40	
123		10:14	영등포 10:24 수원 10:48			11:59		12:42	13:00	13:13	13:34	
163		10:20		10:54	11:07	11:24		12:07	12:40	13:06	13:19	금토일
23		10:30	10:47	11:09	11:22	11:39	12:03	12:27		12:52	13:13	
25		11:00	11:17	11:39		12:05		12:48	13:07	13:19	13:41	
171		11:33	영등포 11:43 수원 12:07			13:17	13:41	14:05			14:49	토일
27		12:00	12:17	12:39		13:05		13:48	14:07	14:19	14:41	
29		12:27	12:44	13:06		13:32		14:16		14:41	15:02	
3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5:01	15:19		15:47	KTX-산천
103		13:10	13:27	13:49		14:15	14:39	15:04	15:37	16:03	16:16	
33		13:20	13:37	13:59	14:12	14:29		15:12		15:36	15:58	
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금토일
1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월화수목
35		14:00		14:35	14:48	15:05		15:48	16:06		16:34	
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금토일
1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월화수목 KTX-산천
37		14:21	14:38		15:06	15:25		16:08			16:49	
39		14:30	14:47	15:09		15:34		16:18	16:37	16:50	17:11	KTX-산천
87		14:43	15:00	15:22	15:35	15:52		16:35	16:53		17:21	금토일
41	14:38	15:00	15:17	15:39	15:52	16:09		16:53		17:18	17:39	
89		15:25		16:00		16:23		17:06			17:46	토일 KTX-산천
43		15:40	15:57		16:25	16:44		17:27		17:52	18:13	
45		16:00	16:17			16:57	17:21	17:45	18:04		18:32	
125		16:04	영등포 16:17 수원 16:41			17:51		18:34		18:59	19:20	
47		16:30		17:04		17:29		18:12		18:37	18:58	
49		17:00	17:18		17:46	18:05	18:29	18:54		19:19	19:40	
105	16:48	17:15	17:32			18:15		18:58 경산 19:09	19:36	19:44	20:15	
51		17:25	17:42	18:05		18:30		19:13	19:31	19:44	20:05	
53		18:00		18:34		19:00	19:24	19:49		20:14	20:35	
55		18:15	18:32		19:00	19:19		20:02		20:27	20:48	
57	18:08	18:30		19:05	19:17	19:34		20:17	20:36	20:48	21:10	
107		18:43	19:00	19:22	19:35	19:52	20:16	20:40	21:13	21:39	21:52	
127		18:55	영등포 19:08 수원 19:33			20:44		21:27	21:45		22:13	
59		19:00	19:17	19:39	19:52	20:09		20:52		21:17	21:38	
91		19:22	19:39			20:19		21:03		21:28	21:49	금토일
61		19:37			20:17	20:34	20:58	21:23		21:48	22:09	
165		19:46	20:03	20:25		20:49		21:32	22:05	22:31	22:44	금토
173		19:50	영등포 20:00 수원 20:23			21:33		22:16	22:34		23:02	금토일
93		19:56	20:13	20:35		20:58		21:41	22:00		22:28	금토일
63	19:38	20:00	20:17	20:39	20:52	21:09		21:51		22:16	22:37	
95		20:15	20:32	20:55		21:18		22:01			22:41	금토일
65		20:30				21:22		22:05			22:45	
109		20:50	21:07	21:29		21:54		22:39	23:12	23:38	23:51	
67		21:00	21:16	21:39		22:04	22:28	22:53		23:18	23:39	
69		21:30	21:47		22:16	22:35		23:18	23:36	23:49	00:10	
111		21:35	21:52	22:14	22:27	22:44		23:27	00:00	00:26	00:39	
71		22:00	22:17	22:39		23:04		23:47		00:12	00:33	
73		22:30	22:47	23:09		23:34		00:17		00:42	01:03	
97		22:51	23:08			23:48		00:31			01:11	금토일
117		23:00	23:17	23:39	23:52	00:09	00:33	00:56				
119		23:30	23:47	00:09	00:22	00:37						

KTX/KTX-산천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5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부산 釜山	울산 蔚山	신경주 新慶州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川(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Busan	Ulsan	Sin gyeongju	Dong daegu	Gimcheon (Gumi)	Daejeon	Osong	Cheonan Asan	Gwang myeong	Seoul	Haengsin	Remark
116						05:55	06:12	06:25	06:51	07:07		
82	04:45	05:08	05:20	05:38		06:20	06:44	07:10	07:26			월
118						06:34	06:52	07:05	07:30	07:46		화수목금토일
166	04:39	구포 04:53	일양 05:19	05:52		06:34	06:52	07:05	07:30	07:46		월
2	05:10	05:33		05:58	06:21	06:45		07:09	07:35	07:51		
4	05:20		05:48	06:07		06:49	07:07		07:39	07:55		
6	05:40	06:03		06:28		07:10	07:27	07:40	08:06	08:22		
120				06:42	07:05	07:29	07:47	08:00	08:25	08:41		
8	06:10	06:33	06:45	07:03	07:26	07:51	08:08	08:21	08:47	09:03		
84	06:30	06:53	07:05	07:24		08:06	08:24			09:07		금토일
170	06:42		07:10	07:30		08:14		수원 09:25	영등포 09:47	09:56		토일
102	06:16	구포 06:30	일양 06:56	경산 07:22	07:56	08:20	08:38	08:51	09:16	09:32		
10	07:00	07:23		07:48	08:11	08:35	08:53		09:25	09:41		
12	07:30	07:53	08:05	08:23		09:06		09:31	09:56	10:12		
86	07:50	08:13		08:38	09:01	09:25	09:43	09:56	10:22	10:38		금토일
14	08:10	08:33		08:58	09:21	09:46		10:10		10:46		
122	08:20	08:43		09:08		09:51		수원 11:01	영등포 11:23	11:32		
104	08:15	구포 08:29	일양 08:55	09:28		10:10	10:28		11:01	11:17		
16	08:40	09:03	09:15	09:33		10:16	10:33		11:06	11:27	11:44	
18	08:50	09:13		09:38	10:01	10:26			11:10	11:26		
20	09:06	09:29		09:54		10:36	10:53	11:06	11:31	11:47		
22	09:36			10:17		10:58				11:51		
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금토일
1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월 화수목 KTX-산천
24	10:03			10:44		11:26		11:50	12:15	12:31		
26	10:20	10:43	10:55	11:13		11:55	12:13		12:46	13:02		
162	10:06	구포 10:20	일양 10:46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8	11:00	11:23		11:48	12:11	12:37	12:54		13:27	13:43		
30	12:00	12:23		12:49	13:12	13:37	13:55	14:08	14:33	14:49		
32	12:30	12:53	13:05	13:23		14:06	14:23		14:56	15:12		
34	13:10	13:33		13:58		14:40	14:57	15:10		15:46		
124	13:25			14:06		14:48		수원 15:58	영등포 16:20	16:29		
90	13:30			14:11		14:53	15:10	15:23	15:49	16:05		금토
106	13:29	구포 13:43	일양 14:09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36	14:00	14:23		14:48	15:11	15:36	15:53	16:07		16:48	17:05	
38	14:20		14:48	15:07		15:49	16:07			16:50		
40	14:30	14:53	15:05	15:24	15:47	16:12			16:55	17:23	17:43	
42	15:10			15:51		16:32				17:25		
92	15:20			16:01		16:43			17:26	17:42		금토일
172	15:25			16:06		16:48		수원 17:58	영등포 18:20	18:29		금토일
44	15:45	16:08		16:33		17:15		17:39	18:04	18:20		
108	15:35	구포 15:49	일양 16:15	16:48		17:30	17:48	18:01	18:26	18:42		
46	16:23		16:51	17:10	17:33	17:57	18:15		18:47	19:03		
94	16:38			17:19	17:42	18:07		18:31	18:56	19:12		금토일
194	16:38			17:19	17:42	18:07		18:31	18:56	19:12		월 화수목
48	16:50	17:13	17:25	17:44		18:26		18:50	19:15	19:31		
50	17:00	17:23		17:48		18:30	18:47	19:00	19:26	19:42		
96	17:15			17:56		18:38	18:55	19:09		19:45		금토일
196	17:15			17:56		18:38	18:55	19:09		19:45		월 화수목 KTX-산천
52	17:20	17:43	17:55	18:13		18:55		19:19	19:45	20:06	20:23	KTX-산천
126	17:50	18:13	18:25	18:43		19:27		수원 20:38	영등포 21:00	21:09		
54	18:00	18:23		18:49	19:12	19:38	19:55	20:09	20:34	20:50		
98	18:30			19:11		19:53	20:10			20:59	21:16	토일 KTX-산천
56	18:35	18:58	19:10	19:29	19:52	20:16	20:34		21:06	21:22		
58	19:05	19:28		19:53		20:35	20:52		21:25	21:50	22:07	
110	18:43	구포 18:57	일양 19:23	경산 19:49		20:45	21:02	21:15	21:41	21:57		KTX-산천
60	19:20	19:43	19:55	20:13	20:36	21:02			21:47	22:03		
164	19:13	구포 19:27	일양 19:53	20:27		21:10		21:34		22:10		금토일
100	19:45		20:13	20:32		21:14		21:38	22:03	22:24	22:41	금토일
128	19:55			20:36		21:19		수원 22:29	영등포 22:51	23:00		
62	20:05	20:28	20:40	20:58		21:40		22:04	22:30	22:46		
64	20:40	21:03	21:15	21:33		22:15		22:39	23:05	23:21		
66	21:00	21:23		21:49	22:12	22:38	22:55		23:27	23:47	00:04	
112	20:45	구포 20:59	일양 21:25	21:59		22:42	23:00		23:32	23:48		
68	21:29	21:52	22:04	22:22	22:45	23:10			23:53	00:09		
70	21:43	22:06		22:31		23:13	23:31		00:03	00:19		
72	22:00	22:23		22:48		23:30				00:25		
74	22:10		22:38	22:57		23:39		00:03		00:38		
80	22:50	23:13		23:38		00:20		00:44		01:20		금토일

열차 시각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X/KTX-산천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Masan·Jinju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밀양 密陽	진영 進永	창원중앙 昌原中央	창원 昌原	마산 馬山	진주 晉州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Miryang	Jinyeong	Changwon Jungang	Changwon	Masan	Jinju	Remark
201		05:05	05:22			06:04		06:50	07:23	07:41	07:53	08:01	08:08	08:32	KTX-산천
203		05:40	05:57	06:19	06:32	06:49		07:35 경산 07:46	08:13		08:39		08:51	09:15	KTX-산천
2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5	08:38	08:57		09:13	09:20	09:44	금토일 KTX-산천
205		08:25	08:42		09:10	09:29		10:12	10:45		11:11		11:23	11:47	
207		09:06	09:23	09:45		10:10	10:34	10:59	11:32	11:50		12:07	12:12		
285		09:30	09:47		10:16	10:35	10:59	11:26			12:22		12:34	12:58	금토일 KTX-산천
209		10:05	10:22	10:44		11:09	11:33	11:58	12:31		12:57		13:09	13:33	
211	12:28	12:50	13:07		13:36	13:55		14:38		15:26	15:37	15:46	15:51		
213		13:40		14:14		14:39		15:22	15:55		16:21		16:33	16:57	
287		14:30	14:47	15:09		15:34		16:21	16:54	17:12	17:24		17:34		금토일 KTX-산천
283		15:11	15:28		15:56	16:15		17:01	17:34		18:00	18:09	18:16	18:40	금토일 KTX-산천
215		16:20	16:37		17:05	17:24		18:10	18:43	19:02	19:14		19:24		KTX-산천
217		17:35	17:52		18:20	18:39	19:03	19:31			20:32	20:37			KTX-산천
219	17:36	18:05	18:22	18:45		19:10		19:53	20:26		20:52		21:02		
22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5		23:24	23:35	23:44	23:51	00:15	KTX-산천
223		22:10	22:27			23:09	23:33	23:57	00:30			01:02	01:07		KTX-산천

KTX/KTX-산천 동해선 하행 From Seoul to Pohang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포항 浦項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Pohang	Remark
297		05:05	05:22			06:04		06:47	07:22	금토일 KTX-산천
231		05:40	05:57	06:19	06:32	06:49		07:32	08:07	KTX-산천
233		06:45	07:02	07:25		07:50		08:33	09:08	
235	07:48	08:10	08:28	08:51	09:03	09:20		10:04	10:39	KTX-산천
237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밀화수목 KTX-산천
291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금토일 KTX-산천
239	10:23	10:45	11:02	11:24	11:37	11:54		12:37	13:12	KTX-산천
243		12:41			13:22	13:39		14:22	14:57	
24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4:57	15:33	KTX-산천
245	14:13	14:35	14:52	15:14		15:39	16:03	16:28	17:03	
293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금토일 KTX-산천
295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밀화수목 KTX-산천
247		16:20	16:37		17:05	17:24		18:07	18:43	KTX-산천
249		17:35	17:52		18:20	18:39	19:03	19:28	20:03	KTX-산천
25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2	23:07	KTX-산천
253		22:20	22:37		23:05	23:24		00:08	00:43	KTX-산천

KTX-산천 강릉선 하행 From Seoul to Gangneung·Donghae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首爾	청량리 淸涼里	상봉 上鳳	양평 楊平	만경 萬境	횡성 橫城	문내 門內	평창 平昌	진부(오대산) 珍富(五臺山)	강릉 江陵	목호 木湖	동해 東海	비고 備考
Train NO.	Seoul	Cheongnyangri	Sangbong	Yangpyeong	Manjong	Hoengseong	Dunnae	Pyeongchang	Jinbu (Odaesan)	Gangneung	Mukho	Donghae	Remark
801	05:11	05:32	05:38		06:23			06:45		07:08			
803	06:01	06:22		06:49	07:12		07:28	07:38	07:48	08:05			
841	07:01	07:22	07:28	07:51	08:14	08:22		08:38	08:47	정동진 09:14	09:35	09:42	
851		07:50	07:56		08:39			09:00	09:09	09:26			토일
805	08:01	08:22		08:48	09:11	09:20	09:29	09:40		10:01			
853		08:45	08:51		09:34	09:43	09:53		10:08	10:25			토일
807	09:01	09:22	09:29		서원주 10:19	10:21			10:40	10:57			
881		09:45		10:11	서원주 10:30			10:55		정동진 11:27	11:48	11:55	금토일
809	10:01	10:22		10:48	11:11		11:26	11:37		11:58			
843	11:01	11:22	11:28	11:51	서원주 12:10	12:21			12:41	정동진 13:10	13:31	13:38	
855		12:05			12:53					13:30			금토일
883		13:00	13:06		13:49		14:04			정동진 14:45	15:06	15:13	금토일
811	13:01	13:22	13:28		14:11	14:20		14:36	14:45	15:02			
813	13:31	13:52		14:18	14:41		14:56			15:23			
815	14:01	14:22		14:48	서원주 15:07	15:19		15:34		15:56			
857		15:10		15:37	16:00					16:37			금토일
845	15:01	15:22	15:28		16:11	16:20	16:30		16:45	정동진 17:12	17:33	17:40	
859		15:50			16:37					17:14			금토일
817	16:01	16:25		16:51	17:14	17:23		17:38	17:47	18:04			
861		18:13	18:19		서원주 18:58				19:26	19:43			금토일
819	18:01	18:22		18:48	19:11	19:19	19:29	19:39	19:47	20:04			
847	18:31	18:52	18:58		19:41		19:56	20:06		정동진 20:38	20:59	21:06	
821	19:01	19:22	19:28	19:51	20:14	20:23	20:34	20:44		21:06			
863		19:55		20:22	20:45				21:09	21:26			금토일
885		20:15			21:03			21:24		정동진 21:57	22:18	22:25	금토
823	20:01	20:22	20:28	20:51	21:13				21:38	21:55			
825	21:31	21:52		22:18	22:41	22:51	23:01	23:11		23:33			
827	22:11	22:32			23:18				23:43	00:00			

KTX/KTX-산천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2021년 5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진주 晉州	마산 馬山	창원 昌原	창원중앙 昌原中央	진영 進永	밀양 密陽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Jinju	Masan	Changwon	Changwon Jungsang	Jin yeong	Miryang	Dong daegu	Gimcheon (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 myeong	Seoul	Haeng sin	Remark
202		05:00	05:06	05:14	05:25	05:42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04	06:16	06:41	06:47		07:03	07:20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06	08:58	09:24		09:36	09:47	10:04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08	10:06	10:32	10:38	10:46		11:11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82	11:24	11:50		12:02		12:26	13:00	13:23	13:47		14:12	14:37	14:53		금토일 KTX-산천
210		12:40		12:52		13:16	13:51		14:33		14:57	15:22	15:38		
212	12:52	13:18	13:24	13:32	13:43		14:30	14:53	15:17	15:35		16:07	16:35	16:55	
214	14:34	15:00		15:12		15:36	16:10		16:52			17:35	17:51		
284	15:25	15:51		16:03		16:27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금토일 KTX-산천
216		16:50	16:56	17:04	17:15		18:02	18:25	18:49		19:13	19:39	19:55		
218	17:45	18:11		18:23		18:47	19:21		20:03			20:46	21:02		
286		18:21		18:33	18:43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20		20:00	20:06		20:22	20:39	21:12	21:35	22:01	22:19		22:51	23:07		KTX-산천
288	20:05	20:31		20:43		21:07	21:41	22:04	22:28	22:46	22:59		23:35		금토일 KTX-산천
222		21:08		21:20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224		21:43	21:49			22:19	22:52		23:34			00:18	00:34		

KTX/KTX-산천 동해선 상행 From Pohang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포항 浦項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Pohang	Dongdaegu	Gimcheon (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32	05:37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34	07:15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36	09:59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38	10:15	10:52		11:34	11:51	12:04	12:30	12:46		
298	10:41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40	11:04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4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월화수목 KTX-산천
29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금토일 KTX-산천
244	14:04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246	15:37	16:14		16:56			17:39	17:55		
248	16:23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KTX-산천
250	18:00	18:37		19:19	19:36	19:49	20:15	20:31		
294	18:56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96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월화수목 KTX-산천
252	19:22	20:03		20:45	21:02	21:15	21:41	21:57		KTX-산천
254	21:36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KTX-산천 강릉선 상행 From Gangneung-Donghae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동해 東海	묵호 墨湖	강릉 江陵	진부(오대산) 珍富(五臺山)	평창 平昌	둔대 屯內	횡성 橫城	만경 萬頃	양양 襄陽	상봉 上鳳	청량리 淸凉里	서울 首爾	비고 備考
Train NO.	Donghae	Mukho	Gangneung	Jinbu (Odaesan)	Pyeongchang	Dunnae	Hoengseong	Manjong	Yangpyeong	Sangbong	Cheongryangri	Seoul	Remark
802			05:30			06:00		06:14	06:36		07:03	07:23	
804			06:30	06:50	06:59		07:15	07:24	07:45		08:15	08:38	
806			07:30		07:53	08:03	08:12	08:20	08:42		09:10	09:29	
882	07:15	07:22	정동진 07:42					08:32		09:15	09:20		토일
808			08:30	08:50	08:59		09:15	09:24		10:08	10:15	10:35	
852			10:05		10:27			10:46			11:34		토일
810			10:30	10:49			11:09	서원주 11:23		12:03	12:09	12:29	
842	10:05	10:12	정동진 10:33		11:06	11:16		11:30	11:52	12:15	12:21	12:41	
854			11:00		11:23			11:44		12:27	12:33		토일
812			11:33			12:01		서원주 12:19	12:37		13:04	13:24	
814			12:25	12:45	12:54		13:10	13:19		14:02	14:08	14:27	
884	12:40	12:47	정동진 13:08					13:57			14:43		금토일
856			13:53			14:21		서원주 14:38	14:56	15:19	15:25		금토일
844	14:00	14:07	정동진 14:28	14:57	15:07			15:27	15:50		16:17	16:37	
816			15:30		15:54	16:04		16:18	16:40		17:07	17:27	
858			15:56					16:34			17:20		금토일
886	15:40	15:47	정동진 16:08					16:56		17:41	17:46		금토일
818			16:40	16:59		17:14	17:22	서원주 17:33		18:13	18:19	18:39	
820			17:25	17:45	17:54			18:15	18:37	19:01	19:08	19:28	
860			17:50	18:10			18:30	18:40	19:03		19:29		금토일
822			18:40	19:00	19:09	19:19	19:29	19:39	20:01	20:24	20:31	20:51	
846	19:03	19:10	정동진 19:31	20:00	20:09		20:25	20:34	20:56	21:19	21:26	21:46	
862			20:09	20:29	20:37		20:52	서원주 24:04		21:44	21:49		금토일
824			20:30		20:53		21:09	21:18	21:39	22:03	22:09	22:29	
826			21:28	21:48		22:02	22:11	22:20			23:08	23:28	
864			22:00	22:20	22:29		22:45			23:34	23:39		금토일
848	21:30	21:37	정동진 21:59	22:28	22:37	22:46		23:02	23:23		23:51	00:11	
828			22:30		22:54			23:14		23:57	00:03	00:23	

열차 시각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X/KTX-산천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정읍 井邑	광주송정 光州松汀	나주 羅州	목포 木浦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Seodaeyeon	Iksan	Jeongeup	Gwangju songjeong	Naju	Mokpo	Remark
401			05:10	05:25		05:55		06:23	06:39	06:58		07:29	KTX-산천
403			05:50	06:05	06:28	06:40		07:08	07:24	07:43	07:55	08:21	KTX-산천
471			06:12	06:27	06:50	07:02	07:21 계룡 07:37	논산 07:55 08:18					KTX-산천
405	06:02	06:24	06:31	06:47		07:16 공주 07:33		07:51	08:07	08:26	08:36	09:01	
473		06:49	06:56	07:11	07:34	07:46	08:03						
491			07:40	07:55		공주 08:37		08:55		09:22			금토일
407	07:20	07:42	07:49	08:04		공주 08:46		09:04	09:20	09:39	09:49	10:14	KTX-산천
409			08:22		08:55	09:07		09:35	09:51	10:11	10:21	10:46	
411			09:22	09:37				10:30		10:57			
475			09:36	09:52	10:14	10:27	10:46 계룡 11:01	논산 11:19 11:45	김제 11:57 12:13	장성 12:31 12:45	12:57	13:23	KTX-산천
477			10:10	10:26	10:48	11:01	11:22 계룡 11:38	논산 11:56 12:21					KTX-산천
413		10:34	10:41		11:14	11:26		11:54	12:10	12:29	12:39	13:04	
415			12:20	12:35	12:58	공주 13:22		13:40		14:09	14:19	14:44	KTX-산천
417	12:18	12:40	12:47			13:27		13:55	14:11	14:30		15:01	KTX-산천
419	13:05		13:32	13:47	14:10			14:45	15:01	15:21	15:31	15:56	KTX-산천
421			14:49	15:04	15:27	15:39 공주 15:56		16:14	16:30	16:49		17:20	
423			15:36	15:51		16:21		16:49		17:18	17:28	17:53	
425			16:10					17:13		17:40			
427		16:38	16:45	17:00	17:23	공주 17:47		18:05	18:21	18:40	18:50	19:15	KTX-산천
481			17:12	17:28			18:11 계룡 18:27	논산 18:45 19:10	김제 19:22 19:37	장성 19:56 20:10	20:22	20:48	
429	17:38		17:45			18:25		18:53		19:22	19:32	19:57	KTX-산천
483			17:50		18:23		18:48						
431			18:35	18:50	19:13	공주 19:37		19:55	20:11	20:29			
433		19:36	19:43	19:58		20:28 공주 20:44		21:02	21:18	21:37	21:47	22:12	
435			20:35	20:51	21:13	21:26		21:54	22:10	22:29	22:39	23:04	KTX-산천
485			21:11	21:27	21:49		22:16 계룡 22:31	논산 22:49 23:13					KTX-산천
437			21:23	21:36		공주 22:18		22:36		23:03			
439	21:59		22:25	22:41	23:03	23:16		23:44	00:00	00:19	00:29	00:54	

KTX/KTX-산천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공주 公州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전주 全州	남원 南原	곡성 谷城	구례구 求禮口	순천 順天	여천 麗川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Gongju	Seodaeyeon	Iksan	Jeonju	Namwon	Gokseong	Guryegu	Sunchon	Yeocheon	Yeosu-Expo	Remark
501			05:10	05:25		05:55			06:26	06:42	07:09			07:41	07:55	08:03	KTX-산천
503	06:43	07:05	07:12	07:27	07:50	08:02	08:19		08:37	08:54	09:21		09:39	09:55	10:09	10:17	
581			07:45	08:00				08:44 계룡 09:00	논산 09:18 09:42	09:59	10:26	10:36		11:00		11:19	
505			08:40	08:55		09:25	09:41		09:59	10:16	10:43	10:53	11:05	11:21	11:35	11:43	
507	09:26	09:48	09:55	10:11	10:34	10:46	11:03		11:23	11:40	12:07	12:17		12:41	12:55	13:03	KTX-산천
509			10:55	11:10	11:33	11:46	12:02		12:20	12:37	13:04		13:23	13:39	13:53	14:01	
587			12:15	12:30	12:53	13:05		13:23 계룡 13:38	논산 13:56 14:21	14:37							KTX-산천
511			12:20	12:35	12:58		13:22		13:43	14:00	14:27	14:37		15:01		15:20	KTX-산천
543	12:18	12:40	12:47			13:27			13:58	14:14	14:41			15:12	15:26	15:34	토일 KTX-산천
589			13:16	13:32	13:54			14:20 계룡 14:35	논산 14:53 15:18	15:34							금토일
513			14:12	14:28		14:57	15:14		15:31	15:48	16:15			16:47	17:01	17:09	
583			14:40	14:56	15:18			15:45 계룡 16:00	논산 16:18 16:43	16:59	17:26		17:45	18:00	18:14	18:22	KTX-산천
515		16:38	16:45	17:00	17:23		17:47		18:10	18:27	18:54	19:04	19:15	19:31	19:45	19:53	KTX-산천
517		17:38	17:45			18:25			18:57	19:15	19:42			20:15	20:29	20:37	KTX-산천
519	18:23		18:50	19:05	19:28		19:52		20:10	20:26	20:53		21:12	21:28	21:42	21:50	KTX-산천
521			20:05	20:21	20:43				21:19	21:35	22:02	22:12		22:36	22:50	22:58	
541			20:35	20:51	21:13	21:26			21:57	22:13	22:40			23:12	23:26	23:34	금토 KTX-산천
523			21:50	22:05					22:57	23:14	23:41			00:12	00:26	00:34	KTX-산천

KTX-이음 중앙선 하행 From Cheongyangni to Andong

열차번호 列車番號	청양리 淸涼里	양평 楊平	서원주 西原州	원주 原州	제천 堤川	단양 丹陽	풍기 豊基	영주 榮州	안동 安東	비고 備考
Train NO.	Cheongyangni	Yangpyeong	Seowonju	Wonju	Jecheon	Danyang	Punggi	Yeongju	Andong	Remark
701	06:00	06:26		06:49	07:06	07:21		07:42	08:02	
781	08:10			08:57	09:14	09:29	09:42	09:54	10:14	토일
703	09:00			09:47	10:04	10:18	10:32	10:43	11:03	
705	11:00	11:26	11:45	11:52	12:09			12:42	13:02	
707	14:00			14:47	15:05	15:19	15:33	15:44	16:04	
709	16:00		16:43	16:50	17:07	17:22		17:44	18:04	
711	19:00			19:48	20:05	20:19	20:33	20:44	21:04	
713	22:00	22:27		22:50	23:07			23:40	00:00	

KTX/KTX-산천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2021년 5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목포 木浦	나주 羅州	광주송정 光州松汀	전주 井州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Mokpo	Naju	Gwangju Songjeong	Jeongeup	Iksan	Seodaeseon	Dsong	Cheonan Asan	Gwang myeong	Yongsan	Seoul	Haeng sin	Remark
402			05:41	05:59	06:16		06:45	06:59	07:25	07:39			
404	05:25	05:52	06:02	06:21	06:40		공주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474					06:25 논산 06:50	계룡 07:08 07:24		07:49	08:15	08:33		08:55	KTX-산천
472	05:37	06:04	06:14 장성 06:29	06:47 김제 07:02	07:16 논산 07:41	계룡 07:59 08:15		08:40	09:06	09:22	09:27		
406	07:07	07:34	07:44	08:03	08:20		공주 08:38 08:56		09:30	09:44			
408	08:20	08:47	08:57	09:16	09:35		10:04	10:18	10:44	11:03		11:25	KTX-산천
476					09:05 논산 09:30	계룡 09:48 10:04	10:23			11:05			KTX-산천
410	09:15	09:42	09:52		10:24				11:20	11:34			KTX-산천
412	10:03		10:37		11:06				12:02	12:21	12:26		
492			11:10		11:39		12:07		12:41	12:55			금토일
414			11:25	11:43	12:00		공주 12:18	12:44		13:23	13:28		
416	11:05	11:32	11:42		12:14		12:43	12:57	13:23	13:37			KTX-산천
478					13:10 논산 13:35	계룡 13:53 14:09	14:29		15:03	15:17			KTX-산천
418	12:55	13:22	13:32	13:51	14:08		14:36		15:10	15:28	15:33		
420	13:53	14:20	14:20	14:49	15:06		공주 15:24 15:42		16:16	16:30			
422	14:33		15:07	15:25	15:45		공주 16:03		16:48	17:09	17:14		KTX-산천
424	16:00	16:27	16:37	16:56	17:13		공주 17:31	17:56		18:40		19:02	KTX-산천
426	17:03	17:30	17:40	17:59	18:18			18:54	19:20	19:34			KTX-산천
428			18:23		18:52		19:20		19:54	20:10	20:15		
484						19:07	19:26		19:59	20:15	20:25	20:42	월화수목 KTX-산천
484						19:07			19:59	20:15	20:25	20:42	금토일 KTX-산천
482	16:51	17:18	17:28 장성 17:43	18:01 김제 18:16	18:30 논산 18:55	계룡 19:13 19:29	19:48	20:01	20:27	20:41			KTX-산천
430	18:02	18:29	18:39	18:58			공주 19:33 19:51	20:05	20:31	20:45			
432	18:52	19:19	19:29	19:48	20:05				21:01	21:15			
486						20:39	20:58	21:11	21:37	21:51			
434	19:52	20:19	20:29	20:48	21:08		공주 21:26 21:44		22:18	22:34	22:44	23:01	KTX-산천
436			21:00		21:29		공주 21:47	22:12	22:38	22:52			
438	20:55		21:28	21:47	22:06		22:35	22:49		23:33		23:55	KTX-산천
440	21:57	22:24	22:34		23:03				23:59	00:13			

KTX/KTX-산천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여수엑스포 麗水 엑스포	여천 麗川	순천 順天	구례구 求禮口	곡성 谷城	남원 南原	전주 全州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공주 公州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Yeosu-Expo	Yeo cheon	Sun cheon	Guryegu	Gok seong	Nam won	Jeonju	Iksan	Seo daejeon	Gongju	Dsong	Cheonan Asan	Gwang myeong	Yong san	Seoul	Haeng sin	Remark
502	05:00	05:08	05:21	05:36		05:55	06:20	06:40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504	07:09	07:17	07:31		07:54	08:05	08:30	08:47		09:05	09:23	09:37	10:03	10:19	10:29	10:46	
542	07:48	07:56	08:10	08:25	08:36	08:47	09:13	09:35			10:04	10:18	10:44	11:03		11:25	토일 KTX-산천
506	08:42	08:50	09:04	09:19		09:37	10:03	10:24					11:20	11:34			KTX-산천
508	10:36	10:44	10:58			11:28	11:54	12:14			12:43	12:57	13:23	13:37			KTX-산천
510	12:00	12:08	12:22		12:46	12:56	13:22	13:38		13:56		14:22		14:57			
582	12:09		12:28	12:43		13:02	13:27	13:44 논산 14:09	계룡 14:27 14:43		15:02	15:15		15:50			
512	13:05		13:24			13:54	14:20	14:36			15:05	15:19	15:45	16:03		16:25	
588						15:00		15:16 논산 15:40	계룡 15:58 16:13		16:32		17:05	17:19			KTX-산천
514	14:02	14:10	14:24		14:48	14:58	15:24	15:45		16:03		16:48	17:09	17:14			KTX-산천
516	14:58	15:05	15:19	15:34		15:53	16:19	16:35		16:53	17:11		17:45	18:04	18:09		
590						16:25	16:41 논산 17:06	계룡 17:24 17:40		17:59	18:12		18:47				금토일
518	16:35	16:43	16:57		17:21	17:31	17:57	18:18			18:54	19:20	19:34				KTX-산천
520	18:05	18:13	18:27	18:42	18:54	19:04	19:30	19:46		20:04	20:23		20:57	21:13	21:22	21:39	
584	18:57	19:05	19:19		19:42	19:53	20:19	20:36 논산 21:01	계룡 21:19 21:34			22:00	22:26	22:40			KTX-산천
544	19:25	19:33	19:47		20:11	20:21	20:47	21:08		21:26	21:44		22:18	22:34	22:44	23:01	토일 KTX-산천
522	20:22	20:30	20:45	21:00		21:18	21:45	22:06		22:35	22:49		23:33		23:55		KTX-산천
524	21:55	22:02	22:16			22:47	23:13	23:29		23:58			23:59	00:13			KTX-산천

※KTX-산천은 노선에 따라 두 편의 열차를 결합한 복합 열차로 운행합니다. 열차 번호와 목적지가 다를 수 있으니 예매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X-이음 중앙선 상행 From Andong to Cheongnyangni

열차번호 列車番號	안동 安東	영주 榮州	풍기 豊基	단양 丹陽	제천 堤川	원주 原州	서원주 西原州	양광 楊口	청량리 淸凉里	비고 備考
Train NO.	Andong	Yeongju	Punggi	Danyang	Jecheon	Wonju	Seowonju	Yangpyeong	Cheongnyangni	Remark
702	06:00	06:20		06:42	06:57	07:14		07:37	08:03	
704	08:30	08:51	09:02	09:15	09:30	09:47	09:54		10:36	
706	11:30	11:50		12:12	12:27	12:44		13:07	13:33	
708	13:34	13:54	14:05		14:32	14:48	14:55		15:37	
710	16:30	16:50		17:12	17:27	17:44			18:30	
782	17:45	18:11	18:22	18:36	18:51	19:09			19:55	토일
712	19:00	19:21	19:32	19:46	20:01	20:19			21:05	
714	21:25	21:45			22:19	22:35		22:58	23:24	

열차 시각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TX-새마을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首爾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 taek	천안 天安 Cheon an	조치원 烏致院 Jochi won	대전 大田 Dae jeon	영동 永同 Yeong dong	김천 金泉 Gim cheon	구미 龜尾 Gumi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청도 淸道 Cheongdo	밀양 密陽 Miryang	구포 龜浦 Gupo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001	06:16	06:25	06:46		07:15		07:57	08:25	08:51	09:07	09:36	09:42	10:03	10:16 물금 10:34	10:43	10:55	
1021	07:04	07:13	07:34	07:53	08:06	08:27	08:51		09:42	09:58	10:27	10:33	경산 10:42	11:07	11:31 부전 11:48	신해문대 12:01	
1003	09:15	09:24	09:45		10:14	10:35	10:59	11:27	11:53	12:09	12:38	12:44	13:05		13:40	13:52	
1005	11:04	11:13	11:34	11:53	12:06		12:48		13:39	13:55	14:24	14:30	경산 14:39	15:04 물금 15:22	15:31	15:43	
1007	11:43	11:52	12:13	12:32	12:45	13:06	13:30	13:58	14:24	14:40 왜관 14:53	15:12	15:18		15:49 물금 16:07	16:17	16:29	
1023	12:53	13:02	13:23		13:52		14:34		15:25	15:41	16:10	16:16		16:48	17:12 부전 17:27	신해문대 17:40	토일
1009	13:55	14:04	14:25	14:44	14:57		15:39	16:07	16:33	16:49	17:18	17:24	17:45	17:58	18:23	18:35	
1011	15:55	16:04	16:25		16:54		17:36		18:27	18:43	19:12	19:18			20:12	20:24	
1013	20:25	20:34	20:55		21:24		22:06		22:57	23:13	23:42	23:48		00:20	00:45	00:57	

ITX-새마을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烏致院 Jochi won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계룡 鎭龍 Gye ryong	논산 論山 Nonsan	익산 益山 Iksan	김제 金堤 Gimje	장흥 井邑 Jeong eup	장성 長城 Jang s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 songjeong	나주 羅州 Naju	목포 木浦 Mokpo	비고 備考 Remark
1071	08:32	08:39	09:01	병택 09:20 09:33	09:53	10:20	10:36	10:54	11:20	11:32	11:47	12:05	광주 12:29			
1061	10:50	10:57	11:19	병택 11:38 11:51	12:11	12:38	12:54	13:12	13:38	13:51 신태인 13:59	14:08	14:26	14:40	14:50 함평 15:01	일로 15:14	15:23
1073	13:27	13:34	13:56	병택 14:15 14:28	14:48	15:16	15:32	15:50 강경 15:59	16:19	16:32	16:46	17:04	광주 17:28			
1075	15:22	15:29	15:51	16:20		17:05	17:20	17:39 강경 17:48	18:07	18:20 신태인 18:28	18:37	18:55	광주 19:19			
1063	19:13	19:20	19:42	병택 20:01 20:14	20:34	21:01		21:32	21:58	22:11 신태인 22:19	22:28	22:46	23:00	23:10 함평 23:21	23:40	
1077	20:10	20:17	20:39	병택 20:58 21:11	21:31	21:58	22:14	22:32 강경 22:41	23:01	23:14	23:28	23:46	광주 00:10			

ITX-새마을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 taek	천안 天安 Cheonan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계룡 鎭龍 Gye ryong	논산 論山 Nonsan	강경 江景 Gang gyeong	익산 益山 Iksan	전주 全州 Jeonju	남원 南原 Namwon	곡성 谷城 Gok seong	구례구 求禮口 Guryegu	순천 順天 Sun cheon	여천 麗川 Yeo cheon	여수엑스포 麗水 엑스포 Yeosu-Expo	비고 備考 Remark
1081	08:05	08:12	08:34	08:53	09:06	09:50		10:21		10:47	11:03	11:30	11:41	11:53	12:09	12:24	12:32	
1083	16:39	16:46	17:08	17:27	17:40	18:24	18:40	18:58	19:07	19:27	19:43	20:10	20:20	20:32	20:49	21:03	21:12	

ITX-새마을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Jinju-Ma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首爾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 an	조치원 烏致院 Jochi won	대전 大田 Dae jeon	김천 金泉 Gim cheon	구미 龜尾 Gumi	왜관 懷館 Wae gwan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밀양 密陽 Mir yang	진영 進永 Jin yeong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 jungang	창원 昌原 Chang won	마산 馬山 Masan	합안 咸安 Ham an	진주 鎭州 Jinju	비고 備考 Remark
1031	08:53	09:02	09:23	09:52	10:13	10:37	11:28	11:44		12:13	12:19 경산 12:28	12:53	13:11	13:21	13:30	13:36	13:48	14:06	
1033	19:27	19:36	19:57	20:26	20:47	21:11	22:02	22:18	22:31	22:50	22:56	23:28	23:48	23:59	00:08	00:14	00:26	00:45	

새마을호 정향선 하행 From Yongsan to Ik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 taek	천안 天安 Cheon an	아산 牙山 Asan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 oncheon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예산 益山 Yesan	삼교 沙橋 Sapgyo	홍성 洪城 Hong seong	광천 廣川 Gwang cheon	대천 大川 Dae cheon	웅천 熊川 Ung cheon	서천 舒川 Seo cheon	장항 長項 Jang hang	군산 群山 Gun san	익산 益山 Iksan	비고 備考 Remark
1051	09:40	09:48	10:11	10:31	10:51	10:58	11:07		11:25	11:33	11:44	11:59	12:16	12:27	12:40	12:45	12:53	13:11	
1053	11:52	12:00	12:23		12:59	13:06	13:15		13:32		13:47	14:00	14:17	14:28	14:41	14:46	14:54	15:12	
1055	13:45	13:53	14:16		14:52	14:59	15:08		15:25	15:33	15:48	16:01	16:18	16:29	16:41	16:47	16:54	17:12	
1057	15:30	15:38	16:01		16:37	16:44	16:53		17:10		17:26	17:39	17:56	18:07	18:19	18:25	18:32	18:50	
1059	17:55	18:03	18:26	18:46	19:06	19:13	19:22	19:36	19:43	19:51	20:02	20:15	20:32	20:43	20:55	21:01	21:08	21:26	

ITX-새마을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5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구포 龜浦 Gupo	밀양 密陽 Miryang	창도 淸道 Cheongdo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 cheon	영동 永同 Yeong dong	대전 大田 Dae 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천안 天安 Cheon an	평택 平澤 Pyeong 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서울 首尔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02	06:27	06:40	07:04	07:17	07:40	07:46	08:15	08:30		09:23	09:46	10:07		10:36	10:56	11:05	
1004	09:12	09:25	09:49	경산 10:14	10:25	10:31	11:00	11:15	11:42	12:10		12:51		13:20	13:41	13:49	
1006	11:34	11:47	울금 11:56 12:14		12:47	12:53	13:22	13:37		14:30		15:11	15:23	15:43	16:04	16:12	
1008	13:23	13:36	울금 13:45 14:03	경산 14:28	14:39	14:45	15:14	15:29	15:56	16:24		17:05	17:17	17:37	17:58	18:06	
1024	신해운대 13:51	부전 14:04 14:19	14:43		15:16	15:22	15:51	16:06		16:59		17:40		18:09	18:30	18:38	토일
1010	15:08	15:21	울금 15:30 15:48		16:21	16:27 왜관 16:45	16:59	17:14	17:41	18:09	18:32	18:53		19:22	19:43	19:51	
1012	17:16	17:29		18:03	18:26	18:32	19:01	19:16		20:09		20:50		21:19	21:40	21:48	
1022	신해운대 17:26	부전 17:39 17:54	18:18	경산 18:43	18:54	19:00	19:29	19:44	20:11	20:39	21:02	21:23	21:35	21:55	22:16	22:24	
1014	19:25	19:38	20:02		20:35	20:41	21:10	21:25		22:18	22:41	23:02		23:31	23:52	00:00	

ITX-새마을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목포 木浦 Mokpo	함평 咸平 Ham py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 songjeong	장성 長城 Jang seong	장흥 井邑 Jeong eup	김제 金堤 Gimje	익산 益山 Iksan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鎭院 Gye ryong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72			광주 06:30	06:54	07:11	07:26	07:40	08:06	08:24	08:40	09:05	09:26 병택 09:38	09:58	10:18	10:25	
1074			광주 08:50	09:14	09:31	09:46	10:00	10:26	10:44	11:00		11:43	12:12	12:32	12:39	
1062	10:42 일로 10:52	11:04 나주 11:14	11:26	11:41	11:58	12:12	12:26	강경 12:46 12:55		13:26		14:09	14:39	14:59	15:06	
1076			광주 13:50	14:14	14:31	신태인 14:40 14:49	15:03	15:29		16:00	16:25	16:46 병택 16:58	17:18	17:38	17:45	
1064	17:42 일로 17:51	18:03 나주 18:13	18:25	18:40	18:57	신태인 19:06 19:14	19:28	강경 19:47 19:57	20:15	20:31		21:14 병택 21:26	21:46	22:06	22:13	
1078			광주 18:48	19:12	19:29	신태인 19:38 19:47	20:01	강경 20:20 20:30	20:48	21:04	21:29	21:50 병택 22:02	22:22	22:42	22:49	

ITX-새마을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여수엑스포 麗水 엑스포 Yeosu-Expo	여천 麗川 Yeo cheon	순천 順天 Sun cheon	구례구 求禮口 Guryegu	곡성 谷城 Gok seong	남원 南原 Namwon	전주 全州 Jeonju	익산 益山 Iksan	강경 江景 Gang gyeong	논산 論山 Non san	계룡 鎭院 Gye ryong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82	08:55	09:03	09:18	09:34	09:46	09:56	10:24	10:42	11:01	11:11	11:29	11:45	12:28	12:57	13:17	13:24	
1084	15:55	16:03	16:18	16:34	16:46	16:56	17:24	17:42		18:08		18:39	19:22	19:51	20:11	20:18	

ITX-새마을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진주 鎭州 Jinju	함안 咸安 Ham an	마산 馬山 Masan	창원 昌原 Chang won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 jungang	진영 進永 Jin yeong	밀양 密陽 Miryang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 cheon	대전 大田 Dae 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천안 天安 Cheon an	평택 平澤 Pyeong 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서울 首尔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32	09:08	09:30	09:39	09:45	09:55	10:05	10:22 청도 10:35	10:58	11:04 왜관 11:22	11:36	11:51	12:44	13:07	13:28	13:40	14:00	14:21	14:29	
1034	15:47	16:09	16:18	16:24	16:34	16:43	17:00	17:33	17:39	18:08	18:23	19:16	19:39	20:00		20:29	20:50	20:58	

새마을호 장항선 상행 From Iksa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익산 益山 Iksan	군산 群山 Gun san	장항 長項 Jang hang	서천 舒川 Seo cheon	웅천 熊川 Ung cheon	대천 大川 Dae cheon	광천 廣川 Gwang cheon	홍성 洪城 Hong seong	삼곡 排橋 Sapggyo	예산 禮山 Yesan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 oncheon	아산 牙山 Asan	천안 天安 Cheon an	평택 平澤 Pyeong 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52	05:57	06:17	06:25	06:31	06:45	06:56	07:13	07:27	07:37	07:46	07:52	08:06	08:14	08:22	08:40	09:01	09:26	09:33	
1054	08:30	08:50	08:58	09:04	09:18	09:29	09:47	10:00	10:10	10:19		10:36	10:44	10:52		11:27	11:50	11:57	
1056	10:44	11:04	11:12	11:18	11:32	11:43	12:00	12:14		12:29		12:45	12:53	13:02		13:37	13:59	14:06	
1058	14:06	14:26	14:34	14:40	14:54	15:05	15:22	15:36		15:51		16:07	16:15	16:23	16:41	17:02	17:25	17:32	
1060	18:58	19:18	19:26	19:32	19:46	19:58	20:15	20:29	20:39	20:48	20:55	21:09	21:17	21:26		22:01	22:27	22:35	

열차 시각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TX-청춘 경춘선 평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淸涼里	상봉 上鳳	퇴계원 退溪院	사릉 思陵	평내호평 坪內好坪	마석 磨石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Sangbong	Toegyewon	Sareung	Pyeongnaehopyeong	Maseok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00			06:17				06:39			06:57		07:12	07:15	
2003	06:56		07:10	07:15				07:36	07:42		07:55		08:10	08:13	
2005	07:52		08:06	08:11				08:33	08:38		08:52		09:06	09:10	
2007	08:51	09:01	09:06	09:11				09:33			09:51		10:06	10:09	
2101	09:57			10:14							10:51		11:06	11:09	
2011	10:58	11:09		11:17				11:39			11:57		12:11	12:14	
2015	12:00	12:10		12:18				12:39			12:57		13:12	13:15	
2019	12:53			13:09				13:31		13:44	13:52	14:01	14:09	14:12	
2021	14:00			14:17				14:38			14:56		15:11	15:14	
2025	15:20			15:36				15:58			16:16		16:30	16:33	
2029	16:00			16:16				16:38		16:51	16:59	17:08	17:16	17:19	
2033	17:00			17:17				17:39			17:57		18:12	18:15	
2035	17:46		18:00	18:05	18:13	18:22	18:26	18:32	18:37		18:52		19:06	19:09	
2037	18:56		19:10	19:15	19:23	19:32	19:36	19:42	19:47		20:02		20:17	20:20	
2039	19:58		20:12	20:17	20:25	20:34	20:38	20:44	20:49		21:04		21:19	21:22	
2079	20:32			20:49				21:10		21:23	21:31	21:40	21:49	21:52	
2041	21:21			21:38				21:59			22:17		22:32	22:35	
2047	22:48			23:05				23:26			23:44		23:59	00:02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淸涼里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Pyeongnaehopyeong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15			06:32	06:53		07:12	07:21	07:29	07:32	
2003	06:55		07:09	07:13	07:34	07:47	07:55		08:10	08:13	
2005	07:55		08:08	08:13	08:34		08:52	09:01	09:10	09:13	
2007	08:20			08:38	08:59	09:12	09:20		09:35	09:38	
2009	08:45	08:55	09:00	09:05	09:26		09:44	09:53	10:02	10:05	
2071	09:18			09:36	09:57	10:11	10:19		10:34	10:37	
2101	09:49			10:06			10:43		10:58	11:01	
2015	10:26			10:43	11:04		11:23	11:32	11:41	11:44	
2017	10:59	11:09	11:13	11:17		11:49	11:57		12:12	12:15	
2073	11:30			11:47	12:08		12:26	12:35	12:43	12:46	
2021	11:57	12:07	12:12	12:17		12:49	12:58		13:12	13:15	
2075	12:30			12:47	13:09		13:27	13:36	13:44	13:47	토
2025	12:58		13:11	13:15	13:37	13:51	13:59		14:13	14:16	
2077	13:30			13:47	14:08		14:27	14:37	14:46	14:49	토
2029	14:15			14:33	14:54	15:07	15:15		15:30	15:33	
2079	14:47			15:04			15:41	15:50	15:59	16:02	
2033	15:14			15:32	15:54	16:08	16:16		16:31	16:34	
2035	15:47			16:04	16:25		16:43	16:53	17:02	17:05	
2081	16:18			16:35		17:08	17:16		17:31	17:34	
2039	16:56			17:14	17:35		17:54	18:04	18:13	18:16	
2083	17:30			17:47	18:08	18:21	18:29		18:44	18:47	
2043	17:59			18:15	18:37		18:55	19:04	19:12	19:15	
2045	18:26			18:44		19:16	19:24		19:39	19:42	
2047	19:00			19:17	19:38		19:56	20:05	20:14	20:17	
2085	19:30			19:48	20:09	20:22	20:31		20:46	20:49	
2051	20:00			20:18	20:40		20:58	21:08	21:16	21:19	
2053	20:35			20:51		21:24	21:32		21:46	21:49	
2055	21:20			21:36	21:58		22:16	22:25	22:33	22:36	
2087	21:50			22:07		22:39	22:47		23:02	23:05	토
2059	22:05			22:21	22:43		23:01		23:15	23:18	

ITX-청춘 경춘선 평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2021년 5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마석 磨石	평내호평 坪內好坪	사릉 思陵	퇴계원 退溪院	상봉 上鳳	청량리 淸涼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Maseok	Pyeongnaehopyeong	Sareung	Toegyewon	Sangb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8	06:12		06:27		06:41	06:47	06:53	06:57	07:06	07:14	07:19		07:33	
2004	06:54	06:58		07:13		07:27	07:33	07:39	07:43	07:52	08:01	08:06		08:20	
2074	07:24	07:28	07:37	07:46	07:54		08:07				08:30			08:48	
2006	08:12	08:16		08:30		08:45	08:51	08:57	09:01	09:10	09:19	09:24		09:37	
2010	09:21	09:25		09:40			09:58				10:20			10:37	
2014	10:23	10:27		10:42			11:00				11:22			11:39	
2018	11:14	11:18		11:33			11:51				12:13			12:31	
2020	12:10	12:14		12:29			12:47				13:10			13:25	
2024	13:15	13:19		13:34			13:52				14:14			14:29	
2028	14:06	14:10	14:19	14:28	14:36		14:49				15:11			15:27	
2032	15:29	15:33		15:48			16:06				16:28		16:36	16:46	
2034	16:12	16:16		16:31			16:49				17:12		17:20	17:30	
2102	17:01	17:05		17:20		17:34					17:59	18:03		18:17	
2038	18:14	18:18		18:33		18:47	18:52				19:14	19:19	19:24	19:33	
2040	18:54	18:58		19:13			19:31				19:53	19:58		20:12	
2078	19:39	19:43	19:52	20:01	20:09		20:22				20:45			21:01	
2046	21:12	21:16	21:25	21:34	21:42		21:55				22:17			22:33	
2048	22:14	22:18		22:33			22:51				23:13			23:28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량리 淸涼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Pyeongnaehopye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6	06:10	06:19	06:28		06:46	07:09			07:25	
2004	07:07	07:11		07:26	07:34	07:47	08:10			08:26	
2072	07:44	07:48	07:57	08:06		08:24	08:48			09:05	토
2006	08:12	08:16		08:31	08:39	08:52	09:15			09:31	
2008	08:47	08:51	9:00	09:09		09:27	09:50			10:07	
2010	09:32	09:36		09:51	09:59		10:34			10:49	
2074	09:52	09:56	10:05	10:14		10:32	10:55			11:11	
2014	10:22	10:26		10:41	10:49		11:23			11:39	
2076	10:49	10:53	11:02	11:11		11:29	11:51			12:08	토
2018	11:25	11:29		11:44	11:52		12:25			12:43	
2078	11:53	11:57	12:06	12:14		12:32	12:53			13:10	토
2022	12:28	12:31		12:46	12:54	13:07	13:30			13:46	
2080	13:11	13:15	13:24	13:33		13:51	14:14			14:30	
2026	13:38	13:42		13:57	14:05		14:39			14:56	
2028	14:05	14:09	14:18	14:27		14:45	15:07			15:24	
2082	14:50	14:54		15:08	15:16	15:29	15:52			16:08	
2032	15:07	15:11	15:20	15:30			16:09	16:14	16:18	16:28	
2084	15:52	15:56		16:11	16:19	16:32	16:55			17:12	
2036	16:15	16:19	16:28	16:37		16:55	17:19	17:23	17:28	17:38	
2102	16:55	16:59		17:14			17:52			18:08	
2040	17:26	17:30		17:45	17:53	18:06	18:29			18:44	
2086	17:55	17:58	18:07	18:16		18:34	18:56			19:12	
2044	18:25	18:28		18:43	18:51		19:26	19:31	19:35	19:45	
2046	19:00	19:04	19:13	19:22		19:40	20:02			20:18	
2048	19:34	19:38		19:53	20:01	20:14	20:37	20:42		20:55	
2088	20:00	20:04	20:12	20:21		20:39	21:02			21:19	
2052	20:30	20:34		20:49	20:57	21:10	21:33	21:38		21:52	
2054	21:15	21:19	21:28	21:38		21:56	22:20			22:36	
2056	21:48	21:52		22:06	22:14		22:48	22:51		23:05	
2058	22:13	22:17		22:34		22:53	23:16			23:32	

열차 시각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일반 객실 | Passenger Compar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 |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아울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아울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아울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승강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 Optional Services

KTX 셔틀버스 8507번 갈라잡이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
광명역 서편(상징광장) 정류소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전용 라운지 →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
사당역 3번 출구 앞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 / 배차 간격 10분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갈라잡이

※ 탑승 수속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탑승 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수속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진에어, 아스타, 에어부산
수속 가능 노선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전 노선

※ 출국 심사

이용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출국 심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 출국 심사 가능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중단합니다.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갈라잡이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선불 전국 호환 교통카드

※ 사용처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고속도로,
편의점, 주차장 등

※ 구입 및 충전 역 매표 창구, 지하철 무인 기기,
스토리웨이 매장, 이마트24 등

청소년·어린이 할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 First Class Service



**KT
1120mm**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마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박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계입니다.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
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ut)**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s**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인천국제공항 연계 리무진

승차권 구입 전국 고속철도역,
여행사, 인천공항 철도 안내데스크
승차장 서울역 서편 전용 정류장,
웅산역 1번 출구 건너편 환승 정류장,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전용 정류장



주차 대행 서비스 위치

광명역 서편 1번 출구 맞은편
A주차장



수하물 택배 서비스

열차 이용 시 휴대하기 불편한
짐을 할인된 택배 요금으로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신청 및 접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문의 1588-0011

KTX 특송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퀵서비스를
연결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취급역 서울, 울산, 광명,
전안산, 오송, 대전,
동대구, 울산, 마산,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항
문의 1544-7781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15%	40%	70%
금~일요일, 공휴일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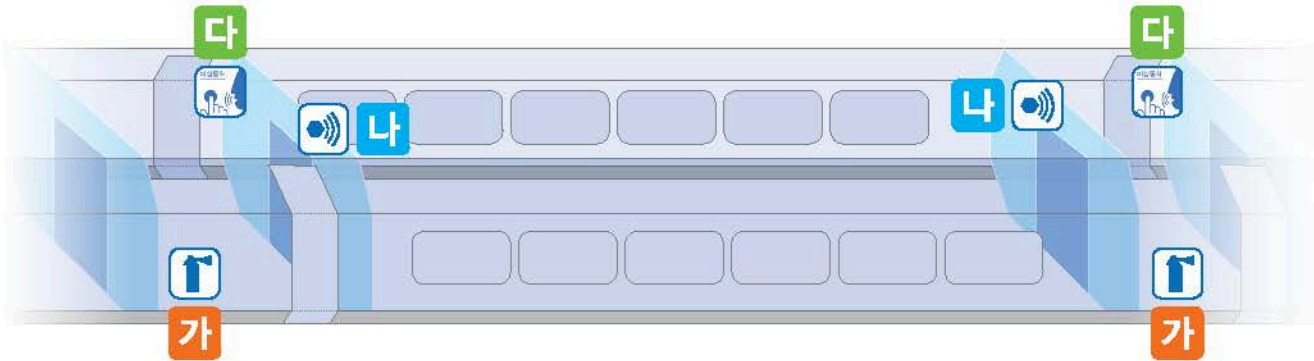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 – 60 minutes	60 minutes – 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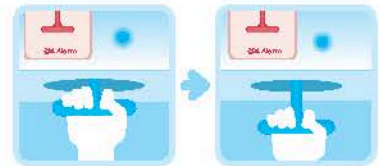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1. 승강문 옆 수하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2.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1.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2.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아울

1.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2.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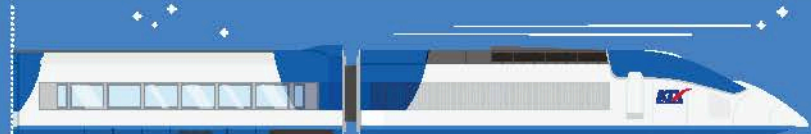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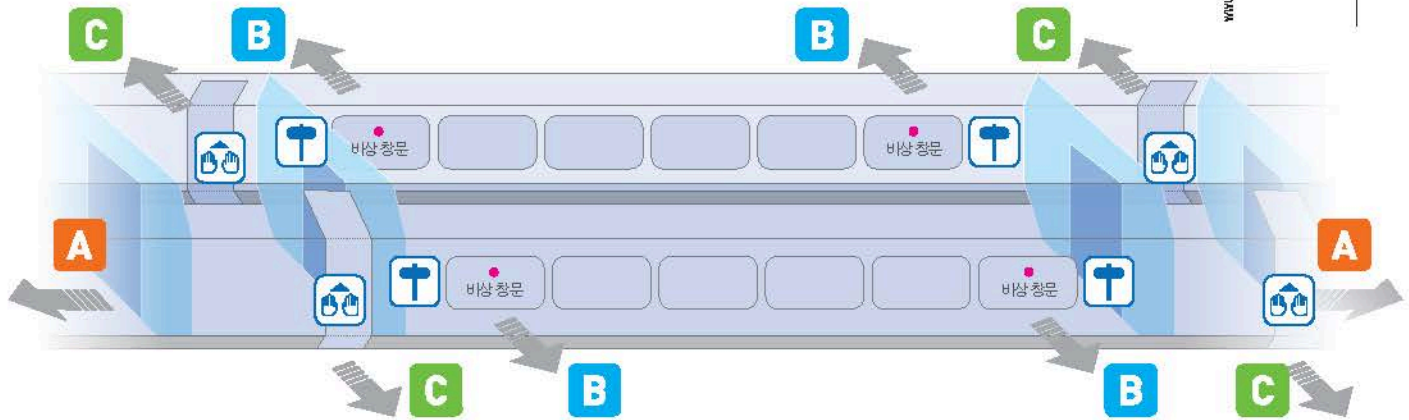
KTX 4차량 | KTX 1차량

1.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2.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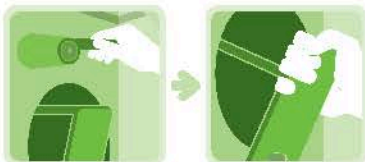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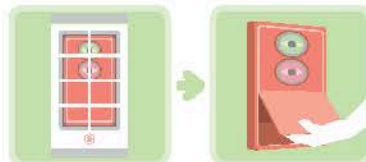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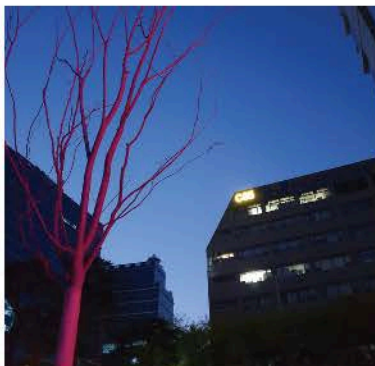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어디서 무슨 포즈가 되어 다시 만나라

2018년 6월호 '편집 후기'에 정우 실장님에 대해 썼다. 그때 나는 처음 맡은 '테마여행'을 실장님과 처음 만나 취재했다. 바다에 뛰어들고는 하반신을 남김 없이 적셔 가며 촬영하는 사진가의 모습도 실장님에게서 처음 보았다. 그 뒤로 실장님은 취재를 함께하는 매번 박진감 넘치는 포즈를 보여 줬다. 동해 논골담길에서는 골목길에 모델 두 분을 같이 담고 자 허리를 연신 격하게 굽히는 통에 온종일 실장님의 엉덩이만 본 것 같다. 이번 호 '이색여행'에서 오랜만에 실장님을 만났다. TV 예능 프로그램 <기차로> 촬영 현장에 동행하기에 그쪽 스태프가 많았고, 출연진 앞에 영상 카메라가 숲을 이뤄 꺼들 공간이 없었다. 틈을 찾는 저돌적인 눈빛, 마침내 결단했다는 표정, 차분하게 내려앉는 몸이 내 눈에, 가슴에 들어왔다. 열정을 찰찰 불태우면서, 실장님은 '엠포더 촬영' 기술을 선보였다. 불이 붙은 나뭇가지가 눈앞으로 실장님 등판을 주시했다. 온통 등판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남작 엠포더 열심히 촬영해 준 우리 정우 실장님. 좋은 사진 정말 고마워요. **김규보**



불타는 청춘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세요. <KTX매거진> 이내경 기자라고 하는데 요~" 이달 마감 기간에 가장 많이 내뱉은 소리다. '전국 맛집 탐방' 칼럼에서 고창군이 선정한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 브랜드의 음식점 열다섯 곳을 두루 소개하기로 하면서 전화 취재의 도움도 받아야 했다. 하루에 열다섯 곳 모두 연락하는 것은 부담이 돼서 다섯 곳씩하기로 마음먹고 3일간 전화를 돌렸다. 준비한 질문을 속사포처럼 쏟아냈고, 식당 대표님들은 바쁜 와중에도 내 질문에 귀 기울이고는 성실히 답해 주셨다. 몇몇 사장님은 한 번이라도 더 먹어 보고 취재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대접하겠노라 했고, 몇몇 대표님은 나중에 고창에 오면 들르라 신신당부하셨다. 그 마음이 고마웠다. 처음에는 릴레이 전화 취재가 걱정됐는데, 고창 밥상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다. 어떻게 다 국산만 사용하는지, 어떻게 장을 담가서 쓰는 게 당연한 건지, 어떻게 이런 식당이 고창에는 흔한 것인지 신기했다. 그래서 이 사진은요, 그 결과로 야근하다가 동트는 것을 본 날이라는... 붉은 나무가 나 갈아서. **이내경**



이달의 TMI 모음

1. 얼마 전 친구에게 민트 한 줄기를 분양받았다. 식목일을 기념해 회사에서도 바질트리를 나눠 줘 화분이 동시에 두 개나 생겼다. 그러잖아도 식물을 키울지 말지 망설이던 차였다. 동네 꽃집에서 본 노란 수선화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반려식물 키우기는 처음이라 괜스레 기분이 들쭉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분에 인사하곤 했다. 야근이 잦은 마감 기간엔 잠시 멀어져야 했다. 정신없는 출근길에 "아..., 오늘도 껌빳했네" 하길 여러 번, 이 글을 쓰는 오늘 아침엔 잊지 않고 물을 줬다. 제대로 살피지 못한 며칠 동안 쑥쑥 자라 있었다. 그간 관심이 과했던 걸까. 이 정도 거리감이 필요했던 걸까. 이런 게 식물 키우는 맛인가요? 초보 식물 집사의 경험에서 우러난 기사는 이달 '생활의 지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 '우연한 발견' 기사를 쓸 땐 참으로 행복했다. 브레이브걸스부터 아이유까지 사랑하는 가수의 노래를 실컷 들었기 때문이다. 3. 마감 후에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하는 뮤지컬을 보러 간다(그러니 마감아, 어서 끝나라). 이달의 TMI 끝. **진주영**

5월의 광주

경주 다음으로 좋아하는 도시가 광주다. 2017년에 처음 간 광주는 '역장 추천 맛집'(기억하는 분 계시죠?) 취재차,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는 각각 광주비엔날레, 전시 <해킹 푸드> <연대의 흙씨>를 관람하러 방문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광주에 다녀왔다. 코로나19로 개막이 연기된 광주비엔날레가 본래 일정보다 8개월 늦은 4월 1일에 막이 올랐기 때문. 잠자는 시간 빼고 1박 2일 동안 전시장에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돌아와 보고픈 작품이 얼마나 많은지(+호랑가시나무 아트 폴리곤에 설치된 후각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시셀 톨라스의 'EQ_IQ_EQ' 필수 관람). 전시장에 갔다 두긴 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작품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작가가 방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광주비엔날레 관계자와 영상통화로 소통하며 설치한 작품, 작가의 퍼포먼스가 빠진 텅 빈 작품에서 끝까지 완성하려는 작가의 의지를 엿보았다. 오늘은 4월 20일. 전시 기간 39일 중 절반이 흘렀다. 지금도 계속되는 전시. 광주에 가야 할 이유다. 5월이니까. **표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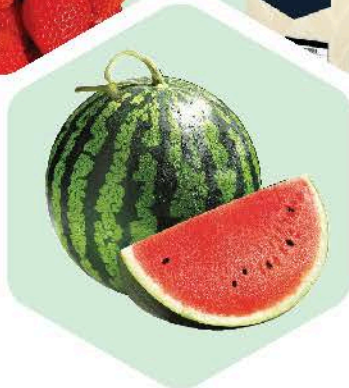


고창군
GOCHANG COUNTY



높을 High 고창

고창의 대표 농산물을 소개합니다!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

2021년 10월 29일 ~ 31일

높을고창몰에서
고창 농산물을 만나 보세요.

noblegochang.com

KTX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김천

만개한 김천 힐링 여행